檀國大學校 **上戶庙/善/紀/念 1季 物-館** 開館二十四周年紀念

第二十三回 학 술 발 표第二十四回 특 별 전

・ 경기도 과주 출토 晋州姜氏 掌隷院 判決使 河陰公 (大虎, 1541~1624)墓 服飾類

학 술 발 표: 2005. 5. 2(월) 10:00 ~ 12:30

난파기념음악관

특 별 전: 2005. 5. 2(월) ~ 2004. 5. 18(수) 본 박물관 중앙홀 및 전시실

開館二十四周年紀念

第二十三回 학술발표 및 第二十四回 特別展에 즈음하여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광복이 되고 6·25를 겪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에게 문화유산이라는 말은 너무나 생소하여 인식되지 못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파괴되고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고수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故 석주선선생님은 바로 그런 헌신적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선생은 특히 민속과 복식학 분야의 선구자로서 평생을 바쳐 이 분야의 유물을 수집하셨습니다.

선생께서 이렇듯 오랜 세월 수집하신 유물 전체를 우리 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시고 여생을 민속·복식학 연구에 온 힘을 다하신 결과, 우리 박물관의 민속·복식분야는 대학박물관이면서 동시에 전통복식 전문박물관으로서 인정 받아왔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故 석주선선생님께서 영면 하신지 10주기가 됩니다. 그 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일궈 온 우리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올해로 개관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년까지 우리 박물관의 민속·복식 분야는 총 23회의 학술세미나와 24회의 특별전을 개최해왔습니다. 대학 박물관으로서 해를 거르지 않고 이렇듯 학술세미나와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행사를 주관하는 고부자 교수, 박성실 교수 두 분을 주축으로 하여 뒤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몸담고 계신 윤진영 박사의 귀중한 논문을 비롯하여, 고부자 교수와 제자들의 연구논문을 담은 한국복식 제23호를 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2001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出土된 晋州姜氏 大虎(掌隷院 判決使, 1541-1624)墓 복식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임진왜란 전후의 과도기적 복식 구조와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출토복식을 여러분께 선보이기까지 유물의 수습, 세척과 오랜 시일 동안 보존·보수작업을 거쳐야만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어오신 우리 민

속·복식 분야의 두 분 교수님과 그 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학생들에 게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조상님의 유물을 후학들을 위하여 학문의 연구자료로 기꺼이 내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晋州姜氏 草堂公派 宗中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거듭나는 박물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5월 2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정영호

目 次

제23회 학술발표
契會圖의 복식연구 자료와 성격 윤진영 7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大虎, 1541~1624)유물 연구 고부자 39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바느질 연구 금종숙 121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피륙 연구 ······ 김주영·김은정 ···· 181

■ 개관기념 행사내역 ------215

■ 인 사 말

契會圖의 복식연구 자료와 성격

윤 진 영(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Ⅱ. 계회도와 복식자료
- Ⅲ. 신분에 따른 계회도의 도상과 특징
- 1. 관료층의 계회도
- 2. 왕실 종친들의 계회도
- 3. 원로관료들의 계회도
 - 4. 지방 향반들의 계회도
- IV. 後模本의 도상적 특징
- V. 맺음말

契會圖의 복식연구 자료와 성격

Ⅰ. 머리말

조선시대의 契會圖는 양반관료층의 풍속화라 할만큼 다양한 官僚文化의 시각적 양상들을 담고 있다. 계회도에 그려진 관료생활의 여러 장면들은 繪畵史의 연구 분야일 뿐 아니라 복식·음악·문학·건축 등의 인접 분야에도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服飾 분야에 있어서의 복식도상은 그 형태와 형식을 통해 당시의 실물적 특징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요긴한 일차 자료로 간주된다. 또한 이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은 그림 속 인물들의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고, 복식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참고 자료이자, 연구 상의 공백을 메우고 보완해 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계회도는 記錄畵의 한 분야이지만, 宮中記錄畵와 같은 장엄한 표현과 사실적인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계회의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 인물을 작게 그리고 배경의 대부분은 山水로 채워 넣는 경향과 관료층에 한정된 나머지 보다 다양한 계층의 복식을 살피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계회도에는 일반 풍속화에서 접할 수 없는 복식관련 요소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계회를 매개로 한 조선시대 前半期 관료들의 공·사적인 생활 풍속과 관련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상에 묘사된 복식관련 요소는 보다 전문적인 服飾史 분야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복식을 포함한 계회

도의 인물묘사에 대해서는 아직 회화사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적은 없지만, 복식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회화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계회도에 묘사된 복식 자체에 대한 고찰은 필자의 능력 밖의 영역이므로, 본고에서는 복식의 요소가 강조된 계회도의 사례와 도상적 특징만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이후 보다 전문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Ⅱ. 계회도와 복식자료

계회도는 조선시대의 양반관료층이 참여한 契會를 기념하여 그린 그림으로 관료 상호간의 사교와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기록하여 기념물로 남기고자 한 것이 제작 목적이었다. 이러한 계회도는 기록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그 기능에 맞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즉 계회도에는 참석자들의 소속과 이름을 기록한 座目, 그리고 계회의 취지를 적은 序・跋文이그림과 함께 粧漬되어 있다. 이는 곧 언제 어디에서 계회가 있었고, 참석자가 누구였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계회도는 고려시대 계회의 전통을 계승하여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1 6·17세기의 유행기를 거쳐, 18·19세기의 퇴조와 변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전개되었다. 계회의 형태에는 관례화된 정기적 회합이나 일시적인 모임이 포함되며, 구성원들 간의 강한 결속과 동류의식, 그리고 계회도의 제작을 관행으로 한 점등이 그 성립조건이 되었다. 또한 기념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계회도의 제작관행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발전하게 된 기반이 되었다.

계회의 범주와 유형은 계회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같은 관청의 동료들로 결성된 同官契會, 국가적인 役事에 참여한 관원들의 都監契會, 과거시험을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의 同榜契會, 나이가 같은 관료들 간에 이루어진 同庚契會, 원로관료들의 耆老會·耆英會, 그리고 私的인 만남을 기념한 계회 등은 계회도의 주요 유형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王이 내린 賜宴을 받은 功臣과 近臣들의 계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범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회도를 제작한 주체는 대개 연로한 퇴직관료나,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계회도의 제작은 지방의 兩班이나 中人층에 이르기까지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두터운 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계회도를 그리게 하여 소유한 자들이 양반관료층이었다면, 제작자는 주로 畵員畵家나 전문화가로 추정되는 직업화가들이었다. 계회도에는 이들의 뛰어난 기량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도, 화가 개인의 역량에 따른 다양한 화격의 차이도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단조로운 형식의 그림뿐 아니라 기량에 따라 다채롭고 흥미로운 도상으로도 그려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오랜 동안 소유자의 집안에서 家寶로 전해져 왔던 계회도는 전란과 재난을 겪으면서 亡失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고 알려져우리 나라 고유의 기록화, 기념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조명되고 있다.

계회도는 참석자의 수만큼 여러 점을 제작하는 특성상 묘사가 자세한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인물묘사 보다 계회의 현장인 장소에 대한 표현과 山水美에 대한 관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인물표현이 부각된 사례를 통해 그 특징과 복식 표현의 다양한 특색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계회도 가운데 복식의 표현과 인물의 묘사가 강조된 사례를 선별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조선시대의 계회도를 계회 주체의 신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관료층, 宗親, 원로관료, 鄉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 묘사된 인물은 관료층만이 아니라 수행원·시녀·기녀 등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계회의 장면은 연회의 형식으로 연출되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관료층의 계회는 관청 소속 낭관급 관원들, 과거 급제 동기생들의 榜會, 그리고 특별히 기념할만한 일을 계기로 만난 관료들의 모임에 해당된다. 특히 宗親契會圖는 엄격히 종친들만이 참여한 경우로 賜宴과 祝宴을 계기로 한 일회적인 모임의 형식으로 가진 것이다. 또한 원로관료들의 계회는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70세 이상의 耆老로서 耆老所에서 행한 정기적인 耆英會, 私的인 노인회 성격의 모임, 그리고 慶壽宴의 사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주목되는 것은 중앙 관료들의 계회도가 지방으로 전래된 결과, 지방의 鄕班들이 계회를 갖고, 또한 계회도를 제작한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 복식 자료 관련 계회도의 사례

	계회도명	제작연도	표현된 인물	소장처
관료층	戶曹郎官契會圖	1550년	관료, 시녀	국립중앙박물관
	蓮亭契會圖	1550년	관료, 기녀	국립중앙박물관
	中廟朝書筵官賜宴圖	1535년	관료, 수행원, 시녀, 기녀, 악공 등	홍익대박물관
	喜慶樓榜會圖	1567년	관료, 수행원, 시녀, 기녀, 악공 등	동국대박물관
	壬午司馬榜會圖	1630년	관료, 수행원, 시녀	개인
	四老宴會圖契屛	1689년	관료, 수행원, 시녀, 마부, 가마꾼	서울대박물관
	宣傳官廳契會圖	1787년	관료, 수행원, 시녀, 기녀	개인
종 친	宗親契會圖	1577년	관료, 수행원, 시녀, 기녀	개인
등 선	宗親府賜宴圖	1744년	관료, 수행원, 시녀, 기녀, 악공 등	서울대박물관
	十老契帖	1499년	향반, 노인, 시녀	개인
	耆英會圖	1584년	기로, 수행원, 시녀, 기녀, 가마꾼	국립중앙박물관
	宣祖朝耆英會圖	1585년	기로, 수행원, 시녀, 기녀, 악공	국립중앙박물관
원 로	耆老所宴會圖	1612년	기로, 수행원, 시녀, 기녀, 악공	소장처 미상
관 료	耆席設宴之圖	1612년	기로, 수행원, 시녀, 기녀, 악공	규장각
	南池耆老會圖	1629년	관료, 수행원, 시녀, 기녀	서울대박물관
	梨園耆老稧帖	1730년	노인, 수행원, 시녀, 기녀, 악공 등	국립중앙박물관
	諸宰慶壽宴圖	1655년	관료, 수행원, 시녀	홍익대박물관 등
향 반	花山養老宴圖	16세기	관료, 향반, 시녀 등	개인
왕 반	乙丑甲會圖	1686년	향반, 수행원, 악사	서울역사박물관

이러한 계회도를 복식 연구의 자료로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일찍이 《十老契帖》〈사진 1〉과〈十老圖像卷〉이 주목된 바 있다.』》《십로계첩》은 조선초기의 文臣 申末舟(1439~?)가 1499년(연산군 5)에 결성한 '十老會'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15세기 복식의 특색을 살피는데 유용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십로회는 私的인 노인회 성격의 모임이지만, 기로회와 관련된 중국고사를 모방하여 조직된 것이다. 신말주는 1454년(단종 2) 26세로 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으로 나간 뒤, 60세에 고향 순창으로 돌아와서 인근 노인들과 십로계를 형성하였으며이 결성을 기념하여만든 것이다.

그림과 跋文이 전체 16면에 장황되어 있으며, 그림은 한 면에 한 사람씩 배열하여 참석자

¹⁾ 유희경,「15世紀 服飾의 樣式과 特性」, 1~24쪽 참조,『韓國服飾』 제10호,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1992. 5

10인의 모습을 그렸고, 여백에 각자가 지은 詩를 기록하였다. 계첩에 그려진 인물들은 모두 머리에 巾을 썼으며, 방석 위에 앉거나 일어서서 춤을 추는 장면, 혹은 엎드린 모습 등 가 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의 묘사는 단조롭고 비슷한 형태의 표정이 반복되어 있어, 개성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십로계첩》은 여러 점의 後模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미술관 소장의 〈十 老圖像卷〉〈사진 2〉이 가장 주목된다. 여기에 나타난 인물의 묘사는 《십로계첩》의 도상과 거의 흡사하지만, 인물들을 하나의 동일공간 안에 표현한 것이 다른 점이다. 〈십로도상권〉에 나타난 복식에 대해서 유희경 교수는 그 동안 자료가 영성했던 조선초기 복식의 세부구조, 착장, 색 등을 살펴봄으로써 15세기 복식의 시대적 특징을 조명하고 보강하는 성과를 내었다. 《십로계첩》과 〈십로도상권〉은 복식 유물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조선초기 복식의주요 특징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계회도의 도상은 복식의 실물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복식사 연구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 ≪十老契帖≫ 중〈薛山玉〉, 1499년추정



〈사진 2〉 〈十老圖像卷〉, 後模本(契會年度 1499년)

Ⅲ. 신분에 따른 계회도의 도상과 특징

계회도에 그려진 인물은 계회의 주체인 관료층과 侍從・侍女・妓女 그리고 樂工 등에 국한된다. 이 인물들은 계회 및 연회장면에 함께 그려진 경향이 많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지 않고, 다만 계회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관료층・왕실 종친・원로관료・지방의향반들이 남긴 계회도의 도상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료층의 계회도

관료층이 참여하여 남긴 계회도는 數的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전한다. 대부분이 山水를 강조한 반면 인물을 작게 그리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중에는 인물을 비중 있게 표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와 같이 산수를 강조한 사례와 인물에 중점을 둔 경우는 계회의 '장소'와 '장면'에 관심을 둔 결과로써 계회도의 대표적인 두 경향으로 설명된다. 이 장에서는 실내에서의 계회 장면이나 인물표현에 비중을 둔 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례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복식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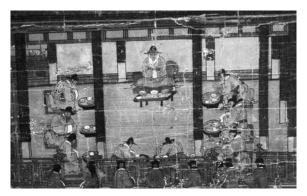
1) 16세기

복식의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작례로는 〈戶曹郎官契會圖〉(약 1550년경), 〈蓮亭契會圖〉(약 1550년경), 그리고 〈喜慶樓榜會圖〉 등이 있다. 이 3점의 계회도는 건물 내부에서의 계회장면과 인물묘사에 비중을 두었다.

(1) 호조낭관계회도〈사진 3〉 / 연정계회도

戶曹에 소속된 郎官급 관료들의 계회 장면을 그린 것으로 관료들의 酒宴과 그 주위에서 시중을 드는 侍女들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된 그림이다(사진 3). 건물 내부의 관료들은 가운데 자리의 상급관료로 추정되는 인물을 향하여 정중히 예를 표하는 자세로 묘사되어 있어, 엄격한 예법이 지켜진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의계회의 참석자들이 官服을 착용한 것은 이 곳

이 관청 내부의 장소임을 말해주며, 이들이 근무의 여가에 계회를 가진 것임을 암시한다. 관료들은 홍색의 관복에 관모와 冠帶를 착용했으며, 일부는 笠을 쓰기도 하였다. 한편 실외 의 댓돌 위에 앉은 7명의 시녀들은 모두 두터운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계절감을 파 악할 수 있다. 우측 공간에서 酒饌을 준비하는 3명의 시녀도 마찬가지이다.



〈사진 3〉〈戶曹郞官契會圖〉, 1550년경

호조낭관계회도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연정계회도〉가 있다. 누정 내부의 우측에 2~3명의 시녀들이 앉아 있으나 박락된 부분으로 인해 자세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관료들의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 관복의 형식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2) 희경루방회도〈사진 4〉

위 2점이 서울 중앙 관청에서의 계회장면을 그린 것이라면, 1567년작 〈희경루방희도〉는 전라도 光州에 있던 희경루에서 지방 관료들의 榜會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³⁾ 앞서 본 〈호조낭관계회도〉와 이 〈희경루방회도〉에서 주목할 점은 중앙과 지방에서 그려진 계회도 도 상의 특색을 비교하여 살필 수 있는 좋은 예라는 점이다.

희경루는 전라도 광주의 客館으로서 2층으로 축조된 누정 안에서 연회가 진행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는 5인의 前‧現職 관료와 기녀들이 등장해 있다. 인물의 묘사는 간략한 편이지만, 실제 계회의 장면을 근거로 하여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 하단에 적힌 발문에 同榜 5인과 그 위치를 기술한 점이 참고되며, 발문에 적힌 인물의 위치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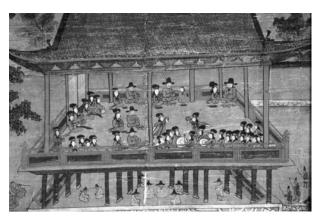
²⁾ 안휘준, 『16세기 중엽의 게회도를 통해 본 회화양식의 변천』, 466~468쪽, 『한국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³⁾ 윤진영,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喜慶樓榜會圖〉考察』, 145~161쪽, 『東岳美術史學』 3號, 東岳美術史學 會, 2002

또한 개별인물의 구체적인 특징까지도 충실히 묘사한 점이 주목을 요한다. 한 예로써 참석자들의 冠帽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좌측에 일열로 앉아 있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笠을 썼다. 笠을 쓴 인물은 前職 관원들로 판단된다. 나머지 3인은 현직관료이기에 관모를 썼으며, 笠은 현직관료가 아님을 구분하기 위해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모와 같은 작은 부분에도 사실 관계가 충실히 고려되었음을 말해주는 단서이다.4

연회장면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기녀들이 동원된 점이다. 이 기녀들은 모두 관청에 소속된 官妓로 추정된다. 등장한 기녀의 수는 모두 35명으로서 동방 다섯 사람과 함께 앉은 기녀, 시중을 들거나 춤사위를 펼치는 기녀, 그리고 가야금과 장구 연주 및 唱을 부르는 기녀 등이 다채롭게 그려져 있다. 특히 기녀들의 복식은 저고리가 下衣를 덮고 있고, 저고리 뒷자락이 아래로 늘어뜨려진 형식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복식은 중앙관료들의 계회도에도 자주 등장하는 16세기 기녀복식의 대표적인 한 형식으로 생각된다.

머리 모양은 假髮을 하였으나 크기가 거대하고 頭飾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색은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기녀들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머리 모양을 보면, 조선시대 기녀의 머리는 18세기 이전까지 긴 머리를 땋아 머리 둘레에 올려 빗고, 가체를 한 '얹은머리'가 일반적인 것이어서 대부분 머리가 크면 클수록 보기가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1503년(연산군 9) 『燕山君日記』에 "城中에서 高髮을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一尺이다"고 한 기록은 〈희경루방회도〉에 나타난 기녀들의 가체형식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 기녀들의 특이한 머리 모양은 지방색이 가미된 전라도 지역 관기들의 특색 있는 가체 형식이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진 4〉 〈喜慶樓榜會圖〉, 1567년

⁴⁾ 尹軫暎, 위의 論文, 153쪽 참조

여기에 나타난 도상은 조선시대 계회도 가운데 風流와 歌舞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례로써 중앙에서 제작된 계회도와 지방에서 제작된 양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한다.

2) 17세기

17세기 관료들의 계회도 가운데 인물 묘사가 강조된 사례로는 1630년작〈壬午司馬榜會圖〉 와 1689년 작〈四老宴會圖屛〉이 대표적인 작례이다.

(1) 임오사마방회도〈사진 5〉

화첩에 그려졌으며, 1582년 기차에 합격한 200명의 동기생들 가운데 50년 가까운 세월이지난 1630년까지 생존해 있던 12명의 동기생들이 모임을 갖고 제작한 것이다. 이때 함께제작된 것으로 고려대박물관, 연세대도서관, 그리고 尙州 개인소장 본 등 3점이 전한다. 계회의 장소는 충훈부이며, 그림에는 배경을 생략하고 건물 앞쪽에 遮日을 그려 넣었으며, 건물 내부에서의 모임장면을 강조하여 그렸다.



〈사진 5〉〈壬午司馬榜會圖〉부분, 1630년



〈사진 5-1〉〈壬午司馬榜會圖〉부분

⁵⁾ 朴廷蕙, 「16・17세기의 司馬榜會圖」, 29~332쪽, 『미술사연구』16호, 미술사연구회,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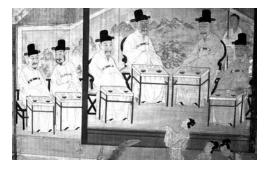
관료들의 모습은 간략하면서도 일률적으로 묘사하여 형식화된 특색을 보이는데, 복식에 따른 특징적인 요소는 미약하다. 이는 帖形式에 그려짐으로써 화면의 크기가 작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건물의 바깥 한 쪽에서 차를 끓이는 시녀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비교적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쓴 사각모양의 모자와 옷의 형태는 당시 시녀들의 특색 있는 복식의 한 형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사진 5-1).

(2) 사노연회도계병〈사진 6〉

1689년 작 〈四老宴會圖契屛〉은 서울대박물관 소장의 8폭 병풍이다.6

契屛은 17세기부터 등장하여 冊禮와 親政 등 국가적인 행사를 기념하여 만든 것이지만, 관료들 사이에 특별히 기념할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私的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사노연회도계병〉은 1680년(숙종 6) 유배되었던 4명의 南人系 원로관료들이 70세가 넘은 1689년(숙종 15) 복직과 함께 다시 만남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화면에는 기로를 중심으로 한 실제 인물들을 표현하였고,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그려넣었다. 등장한 인물은 9명인데 인물에 따른 개성적인 외모가 반영된 점이 흥미롭다. 시녀들의 모습은 갸름한 얼굴과 마른 체구가 돋보이는데 현실의 인물을 그렸다기보다 중국 明代의인물화가 仇英의 美人圖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여〈사진 6·1〉, 중국 그림을참고하여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중국풍이 완연한 특징은 병풍 좌측 아래에 그려진여인들의 묘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계병은 私的으로 만든 기로회도로서 채색을 사용한 畵員畵家의 높은 기량이 돋보이는 17세기 계병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진 6〉 ≪四老宴會圖契屛≫부분, 1689年



〈사진 6-1〉≪四老宴會圖契屛≫ 부분

^{6) 〈}四老宴會圖屛〉에 대해서는 진준현, 「권대운의 기로연회도병풍에 대하여」, 3~28쪽 참조, 『박물관·미술관학예사 연구논문집』, 서울대학교박물관, 2003

3) 18세기

18세기는 계회의 관행이 거의 단절되거나 약화된 시기이므로 관청소속의 관원들이 제작한 계회도의 사례와 내용 또한 퇴조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義禁府 관원들의 〈金吾契帖〉이다. 여기에 그려진 계회도는 크기가 작고 간략하여 복식의 특징을 살피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에 軸形式의 〈宣傳官廳契會圖〉〈사진7〉는 인물묘사와 복식의 시대성은 물론 변화의 양상을 비교적 잘 나타낸 사례로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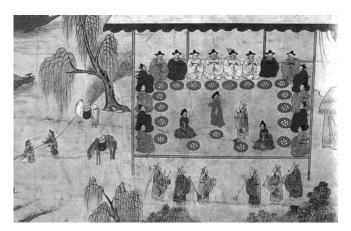
선전관청계회도〈사진 7〉

선전관청계회도는 1789년 作이며 宣傳官들의 新參禮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관청에 소속된 관원들의 위계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의례인 신참례가 계회도 제작의 배경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기화면에는 인물의 묘사와 연회의 장면이 크고 자세하게 묘사된 반면, 배경을 이룬 경관들은 화면의 한 부분에 국한될 만큼 축소되어 있다. 산수를 중심으로 한 16세기 계회도에 인물이 點景으로 그려진 경향과는 크게 대조를 이룰 만큼 변모된특징을 제시해준다. 이처럼 야외에서의 계회 장면에 인물을 비중 있게 묘사한 것은 당시 유행한 풍속화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들의 모습은 형식화되어 있지만, 기녀들의 모습은 이와 달리 자유롭게 그려졌다. 특히 가체나 치마저고리의 형태가 17세기 이전의 계회도에 등장하는 기녀들의 복식과 달라져 있음이 주목되며, 18세기 이후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여인상들과도 흡사해 보인다. 또한 선전 관청에 소속된 조라치들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계회 장소 주변에 서 있는 인물과 船上에서 吹打를 연주하는 조라치들은 도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18세기 관료층의 계회도는 대부분 첩형식에 간략히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더 다양한 사례를 살필 수 없음이 아쉽지만, 18세기 이후의 풍속화나 궁중기록화에서 더 다양한 측면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⁷⁾ 윤진영, 『조선시대 관료사회의 新參禮와 契會圖』, 135~164쪽, 『역사민속학』1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6



〈사진 7〉〈宣傳官廳契會圖〉부분, 1789年

2. 왕실 종친들의 계회도

왕실의 친족인 宗親들의 계회는 왕이 내린 賜宴이나 祝宴을 기념하고 종친들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고, 역시 계회도를 제작하여 기념하였다. 이러한 종친들이 마련한 계회와 계회도는 여러 기록을 통해 다수의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 16세기 작과 18세기 작 2점이 전하고 있다.

1) 종친계회도<사진 8>

종친들이 제작한 16세기의 계회도로는 최근 소개된 개인소장의 〈宗親契會圖〉(1577)가 주목된다.8) 1577년(선조 10) 2월 明宗의 妃인 仁順王后(1532~1575)의 稍廟를 마친 뒤, 宣祖가 河原君과 河陵君을 正一品에 올린 사실을 축하하여, 종친 30여명과 儀賓들이 마련한 연회를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전각 내부를 내려다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물을 강조하여 크게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君號를 각 인물의 옆에 써넣었다. 화면의 상태와 묘사 수준을 보

^{8) 〈}종친계회도〉는 『제92회 한국 근현대 및 고미술품 경매(도록)』((주)서울옥션, 2005), 도판 53에 소개되었다. 이 도록에는 제목이 '宮中契會圖'로 되어 있으나, 참석자들이 宗親의 신분이므로 필자는 이를 〈宗親契會圖》로 표기한다.

면, 인물의 표현이 성글고 筆線이 섬약하여, 18세기 이후에 원본을 移摹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종친들의 모습은 관모와 관복을 착용했지만, 매우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연회를 위한 자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하게 흩어져 앉은 모습이며,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20여명의 기녀들이 참여해 있어, 시중을 들거나 춤을 추는 자세를 통해 복식과 頸飾의 특징을 잘 예시해준다. 16세기의 다른 계회도에서는 매우 획일화된 한두 명의 기녀가 그려진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복식의 특징을 볼수 있다(사진 8-1). 기녀들 중에는 燕尾服처럼 상의의 뒷부분이 치마 아래까지 내려오는 황색의 옷을 대부분 착용하였지만, 이를 입지 않은 기녀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사진 8〉 〈宗親契會圖〉 부분, 1577년



〈사진 8-1〉〈宗親契會圖〉부분

2) 종친부사연도<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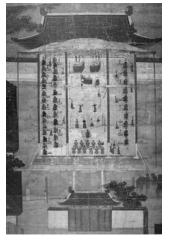
종친들의 계회도로 17세기에 제작된 예는 전하지 않고, 18세기 작인 〈宗親府賜宴圖〉가 남아 있다.9 1744년(영조 20) 9월 영조가 耆老所 入社를 기념한 崇政殿에서의 進宴을 마치고 종친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준 賜宴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종친부에서는 이 날의 진연을 기념하기 위해 계병과 簇子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족자에 그려진 것이다.10)

연회장면은 참석자들을 모두 그리기 위해 건물의 기둥을 높이 변형시켜 실내 공간을 넓

⁹⁾ 이성미, 「조선 인조~영조 년간의 궁중연향과 미술」, 122~128쪽 참조,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2003

¹⁰⁾ 박정혜, 81쪽 참조,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게 설정하였다. 엄격한 좌우대칭성과 함께 연회장면을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透視法을 적용하였다. 사연이 베풀어지는 종친부의 건물 내부는 御饌案과 酒卓을 중심으로 종친들이 좌우로 도열해 앉았다. 관료들은 다소 圖式化된 모습으로 그렸지만, 시녀와 수행원들의 모습은 획일적이지 않다. 술과 음식을 나르거나 춤을 추는 기녀들의 복식에는 17세기 이전의 도상에서 보이던 연미복 형식의 옷은 볼 수 없다. 특히 건물의 우측 하단에 있는 기녀들의 모습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단정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머리에 꽂은 꽃과 다양한 색상이 특징적이다(사진 9·1).



〈사진 9〉〈宗親府賜宴圖〉부분, 1744년



〈사진 9-1〉〈宗親府賜宴圖〉부분

3. 원로관료들의 계회도

원로관료들이 참석한 계회도는 $16\sim18$ 세기에 걸쳐 제작된 사례가 전하며, 대부분의 화면설정이 건물 내부에서의 인물묘사 위주로 되어 있어 복식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준다. $16\cdot17$ 세기의 耆英會圖는 耆老所에서 주관한 공식적인 耆英會를 기념한 것이고, 18세기는 王의 기로소 入社를 기념한 것과 私的으로 가진 기로회에서 제작한 사례를 볼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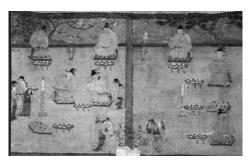
1) 16세기

16세기의 기영회도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耆英會圖〉(1584)와 서울대박물관 소장〈宣祖 朝耆英會圖〉(1585)에는 연회가 베풀어지는 장면의 묘사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

(1) 기영회도(사진 10)

1584년 작으로 연회가 열리는 건물이 중심을 이루고, 이외에 주변의 부수적인 건물들도 그려져 있다.¹¹⁾ 또한 기로들의 모습 및 樂師와 시녀들의 묘사에도 자연스러운 자태가 잘 나타나 있다. 반면에 1585년작 〈선조조기영회도〉는 연회의 장면에 더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인물의 묘사에는 형식화된 요소가 두드러져 있어 같은 시기에 병존한 두 경향의 화풍을 예시해 준다.¹²⁾

1584년 작 〈기영회도〉에는 7인의 원로관료들이 참여하였는데, 건물의 내부가 기로들의 연회공간과 시녀 및 악사들의 부속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물의 묘사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동세와 표정, 기물의 묘사 등에 세잔한 線描와 섬세한 채색이 가해져 있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은 풍속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장감을 잘 전달해 준다〈사진 10·1〉.



〈사진 10〉〈耆英會圖〉부분, 1584년



〈사진 10-1〉 〈耆英會圖〉 부분

건물의 전반부의 공간 좌측에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는 시녀들과 그 우측에는 춤을 추기

^{11) 1584}년작 〈耆英會圖〉에 대해서는 윤진영, 「조선시대 연회도의 유형과 회화적 특성」, 251~252쪽, 『조선시대 연회도』, 국립국악원, 2001 : 柳玉暻, 「1585年〈宣祖朝耆英會圖〉考察」, 29~57쪽 참조, 『東垣學術論文集』 제3집, 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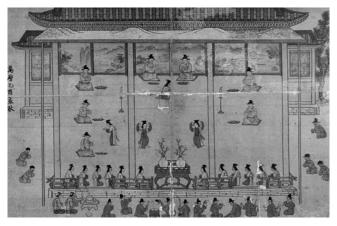
^{12) 〈}宣祖朝耆英會圖〉에 대해서는 安輝濬,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368~392쪽,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 出版社, 1988: 柳玉暻, 위의 論文, 29~57쪽 참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녀들이 등장한다. 시녀들의 머리 모습과 복식은 옷매무새나 색상의 특징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고, 또한 앞뒷면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 구체적인 특색을 살피기에 용이하다〈사진 10·1〉. 기녀들의 머리 장식과 옷의 구조 또한 마찬가지로 섬세하게 묘사되었는데, 시녀들의 머리장식과 서로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마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도중에 대화를 나누는 인물과 가마꾼들의 지루해 하는 모습은 매우 자연스럽고 사실적이어서 복식의 정확한 특징을 살피는데 도움을 준다.

(2) 선조조기영회도〈사진 11〉

1585년 작이며, 축형식과 品階에 따른 인물들의 위치 및 獨床을 놓고 있는 점이 1584년 작 〈기영회도〉와 유사하다. 다만 〈선조조기영회도〉는 건물의 구조가 약간 다르고, 연회가열리는 건물을 화면에 꽉 차게 그린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악사를 제외한 인물묘사에는 동일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그려진 형식화된 요소가 나타나 있다. 춤을 추는 기녀들의 묘사 또한 좌우대칭의 모습을 보여주며, 춤을 출 때 착용한 汗衫의 색상이 〈기영회도〉와 다르게 그려진 점도 한 특징이다.

이 2점의 기영회도는 약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賜宴과 賜樂으로 열린 공적인 기영회의 모습을 담아낸 그림이다. 특히 인물의 묘사에는 座次에 따른 좌석과 엄정하고 절도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致仕官僚나 고령의 관료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연회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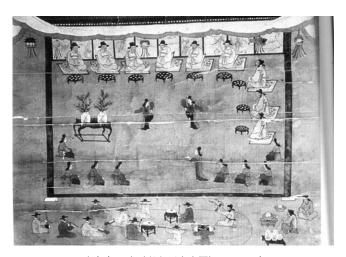
〈사진 11〉〈宣祖朝耆英會圖〉, 1585년

2) 17세기

(1) 기로소연회도〈사진 12〉

1621년 작이며 標題와 연회도, 그리고 讚文과 12인의 좌목이 기재되어 있다.¹³⁾ 그림에서 연회가 열리는 건물은 다른 배경이 개입될 수 없도록 화면에 크게 자리 잡았고, 등장 인물 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관료들의 좌석 배치는 관직과 품계를 기준으로 하였고, 인물표현은 다소 구체화된 감이 있지만 이목구비의 묘사와 옷 주름의 처리가 모두 단조로워 보인다.

기로들의 모습은 拱手한 자세로 간략하게 그린 상태이지만, 옆으로 뾰족하게 뻗쳐 나온 세모꼴 옷자락의 처리가 다른 그림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이다. 이러한 요소는 16세기 말엽에서 17세기 중엽에 걸쳐 제작된 功臣肖像畵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기에, 이 그림은 초상화를 많이 그려본 畵員 화가의 작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연회의 공간이 강조되고 시녀 등이 등장한 점은 16세기 기영회도의 형식을 계승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12〉 〈耆老所宴會圖〉, 1621년

화면 좌측의 아래쪽에는 술을 데우는 시녀가 그려져 있으나 전각 내부에 있는 기녀들과

¹³⁾ 윤진영, 앞의 論文, 253~254쪽 참조

¹⁴⁾ 趙善美 교수는 團領의 우측으로 뻗친 세모꼴의 옷자락에 대하여 團領을 들고 앉을 때 접쳐진 부분이라 하며, 16세기 말엽에서 17세기 중엽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였다. 趙善美, 190~220쪽, 『韓國肖像畵研 究』, 悅話堂, 1994

는 머리 모양과 옷의 특징이 다르다. 이러한 시녀들의 모습은 앞서 본 16세기의 기영회도에서도 볼 수 있는 동일한 특징이다. 악사들의 연주모습이 이전의 어느 연회도 보다도 활기차고 다양하게 그려졌다는 점 또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특색이다. 기로들의 모습에는 엄중한 묘사의 규칙성이 강조되었다면, 악사와 같은 부수적인 인물의 묘사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이 적용되었다.

(2) 기석설연지도〈사진 13〉

1621년 작 〈기로소연회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또 다른 한 점은 규장각 소장의 〈耆席設宴之圖〉이다〈사진 13〉.15〉이 그림은 화면의 절반 이상이 훼손되어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도상의 내용이 〈기로소연회도〉와 동일함이 확인되어, 1621년의 기로소 연회에서 함께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녀들의 머리 모양과 옷의 특징은 앞서본 16세기 〈기영회도〉의 도상과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로소연회도〉는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고, 흑백의 사진으로만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복식의 색상에 대해서는 〈기석설연지도〉를 참고하여 살필 수 있다.



〈사진 13〉 〈耆席設宴之圖〉, 1621년

3) 18세기

18세기의 관료들이 참여한 기로회도 가운데는 16세기처럼 기로소에서 베푼 기영회를 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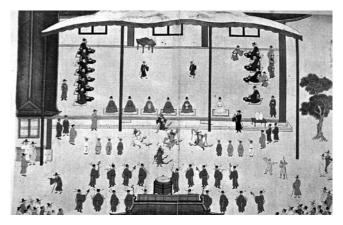
¹⁵⁾ 安輝濬,「奎章閣所藏 繪畫의 內容과 性格」, 329~333쪽 참조,『韓國文化』10輯,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 所, 1989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왕과 대신들이 참여한 ≪己巳契帖≫(1721)과 중·하급관료들이 참여한 〈梨園耆老會圖〉(1730)가 여기에서 살펴볼 자료이다.

(1) 기사계첩(사진 14)

1719년 숙종의 기로소 入社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영의정을 비롯한 11명이 耆老臣으로 참여하였다. 이 계첩에 수록된 그림은 행사도 5점과 초상화 10점인데, 행사도는 行列圖, 儀禮圖, 宴會圖 등의 성격을 지니며, 숙종의 기로소 입사와 관련된 주요 의례절차를 그린 것이다.16

《기사계첩》의 제 6면〈崇政殿進賀箋圖〉와 제7면〈景賢堂錫宴圖〉, 제9면〈耆社私宴圖〉는 궁중행사와 연회장면을 각각 그린 것으로 역시 관료들의 관복과 수행원들・악공・무동들의 모습을 자세히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관복의 경우는 품계에 따라 다른 색상과 문양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處容舞를 추는 무용수들의 복식도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기사계첩》은 기량이 뛰어난 화가들에 의해 제작된 것인 만큼 자세한 묘사에 나타난 복식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행사장면을 복원할 경우에 복식을 재현하는데 필수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제5면〈御帖奉安圖〉와 제8면〈奉盃歸社圖〉는 행렬의 장면을 그린 것으로 관료, 수행관원, 악공, 그리고 남녀노소의 구경꾼들의 모습이 작지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구경꾼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평민의 복식은 다양한 색상으로 묘사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사진 14〉 金振汝 外, ≪ 耆社契帖≫, 1719~17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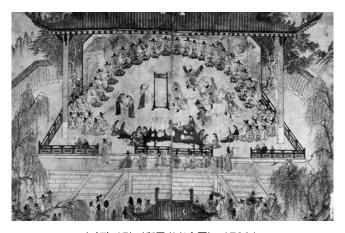
¹⁶⁾ 박정혜, 앞의 책, 168~249쪽 참조

(2) 이원기로계첩〈사진 15〉

≪기사계첩≫과 달리 사적으로 제작한 것으로는 1730년 작〈梨園耆老契帖〉이 전한다. 掌樂院에서 열린 기로회를 기념하여 1730년(영조 6)에 제작한 것으로 현재 첩형식인 규장각 소장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2점이 남아 있다.17 이 2점은 장황형식이 다르지만, 座目과序・跋文 및 詩文 등이 동일한 순서로 장황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65세에서 85세에 이르는 21명의 老人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5품에서 6품의 관직을 지낸 자들이었다. 원래 기로회는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내고 70세 이상인 자만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원기로회는 이 조건에 들지 못한 중견관원들의 기로회라는 점이 주목된다.

규장각 소장본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 관계로 정면 좌우대칭의 구도에 입각하여 건물을 크게 배치하였고, 연회의 장면을 강조하였다. 화면에서 좌정한 기로들의 소략한 인물묘사와 동일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그려진 정형화된 요소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연회의 장면에 묘사된 시녀들과 무용수들의 동세는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를 다소 상쇄시켜줄 만큼 활기 있게 그려져 연회의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켜 준다.



〈사진 15〉 〈梨園耆老會圖〉, 1730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이원기로회도)에는 규장각 소장본 보다 묘사의 정도가 더 자세하다(사진 15). 갓을 쓰고 정좌한 노인들의 의습이나 이목구비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완성도가 높다. 또한 기녀들의 모습은 치마와 저고리가 다소 간략하게 그려졌으며, 머리 모양도

¹⁷⁾ 國立中央博物館 所藏의〈梨園耆老會圖〉는『朝鮮時代 風俗畵』, 국립중앙박물관, 2002, 도 47에 수록되었다.

가체를 하지 않은 형태로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규장각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17세기 이전과 다른 특색으로 변모된 형식을 엿볼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는 연회장면이 확대되어 있다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는 기로 이외에도 자제들과 건물 아래의 구경꾼 등 훨씬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구경꾼들의 묘사를 보면, 어른과 아이를 함께 그렸으며, 대화를 나누며 바라보는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다.

즉 규장각 소장본 (이원기로계첩)은 1730년 당시에 그린 원본으로 추정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이보다 뒤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4. 지방 鄕班들의 계회도

지방 鄉班들의 계회를 기념하여 그린 계회도에도 중앙에서 제작된 계회도와 마찬가지로 계회의 주체인 향반과 수행관원 및 시녀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 방에서 제작된 계회도 도상의 복식 형태가 중앙에서 제작된 것과 어떤 다른 요소를 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례로는 16세기와 17세기 작이 각각 한 점씩 전한다.

1) 16세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私的인 계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계회도로는 16세기 중엽 작〈花山養老宴圖〉가 주목된다. 경북 안동의 관아에서 열린 養老宴을 기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소수의 관료와 향반, 시녀 등이 함께 등장해 있다〈사진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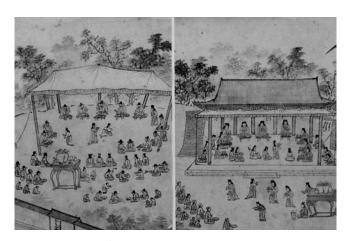
화산양로연도〈사진 16〉

안동부사 李賢輔(1467~1555)가 1519년(중종 14) 가을 자신의 부모와 안동부내의 80세 이상된 노인들을 관아로 초청하여 베푼 양로연을 기념하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다른 기록화 2점과 함께 이현보 宗家 소장의『愛日堂具慶帖』에 당대의 名儒 39인의 자필 祝詩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연회 장면은 內廳과 外廳으로 따로 마련하여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였다. 내·외청 모두 각상을 받은 노인들이 중앙에 둘러앉았으며, 그 주변에는 부모를 모시고 온 자제들의 자리

^{18) 〈}花山養老宴圖〉는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한국국학진흥원, 2002, 28~29쪽에 수록되어 있다.

도 마련하여 성대한 연회의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床을 받은 인물과 기녀들의 묘사는 구체적인 특징을 논하기에는 소략한 편이지만, 여성들의 복식은 구조와 색상의 특징을 비교적잘 나타내었다. 여기에 비해 남자들의 복식은 간략히 처리되어 있다. 특히 시중을 드는 기녀들의 복식과 머리 모양은 16세기의 일반 계회도에 그려진 모습과도 유사해 보인다. 安東府 관아에서의 연회이므로 시녀들은 관아에 소속된 관기로 추정되는데, 이 도상에 근거한다면, 기녀의 복식은 서울과 지방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16〉 〈花山養老宴圖〉, 1519년

2) 17세기

乙丑甲會圖〈사진 17〉 / 孝宗御題喜雨詩會圖〈사진 18〉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이며 17세기 후반기(1686년)의 同庚契會圖로 충북 淸州 지역의 향반 11명이 1660년(현종 1)에 甲會를 결성하고, 1686년(숙종 12)에 가졌던 계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지방에서 제작된 계회도로서 중앙에서 성립된 양식이 지방으로 전해지고 저변확대를 이룬 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사진 17〉.19 좌목에서 확인되듯이 李後稷 (1624~1698년) 등 7인과 하계 계원 2인을 합친 9인이 참여하였다. 좌목에는 上・下契로 명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하계는 平・賤民 신분의 동갑생들이다.

전각의 내부 공간에 7명의 계원들이 좌정해 있고, 그 아래에는 계원들의 자제 18명이 북쪽으로 향하여 一列로 앉아 있다. 전각의 좌우에도 하계 계원과 그 자제들이 대칭을 이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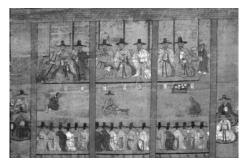
¹⁹⁾ 尹軫暎,「〈乙丑甲會圖〉研究」, 69~88쪽,『美術資料』69號, 國立中央博物館, 2003. 11

위치해 있고, 시중을 드는 시동과 거문고를 타는 인물도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도상에는 불교회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 특징적이다. 불화적인 요소는 첫째, 인물의 표현에서 겹쳐 그리기 식의 구성이 적용된 점을 들 수 있다(사진 17). 이는 동갑생 중에서도생년과 생일 순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여 앉은 것을 그린 것으로 고승영정에서처럼 첫 번째 인물부터 순서대로 겹쳐서 그리는 것을 座次를 구별짓는 방식으로 삼은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持物을 든 자유로운 자세로 표현된 계원들의 모습이다. 7인의 계원은 모두 갓을 쓰고 袍 차림으로 좌정한 가운데 여러 가지 持物을 들고 있는 편안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특징은 화승들이 제작한 고승영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또 다른 특징은 안면부의 채색선묘와 옷 주름의 묘사이다. 옷 주름의 처리를 보면, 소매의 자락을 넓게 그려 일반적인 사대부들의 袍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소매의 안쪽을 갈색조로 채색하여 안과 밖을 구분한 점이 그것이다. 이런 특징은 高僧眞影의 도상형식과 유사한 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불교회화적 요소는 이 그림의 화가가 승려화가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을축갑회에 대한 기록인 〈죽림갑계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淸州 菩薩寺의 畫僧 義仁이 그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인의 정확한 생몰년과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다른 예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보살사와 청주 인근에서 불화를 제작하며 활 동한 화승으로 추정된다.



〈사진 17〉 〈乙丑甲會圖〉 부분, 1686년



〈사진 18〉 〈孝宗御題喜雨詩會圖〉 부분. 1632년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을축갑회도〉가 화승 의인의 창작이 아니라 範本을 보고서 옮겨 그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홍익대박물관 소장의 〈孝宗御題喜雨詩會圖〉가 그 범본에 해 당하는 그림임을 확인 할 수 있다〈사진 18〉. 이 시회도는 1623년(효종 3) 6월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자 이를 기뻐한 孝宗이 당일의 입직관원들에게 御題詩를 짓게 한 일을 계기로 제작된 것이다. 孝宗이 시를 지은 관료들에게 차등 있게 상급을 내리자 여기에 참여한 관원들이 이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²⁰⁾

〈효종어제희우시회도〉는 당시 이 詩會에 참여한 입직 신하들에게 한 점씩 분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을축갑회의 구성원인 卞橚의 선친인 승지 卞時益이 포함되어 있었다. 卞時益과 卞橚이 父子관계라는 사실은 변숙이 부친 변시익의 소유인 〈효종어제희우시회도〉를 보았고, 이 그림을 보살사의 화승 의인에게 보여주어 그 도상대로 〈을축갑회도〉를 그리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화승 의인이 1686년작 〈을축갑회도〉를 그리면서 〈효종어제희우시회도〉에서 차용한 부분을 인물표현에서 살펴보면, 〈효종어제희우시회도〉의 우측상단에 술잔을 내어오는 내관은 〈을축 갑회도〉에서 시동으로 바뀌어져 있다〈사진 17〉. 또한 이러한 차용의 단서는 그 아래에 좌정 하여 술잔을 든 인물과 부채를 든 인물의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을축갑회도〉에서 부채를 든 인물의 묘사는 이 날의 甲會가 동짓달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을축갑회도〉는 〈효종어제희우시회도〉를 범본으로 삼았음을 구도와 건물의 구조, 그리고 인물의 세부적인 묘사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화승이 그린 〈을축갑회도〉에서의 향반들의 복식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중앙에서 제작되어 지방으로 전해진 계회도는 지방의 향반들에게 모방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방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이 두 그림이 잘 예증해 주고 있다.

Ⅳ. 後模本의 도상적 특징

계회도는 계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나누기 위해 여러 점을 제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를 받아 소유한 당사자나 그 후손들은 보관하던 계회도가 손상될 경우, 이를 다시 옮겨

^{20) 〈}孝宗御題喜雨詩會圖〉는 현재 홍익대박물관에 〈契會圖〉라는 제목으로 소장되어 있다(『서울학사료총서5·국 내대학도서관·박물관편』, 서울학연구소, 1994, 179쪽에 흑백도판으로 소개됨). 여기에 대해서는 윤진영, 『孝宗御題喜雨詩會圖』, 129~141쪽 참조, 『문헌과 해석』, 2003, 봄호

그렸는데 이것이 模寫本 혹은 後模本이다. 후모본은 模寫의 시기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후모본의 경우 그것을 모사한 당시의 화법과 복식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후모본에 나타난 도상의 특징에 대하여 3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中廟朝書筵官賜宴圖〈사진 19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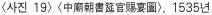
1535년(중종30)에 제작된 것으로 홍익대박물관 소장본을 비롯하여 고려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그리고 문화재연구소 소장본 등 5점의 후모본들이 전한다.21) 〈중묘조서연관사연도〉는 왕세자가 강학에서 『春秋』를 마치게 되자, 중종이 교육을 담당한 39명의 書筵官들에게 내려준 연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연회는 경복궁의 근정전 앞뜰에서 베풀어졌다. 遮日을 설치한 아래에 書筵官들이 관품에 따라 정연하게 좌정한 가운데 한 사람씩 御酒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무용과 음악이 연주되고 과음한 관원들이 연회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홍겨운 연회였음이 짐작된다.

이 가운데 다음에 살펴볼 홍익대박물관 소장본(사진 19)이 배경산수를 그린 화법으로 보아 당시에 그려진 원본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묘사된 기녀들의 복식은 16세기에 제작된 여러 계회도에서 볼 수 있는 복식의 특징과 유사하여 제작 시기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 18세기에 모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대박물관 본이나 19세기 모사본인 규장각 본 등에는 복식의 색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문화재연구소 소장본(사진 20)은 인물의 표현이 19세기 풍속화에 나타난 인물묘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기녀들의 수나 복식의 형태도 上·下衣가 홍익대소장본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있고, 악공도 1명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인물의 복식 묘사에도 명암법이들어가는 등 달라진 요소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모사작에는 모사가 이루어진 그 시기의화풍과 복식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²¹⁾ 홍익대박물관 소장 〈中廟朝書筵官賜宴圖〉에 대해서는 安輝濬, 「16世紀 朝鮮王朝의 繪畫와 短線點皴」, 21 7~239쪽, 『진단학보』 46·47호, 1979. 6: 朴廷蕙, 「朝鮮時代 의령남씨 가전화첩」, 23~49쪽, 『미술사연구』 2호, 미술사연구회, 1988







〈사진 20〉〈中廟朝書筵官賜宴圖〉, 19세기 (행사년도 15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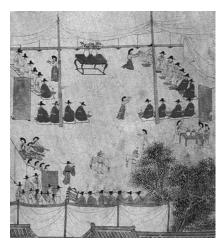
2. 諸宰慶壽宴圖〈사진 21 · 22〉

1605년(선조 38) 70세 이상의 老母를 모신 13인의 宰臣들이 노모를 위해 경수연을 열고, 그 장면을 재현하여 그린 것이다. 이 경수연은 이로부터 2년 전인 1603년 9월 첨지 李遽의 모친 蔡夫人(1504~1606년)의 100세 경수연이 계기가 되어 13인의 제신들이 奉老契를 맺고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²²⁾ 현재 홍익대박물관, 고려대박물관, 그리고 문화재연구소 소장본 등 3점이 전하고 있는데, 홍익대소장본은 1655년경에 다시 그린 후모본으로 판단된다.

다섯 장면의 경수연도는 각기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된 연회장면을 그린 것이 특징이다. 제 $1 \cdot 2$ 면은 연회가 열린 청사의 입구와 음식을 준비하는 造饌所 주변의 장면을 그렸으며, $3 \sim 5$ 면은 경수연이 진행되는 각 장면들을 표현하였다(사진 21). 즉 제3면은 이날 행사의 주관자인 계원들의 연회 장면이고, 4면은 집사자제들의 연회장면, 5면에는 경수연의 주인공인부인들의 연회장면 등으로 공간을 달리하여 각각의 연회가 베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점의 후모본이 전하고 있는데, 홍익대 소장본이 가장 앞 시기에 놓이며, 문화재연구 소 소장본은 홍익대 소장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사진 22), 복식의 형태에 변화가 있고, 陰影法이 적용된 점, 그리고 일률적으로 짙은 채색이 가해진 점등은 이 그림이 19세기에 모 사된 것임을 증명해주며, 역시 모사를 한 당시의 화법과 복식의 특색이 그려진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²²⁾ 윤진영, 「조선시대 연회도의 유형과 회화적 특성」, 259~262쪽, 『조선시대 연회도』, 국립국악원, 2001



〈사진 21〉 ≪諸宰慶壽宴圖≫, 1655년경



〈사진 22〉≪諸宰慶壽宴圖≫, 19세기

3. 南池耆老會圖(사진 23 · 24)

1629년(인조 7)에 있었던 南池에서의 기로회 장면을 그린 것이며, 원본과 후대의 모사본 8점이 전하고 있다. 서울대박물관 소장본에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인 '李起龍'의 이름이 적혀 있어 원작으로 짐작된다(사진 23). 화면의 하단에 남지를 그려 넣었고, 화면상단에는 건물 내부에 기로 12명이 坐定한 가운데 연회가 열리는 장면을 그렸다.

연회가 열리는 건물의 내부 공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쪽에 6명, 좌우에 3명씩 모두 12명이 앉아 있고, 건물의 왼쪽에는 동행한 자제 일부와 우측에는 시녀들이 주찬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물들은 拱手한 자세나 부채를 든 모습, 혹은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나 통일감을 지니면서도 선묘가 단아하고 옷 주름의 묘사가 비교적 구체성을 띠고 있다. 원본인 서울대박물관 소장본과 후모본들의 차이점은 건물을 그린 방법과 인물묘사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점의 후모본 가운데 복식묘사에 가장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본이다(사진 24). 원색적인 색채의 사용, 옷주름 표현에 이중윤곽의 선묘가 가해진 점등은 19세기 풍속화에서 나타난 복식 표현의 특징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19세기의 후모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모사를 한 시기에 해당하는 복식의 시대적 특성이 그림에 그대로 대입 되는 현상은 후모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특히 원본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와 특색은 더욱 뚜렷이 변별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23〉〈南池耆老會圖〉부분, 李起龍, 1629년



〈사진 24〉〈南池耆老會圖〉, 19세기 (행사연도 1629년)

V. 맺음말

이상에서 복식과 관련된 계회도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계회의 장소를 강조한 도상에는 인물묘사가 소략한 점이 있지만, 반면에 계회의 장면에 초점을 둔 도상에는 인물의 묘사가다소 자세하여 복식의 특징을 살피는데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인물묘사가 충실히 그려진 일부의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 표현의 여러 측면들을 소개하였다.

대부분 관료·수행관원·기녀·시녀 등이 그려진 연회장면이 중심이 되지만, 이러한 도상은 다른 일반 풍속화에서는 접할 수 없고, 계회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성인 점과 특히 조선조 前半期 복식의 양상들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전하는 유물이 엉성한 시기에 해당하는 도상들은 복식의 실물에 준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복식사 전공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고찰을 거친 계회도의 복식 도상은 회화사를 비롯한 인접 분야에 한 차원 더 검증된 시각자료와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목록

- 사진 1. 《十老契帖》 중 〈薛山玉〉, 1499년 추정, 帖, 紙本水墨, 19×21.5cm, 개인소장
- 사진 2. 〈十老圖像卷〉, 後模本(契會年度 1499년), 卷, 紙本彩色, 38.0×208.0cm, 湖巖美術館
- 사진 3. 〈戶曹郎官契會圖〉, 1550년경, 軸, 絹本水墨淡彩, 89.0×59.0cm, 國立中央博物館
- 사진 4. 〈喜慶樓榜會圖〉, 1567년, 軸, 絹本淡彩, 98.5×76.8㎝, 東國大博物館
- 사진 5. 〈壬午司馬榜會圖〉부분, 1630년, 帖, 絹本淡彩, 42.5×56.0cm, 개인소장
- 사진 5-1.〈壬午司馬榜會圖〉부분
- 사진 6. 《四老宴會圖屛》부분, 1689年, 8幅屛風, 絹本彩色, 199.0×485.0cm, 개인소장
- 사진 6-1.≪四老宴會圖屛≫ 부분
- 사진 7. 〈官傳官廳契會圖〉부분, 1789年, 軸, 紙本彩色, 115.0×74.3cm, 서울大博物館
- 사진 8. 〈宗親契會圖〉부분, 1577년, 軸, 紙本彩色, 106.0×71.3cm 개인소장
- 사진 8-1.〈宗親契會圖〉부분
- 사진 9. 〈宗親府賜宴圖〉부분, 1744년, 絹本彩色, 134.5×64.0cm 서울大博物館
- 사진 9-1.〈宗親府賜宴圖〉부분
- 사진 10. 〈耆英會圖〉부분, 1584년, 軸, 絹本彩色, 163.0×128.5cm, 國立中央博物館
- 사진 10-1.〈耆英會圖〉부분
- 사진 11. 〈宣祖朝耆英會圖〉, 1585년, 帖, 紙本彩色, 40.4×59.2cm, 서울大博物館
- 사진 12. 〈耆老所宴會圖〉, 1621년, 軸, 絹本彩色, 國史編纂委員會 사진자료
- 사진 13. 〈耆席設宴之圖〉, 1621년, 軸, 絹本彩色, 87.6×52.7cm, 奎章閣
- 사진 14. 金振汝 外, 《耆社契帖》, 1719~1720년, 第3面〈耆社賜宴圖〉
- 사진 15. 〈梨園耆老會圖〉, 1730年, 卷, 紙本淡彩, 34.0×48.5cm, 國立中央博物館
- 사진 16. 〈花山養老宴圖〉, 1519년, 帖, 絹本彩色, 36.9×29.7cm, 개인소장
- 사진 17. 〈乙丑甲會圖〉부분, 1686년, 軸, 絹本彩色, 136.5×71.2cm, 서울歷史博物館
- 사진 18. 〈孝宗御題喜雨詩會圖〉 부분, 1632년, 軸, 紙本淡彩, 122.0×57.0cm, 弘益大博物館
- 사진 19. 〈中廟朝書筵官賜宴圖〉, 1535년, 帖, 紙本彩色, 42.7×57.5cm, 弘益大博物館
- 사진 20. 〈中廟朝書筵官賜宴圖〉, 19세기(행사년도 1535년), 帖, 紙本彩色, 48.2×33.3cm, 文化財研 究所

- 사진 21. ≪諸宰慶壽宴圖≫, 1655년경, 紙本彩色, 40.0×28.0cm, 홍익대박물관
- 사진 22. ≪諸宰慶壽宴圖≫, 19세기 模寫, 紙本彩色, 30.0×48.2cm, 홍익대박물관
- 사진 23. 〈南池耆老會圖〉 부분, 李起龍, 1629년, 軸, 絹本彩色, 116.7×72.4cm, 서울大博物館
- 사진 24. 〈南池耆老會圖〉, 19세기(행사연도 1629년), 軸, 絹本彩色, 112.0×68.0cm, 國立中央圖書館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大虎, 1541~1624년) 유물

고 부 자(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Ⅱ. 인적사항
- Ⅲ. 유물입수 및 정리과정
- Ⅳ. 유물의 종류와 특징
- V. 유물개별 특징
- VI. 맺 음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大虎, 1541~1624년) 유물

Ⅰ. 머리말

본 유물은 2001년 11월 10일 河陰公(大虎. 1541~1624년, 草堂公의 4世孫)의 墓에서 출토된 것이다. 묘는 京畿道 坡州市 交河邑 東牌里 山 12~1번지 晋州姜氏 초당공파 墓域에 있었으며, 아파트부지로 선정되어 移葬하게 되었다. 墓主의 관직은 蔭職으로 주로 外職을 지냈고 從二品까지 올랐으며, 효행이 지극하여 孝子로 旌閭되었다.

유물은 이장을 마친 다음에 전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수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었으나, 형태는 대부분 확인될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殮을 한 方法 및 수의나 보 공품에 대한 확실한 단정은 어렵다.

정리결과 壽衣 強襲具 補空品類로 나뉘며, 약30여 점이 되었다. 유물들은 조선시대 服飾 변화가 달라지는 前期樣式에서 中期로 넘어가는 분수령인 壬辰倭亂과 仁祖反正 등 어수선한 시기를 거치는 과도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철릭이 8점으로 가장 많은데 바느질이나 모양이 각기 다르며, 답호나 團領 및 直領袍類(道袍?)가 주목된다. 따라서 이 시기 옷의 크기와 모양 및 바느질이 변하는 과정을 주시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인적사항

기록¹⁾에 의하면 大虎의 字는 虎變, 호는 河陰, 본관은 晋州이다. 中宗 36년(1541)에 태어나 仁祖 2년(1624)에 죽었다. 晋州 姜氏 始祖인 元師公 民瞻의 17世孫이며, 草堂公派로는 14世孫 에서 분리된다.

系譜를 보면 贈職 東曹參判 景敍(草堂公. 1443~1510년)의 曾孫이고, 형조판서에 증직된 公望(判書公. 1488~1548년)의 손자이며, 강원도 관찰사 昱(監司公. 1511~1573년)의 아들이다.

蔭職으로 등용되어 여러 관직을 거치고 宣祖 30년(1597) 평양 府尹(從二品)이 되었는데(庶尹으로 기록되기도 함) 이때 유망민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송사를 잘 해결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칭송이 자자하자 평양에 사는 部將 全裕復 등이 교체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선조 36년(1603) 원주목사(正三品)로 임명되었고, 이듬해는 상주목사, 선조 38년(1605)에는 林川郡守(종4품)를 거치는 등 주로 外職을 겸하였다. 선조 39년(1606)에는 차사원이 되며, 光海君 2년(1610) 掌隷院(刑曹)判決事(종2품)에 이르렀다.

Ⅲ. 유물입수 및 정리과정

1. 출토 당시 상황

2001년 11월10일 12시40분 윤훈덕(파평윤씨 산판유사, 정정공파. 파주시 교화읍)씨의 전화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에는 이장작업이 모두 끝나서 封墳의 형태는 하나도남아 있지 않았고, 부르도져로 흙을 고르는 마지막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부르도져 기사와 초당공파 중앙종회 姜鎬範 회장님만 계셨다(사진 3). 묘역에는 棺의 널판들과, 大虎(이하 "하음공"이라 한다)의 유물이 몇 개 널려있거나 무더기로 있는 것도 있었다. 또한 石物은 이

^{1)『}宣祖實錄』、『光海君日記』、『仁祖實錄』、『韓國系行譜』、『晋陽姜氏(草堂公 諱 景叙) 世譜』上 1991, 경기도 『京畿人物誌』上 1991

미 운반된 것 외에 아래쪽에 비석 2개와, 長明燈 1개, 좌우에 文武官石, 양쪽에 望柱石이 있었다. 남은 것도 새 이장지로 옮겨 갈 것이라고 하였다(사진 4).

移葬 이전 묘역의 상황은 移葬작업에 참여했던 당시 宗中 부회장인 姜弼榮씨(草堂公 傍孫 11世孫)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移葬 하기 전 河陰公 墓



〈사진 2〉移葬 하기 전 草堂公派 墓域

封墳은 破墓 전에는 낮은 구릉으로부터 위까지 10°경사로 올라가면서 三代의 墓 여섯기가 삼단으로 나뉘어 雙墳으로 배치되어있었는데, 越葬 형태였다〈사진 2〉. 제일 위에 본 유물의 주인공이며 이 묘역에서 제일 후손인 하음공 내외, 아래로 부모 내외(父 監司公 昱, 母 貞夫人 廣州 李氏)〈사진 1〉, 제일 아래 조부모 내외(祖父 判書公 公望, 祖母 慶州崔氏)의 묘가 있었다. 봉분의 흙을 걷어내니 콩크리트 같이 단단하고 두꺼운 石棺(강회담)이 있고, 안에 木棺이 있었는데 單棺었다. 관과 석관은 포크레인으로 깼다. 여섯 분 중에 하음공과 모친 廣州 李氏는 殮을 한 그대로 미라로 있었다.

하음공의 옷은 성해서 모두 벗겼다. 하음 공은 수염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길어서 얼 굴을 가리었으며, 머리카락은 반백이었다. 옷 에 허리띠를 매었는데 눈에 띠여서 마땅한 곳 에 기증하려고 꺼냈다. 집에 가서 물에 2일 동안 담갔다가 빨았는데 물 안에서 빤짝빤짝 한 것이 보였다. 廣州 李氏는 63세에 돌아가 셨는데 얼굴이 고왔고, 옷은 많이 상해서 시



〈사진 3〉移葬 후 草堂公派 墓域

신만 옮기고 파묻었다. 殮은 두분 다 12매로 2번했다.

2. 유물 입수 과정

1) 기증 건

宗中에서는 이번에 발표하는 유물 외에 다른 유물들도 기증하여 주었으며 날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는 2001년 11월10일 晋州 姜氏 묘역에서 출토된 하음공의 유물로 본 발표 자료이다〈사 전 5〉.

2차는 다음날 하음공의 모친 광주 이씨 묘 속에 파묻었던 것을 다시 수습한 것이다〈사 진 6〉.

3차는 2002년 7월12일 姜弼榮씨(종중 부회장, 초당공 傍孫 11世孫)가 내방하여 廣多繪 1점을 인수받았다(사진 7).

4차는 2002년 12월6일 문중사무실인 景慕齋에 보관하였던 유물이다. 直提學(義虎) 묘에서 수습한 복식 유물을 총무 姜昌求씨로 부터 인수받았다. 이 유물들은 총무가 1차 이장을 마친 묘역을 2002년 다시 재정비 할 때 수습된 것들이다.

2) 입수 당시 유물상황

(1) 하음공 유물

처음 인수받았을 때 모양이 파악되는 것은 저고리 답호 개당고 단령 철릭 방령 직령 액주음 저고리와 명목 악수 등 16점이었다. 이외에 소매 일부 및 찢겨진 피륙조각이다.

(2) 광주이씨 유물

정리한 결과 매우 불량하였으며, 모양만 겨우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이고 옷 전체의 치수를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이다. 모양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몇 점되지 않지만 부분을 추적하면 유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또한 남은 조각들을 통하여 피륙l織物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3) 하음공 廣多繪

광다회는 1점으로 길이297cm, 너비1.8cm이며, 緗色으로 변하였다. 수의에 매었던 것이라 한다. 상태가 좋은 편이다.

(4) 直提學公 유물

직재학공은 大虎의 사촌으로 義虎(字 文叔. 1541~1587년)이며, 暹字 明仲, 松月堂. 1516~1594년)의 아들이다. 묘역은 부친 송월당과 같은 장소(파주시 교화읍 다율리 산 12)였는데 1차 이장때 놓친 것을 일년 뒤에 수습하였으며, 문중에서 수거 후 옷은 흐르는 물에서 빨았다고 한다.

두 건을 인수받았는데 정리한 결과 직제학공 유물 외에 하음공의 단령 앞섶과 철릭소매와 여자 옷도 섞여 있었다. 유물이 섞여있는 것은 총무에 의하면 1년 뒤 묘역을 재점검할때 나온 것들을 같이 모아 두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때 놋주발, 지석, 명기 등 판서공과 직제학공의 묘에서 수습된 자료 7건도 확인하였다.



〈사진 4〉草堂公派 墓域 이장 후 현장



〈사진 5〉河陰公 유물수거



〈사진 6〉廣州李氏 유물수거



〈사진 7〉 3차 유물인수 종중 총무 姜昌求씨

3. 유물정리

1) 정리일지

(1) 하음공 유물 수습

2001년 11월10일 현장에서 대학원생 박경자 황정현 최규순과,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조교 박승원이 참여하였다(사진 5).

(2) 하음공의 모친 광주 이씨 유물 수습

2001년 11월11일 현장에서 대학원생 김주영 김민정 금종숙과,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조교 박승원이 참여하였다(사진 6).

(3) 유물정리(1차)

2001년 11월11일~13일 3일간 기초점검을 하고 水洗하였다.

참가자는 대학원생 박경자 최규순 김민정 금종숙 김주영 최진경 황정현과, 사회교육원 전 통복식과정 조교 박승원이다.

(4) 유물정리(2차)

2004년 8~12월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학생이 대학원수업과정(복식유물보수)때 유물일부를 물세탁하고 구김퍼기(손다듬기) 및 보수하였다.

(5) 유물정리(3차)

본 박물관 개관 24주년기념행사 준비로 재확인 점검 작업을 2005년 2월 11일~2월말까지하였다. 참가자는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조교 김주영과, 대학원생 김은정이다.

(6) 본 박물관 개관 24주년기념행사 준비

2005년 1월~4월말까지 원고준비 (총괄 고부자, 바느질부분 박물관 조교 금종숙, 피륙 및 무늬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조교 김주영과 대학원생 김은정) 및 사진 촬영, 유물실측, 圖 式작업 등을 하였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학생(11명)들이 한국의복구성 수업시간에 유물 중 일부 정리와, 袍類 2건씩 복제하였다.

2) 기초 검점

수습 후 1차로 유물을 분류하고 오물의 종류 및 옷감, 色, 파손상태 등에 따라 나누었다. 분리 과정에서 오물이 묻은 부분이나 상태와 접힘 등을 참조하여 수의와 염하였던 것, 보공 용이 대충 구분되었다. 수의 외에 보공용에는 옷 형태가 온전하게 있는 것과, 소매나 옷의 부분을 찢어서 사용한 것도 있다. 온전한 것은 대부분 접거나 퍼서 염한 다음 시신을 덧 싸고, 소매나 부분을 찢은 것은 돌돌 말아서 棺의 모서리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된 작은 무더기 중 하나에는 염포[大斂衾]가 있었는데 그 안에 신체의 부위마다 사용했던 유물들이 남아있었다(사진 8). 이중에 壽衣로 확인된 袍類가 겉에서부터 단령 → 철릭 → 액주음 순으로 세 벌이 한 틀로 있었다(사진 9, 10, 11). 이것은 이장과 수습 때 이미 섞이었거나, 자리가 흐트러진 것도 있지만 그런 대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시한다.



〈사진 8〉 대렴금에 쌓인 유물 무더기



〈사진 9〉 袍類 무더기



〈사진 10〉 철릭



〈사진 11〉액주음

(1) 머리와 어깨부분

머리부분에는 얼굴을 가리는 瞑目이 있었다. 머리맡과 목 뒤쪽에는 겹 명주로 만든 철릭소매 두 장이 펼쳐 있었는데 이는 머리를 싸고 목 받힘으로 쓰였던 것으로 본다. 머리맡에는 蓮花紋紗 답호와, 雲紋緞 홑철릭, 명주로 된 겹 腋注音袍가 접혀진 상태로 있었고, 方領은 접힌 채로 말려 있었다.

(2) 옆구리 쪽

단령과 답호가 펼쳐있었다.

(3) 허리 아래

겹철릭과, 雲紋緞으로 만든 홑 답호가 있었다.

오른쪽 옆 허리에 花紋緞 團領과, 철릭, 겹액주음, 삼회장겹저고리가 겹쳐 있었다.

(4) 발아래

운문단 철릭과 찢긴 철릭의 裳 일부가 있었다.

(5) 地褥 위

紗團領의 소매한쪽이 접혀있었으며, 누빈 開襠袴와 무명 홑 단속곳이 있었다.

(6) 지요 바닥

삼베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염베의 일부로 장(丈)베와 단베이다.

3) 1차 정리

(1) 오물 점검

홁이나 기타 털어 낼 수 있는 것, 습식세탁 할 것, 약품처리 할 것 등으로 분류시켰다. 홁 등 털어 낼 수 있는 것은 털어 내었다.

(2) 水洗

본 유물에서 약품처리는 하지 않았다.

洗劑는 中性이며, 연질고체로 하였다. 유물을 각기 개별로 분리시키어 그릇에 넣고 세제에 담갔다. 세제는 더운물에 풀고 용기에 유물을 담아 洗液을 골고루 흡수시킨 후 30~1시간 정도 두었다. 중간에 점검하면서 손을 보았다. 오물은 유물상황에 따라 손으로 뒤적이거

나 주무르면서 처리하고, 솜이 들었거나 상하기 쉬운 것은 편편한 틀 위 網에 펴놓은 다음 계속 물을 흘려 내리면서 수세했다.

(3) 건 조

말리기는 건조대 틀에 얹어 직사광선에서 말렸다. 상하기 쉬운 것은 망사에 얹어 말렸다.

4) 2차 정리

(1) 맞추기

수습과정에서 분리되어 따로 떨어진 것들을 찾아 짝을 맞추었다.

(2) 구김살 펴기

보수하기 전에 솔기를 바로 잡고 구김살을 폈다. 구김살 퍼기는 바느질방법이나 홑, 겹, 솜, 풀솜이 들어 있는 것에 따라 달리했다. 솜이 들어 있는 것은 특히 물세탁 과정에서 원형이 흐트러지는 일이 많다. 솜이 뭉친 부분은 고르게 펴고, 없어져 나간 부분은 남아있는 것을 참조하여 손질했다.

물은 증류수로 하며, 물뿌리개에 담아서 사용하였다. 구김은 모양을 바로 놓고 손바닥으로 폈다.

5) 3차 정리

(1) 파손 상황 점검

파괴된 부분을 찾아내고 상황을 판단하였다.

솔기의 바느질이 터져 나간 것, 솔기와 부분이 찢긴 것, 길 또는 소매나 기타 부분이 아주 없어져 버린 것, 옷고름 동정 등 부속물이 떨어져 나간 것 등을 분류시켰다.

(2) 보수 자료 준비

옷감, 실 및 바느질 도구를 준비했다.

실이나 옷감은 유물과 같거나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였다.

(3) 보수

유물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면서 원형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없어졌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시대나 상황이 비슷한 것에서 추론하였다. 특히 본 유물에서 는 바느질기법이나 크기 등이 처음 원형에서 변형시킨 부분이 많아서 매우 주의를 요했다. 예를 들면 명목이나 악수의 끈은 『四禮便覽』등 문헌이나 다른 출토유물에 보면 모두 네 개씩 달리는 있는 것이 원칙인데 본 유물에는 두 개씩 뿐이었으며, 바느질 흔적도 없다. 다행히 악수는 같은 시기 漢城 判尹을 지낸 趙儆(1541~1609년)의 유물에서 끈이 두 개 달린 것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양쪽 가운데에 달았다. 명목도 끈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위에 하나씩 달아 놓았는데 근거가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끈이 네 개인 것이 공동이므로 일단 양쪽 가장자리에 끝에 하나씩 달아 두었다.

또한 매우 난관이었던 것은 옆선에 처리되는 무 부분이었다. 무의 앞과 뒤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가 하면, 뒤로 젖히는 부분도 치수나 각도가 불규칙하였다. 이와 같은 바느질법이나모양은 지금까지의 자료들과는 다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부분마다 기본 바느질 선에서이동하여 바느질을 새로 한 것들이 많았다. 이런 현상은 河陰公이 84세까지 사는 동안에 모양이 변하는 추이에 따르기 위한 즉, 당시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에서였다고 판단한다.

Ⅳ. 유물의 종류와 특징

정리 결과 유물은 총 20건 37점이 되었다. 袍類가 22점으로 가장 많은데 團領3, 直領1, 답호3, 帖裏8, 直領袍類(道袍?), 腋注音 5점이다.

그 외에 方領과 廣多繪 각 1, 겹저고리와 단속곳 각 2, 기타 殮襲具類로 大斂衾 地褥 暝目 幄手 五囊 베개가 등이 있다.

각 개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團領 ①

수의이며, 겹옷이다. 옷감이나 무늬, 부분처리 등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하다. 옷감은 緞과 紗와 紬(明紬)가 쓰였으며, 옷고름은 가늘고(1.5㎝) 짧은데(36.5㎝) 크기나 옷감이 고르지 않다. 분류 작업 때 속에 액주음 직령 철릭과 함께 제일 겉에 끼워져 있었으며, 이장 때 유골을 모시는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었다.

겉은 깃이 둥근 團領으로 짙은 藍色의 紋緞인데 옷의 뒷부분과 더러는 網色으로 변하였다. 무늬는 滿開한 큰 實相花(모란만초문)와 함께 작은 꽃과 잎들이 넝쿨처럼 연결되어 있다. 어깨 안쪽에 댄 어깨바대와 겉고름은 雲寶紋紗로 하였다. 옷고름은 갈색이다. 소매는 진동보다 袖口쪽으로 완만하게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수구 쪽이 넓은 소매 배래선은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의 진동에서 나란히 나가다가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모양과는 다른 양식이다. 또한 이런 양식은 본 유물에서 다른 袍와도 또 다른 것으로 이는 소매의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첫 예라고 할 수 있다. 무도 이제까지는 겨드랑이 아래서 곧은 선으로 길게 뻗어 나가던 것에서, 겨드랑이 밑에 맞게 앞뒤를 맞춰 끝 위쪽은 뒤로 젖히고, 아래 밑단 쪽은 펴져 나가게 하여 어스러진 모양(斜線)을 내고 있다. 무의 머리끝 은 접혀있고 안에는 28×26㎝의 紬를 넣었는데 이는 힘받침용의 심거리이다. 이 심거리는 안옷과, 동정 겨드랑이바대 및 뒷 무의 안에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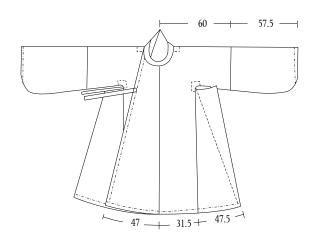
안은 半袖인데 袖口 단의 끝은 식서를 바느질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 또한 수구부분에는 겉의 단령에서 소매배래가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것에 맞추어 넓어지고 있는데 이 넓어지는 부분만큼 덧대었다. 깃머리는 모판 깃에서 모서리를 굴린 형이며, 깃머리에는 옷고름 대신 1.5cm 길이의 고리가 달여 있다. 옷감은 겉과 다른 紋緞이며 網色이다. 무늬는 활짝 핀[滿開] 보상화를 가운데 두고 잎과 넝쿨이 어루어져 연속으로 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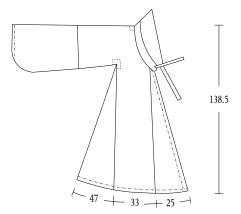
바느질은 겉과 안 모두 정교한 편은 아니다. 또한 조선 전기 옷처럼 완전히 겉과 안이 분리된 형태도 아니고, 후기처럼 두 가지가 같이 꿰매어 있지도 않다. 그렇다고 중기에 나타나는 것과 안옷의 연결을 섶이나 단에서 징그지도 않았으며, 단지 무 쪽에서만 징궈 주고있다. 속옷은 본 유물에서 보이는 다른 답호와 비슷하다. 그러나 겉옷 단령의 부분바느질이나, 속옷에서 깃이나 고름걸개고리, 이외에 무를 접는 것 등에서 많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에 받힌 옷은 깃머리에 고름걸개를 단것이나. 바느질, 모양 등으로 보아 이미 다른 겉옷으로 입던 것을 개조하여 속옷으로 다시 쓰인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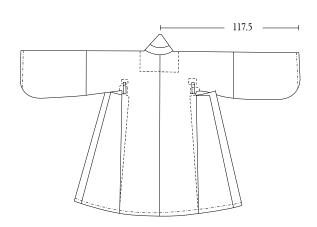












	부분	치수
1	길이	138.5
2	뒤품	60
3	화장	117.5
4	고대	21
5	진동	34.5
6	소매길이	87.5
7	소매통	37.5
8	수구	20.5
9	겉섶너비(上)	19
10	겉섶너비(下)	47
11	안섶너비(上)	1
12	안섶너비(下)	22.5
13	겉섶길이(內)	120
14	겉섶길이(外)	131
15	안섶길이(內)	96.5
16	안섶길이(外)	96.5
17	깃길이	122
18	깃너비	5
19	무너비(上)	16.5/14
20	무너비(下)	47.5/22.5
21	무길이(內)	100
22	무길이(外)	102.5
23	동정길이	
24	동정나비	
25	동정위치(겉깃끝)	
26	동정위치(안깃끝)	
27	겉고름길이/너비	36.5/1.5
28	속고름길이/너비	25.5/1.5
29	겨드랑이 밑	2
30	어깨바대	27.5/40
31	겨드랑이바대	9×6.5
32	매듭단추	0
33	고리	2×15.5
34	고리바대	3.5×3

*무너비 : 접어서 측정한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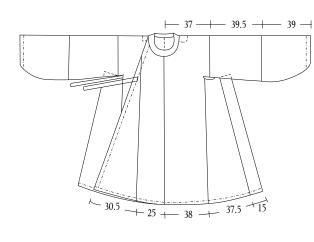
2. 단령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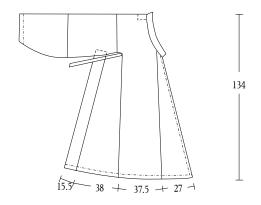
매우 가는 熟網로 만든 홑옷이며, 바느질도 정교하다. 이장 때 많이 손상되었으며, 겉섶 등 일부는 1년 뒤 2차 작업 때 재수습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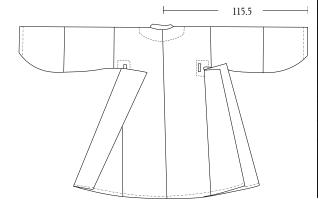
소매의 배래 모양은 앞①번 단령과는 달리 진동에서 중심으로 조금 넓어지고 수구까지 거의 곧게 나가다가 수구 쪽으로는 다시 좁아지고 있다. 이는 조금 시기가 지나 중기에 들 면 소매통이 넓어지고 배래선이 완만하게 뻗다가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절구통 모양이 확실 하게 나타나는데,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부분	치수
1	<u> </u>	134
	 무품	63
3	 취장	
		115.5
4	고대 진동	19 32.5
5		
6	소매길이	78.5
7	소매통	37
8	수구	18.5
9	겉섶너비(上)	19.5
10	겉섶너비(下)	55.5
11	안섶너비(上)	1
12	안섶너비(下)	27
13	겉섶길이(內)	117
14	겉섶길이(外)	136.5
15	안섶길이(內)	99
16	안섶길이(外)	96.5
17	깃길이	109
18	깃너비	3
19	무너비(上)	44/28
20	무너비(下)	52.5/34.5
21	무길이(內)	95.5
22	무길이(外)	101
23	동정길이	•
24	동정나비	•
25	동정위치(겉깃끝)	•
26	동정위치(안깃끝)	•
27	겉고름길이/너비	39/2.5(3) 42.5/1.5(2.5)
28	속고름길이/너비	•
29	겨드랑이 밑	2
30	어깨바대	20×34
31	겨드랑이바대	7.5×14
32	매듭단추	0
33	고리	1×15
34	고리바대	×

*무너비:펼쳐서 측정한 치수

3. 단령 ③

매우 고운 熟網로 만든 홑옷이다. 색은 상색과 녹색으로 얼룩이 섞여 있는데 녹색을 띄는 것은 남색(쪽염) 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스며 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바느질은 온박음, 옛쌈솔, 감침, 말아감침법으로 하였는데 재올(실)을 뽑아 사용하였으므로 겉과 안과 솔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다. 특히 식서와 식서의 솔기 이음은 매우 고운 감침으로 하여 육안으로는 겉과 안의 구별이나 바느질을 판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단추는 쌍밀이로 하였는데 머리가 0.5㎝정도로 작다.

겉섶과 안섶의 안단은 곧은 선[直線]으로 덧단을 대었다. 어깨 안에 댄 바대는 39cm 폭으로 양쪽은 식서이며 트여있다. 깃의 邊은 속에 심을 넣었는지 도톰한데, 심거리는 솜인 것같다. 고름은 말아 감치고 끝은 풀었다. 겨드랑이 바대는 곧은 선으로 겉에서 온박음하였다. 겉섶은 이중이며, 무는 옆으로 곧게 뻗어 나갔는데 앞이 뒤보다 넓이가 넓고, 길이도 겨드랑이 위로 길다. 따라서 안쪽무가 뒤보다 좁다. 무의 앞과 뒤 부분은 위쪽으로 접힌 자국이 있는데 흔적으로 보아 한 번 접었다.

소매모양은 앞의 단령과 같다. 뒤 품 진동아래 쪽에 고리를 달았는데 이는 각대를 걸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며, 이 각대고리도 이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이다.







*무너비:펼쳐서 측정한 치수

4. 직 령

뒷부분이 상색으로 변한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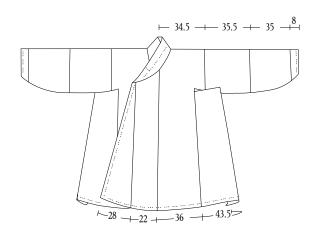
겉은 吐紬이고 안은 紬로 만든 겹옷으로 겉은 남색이고, 안은 상색이다. 이장 때 유골을 모시는 과정에서 파손이 매우 심했으나 모양은 완벽하게 남아있다. 동정과 고름은 없어졌으 나 흔적에 의해 가능하다. 옷고름은 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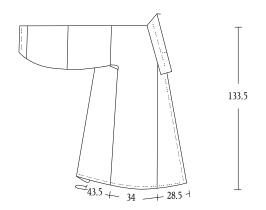
옷의 구조는 앞 ③번 단령과는 깃만 다를 뿐 비슷하다. 겉섶은 이중이며, 무는 옆으로 곧게 뻗어 나갔는데 앞이 뒤보다 넓이가 넓고, 길이도 겨드랑이 위로 길다. 무의 앞과 뒤 부분은 위쪽으로 접힌 자국이 있는데 흔적으로 보아 한 번 접었다. 따라서 안쪽무가 뒤보다좁으며 앞 뒤 두 무를 모아 위 끝을 세모 모양이 되게 접고 뒤로 젖히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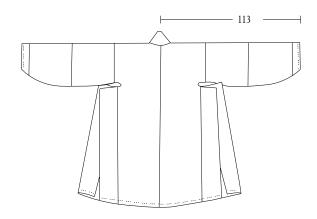
겨드랑이에는 겉 바대를 대었는데 겉으로 온박음하였다.











	부분	치수
1	길이	133.5
2	뒤품	62
3	화장	113
4	고대	19
5	진동	33
6	소매길이	82
7	소매통	36.5
8	수구	23
9	겉섶너비(上)	25.5
10	겉섶너비(下)	50
11	안섶너비(上)	6
12	안섶너비(下)	28.5
13	겉섶길이(內)	117
14	겉섶길이(外)	97.5
15	안섶길이(內)	93
16	안섶길이(外)	92
17	깃길이	103.5
18	깃너비	11
19	무너비(上)	38.5/30
20	무너비(下)	43.5/30
21	무길이(內)	96.5
22	무길이(外)	96
23	동정길이	67
24	동정나비	7.5
25	동정위치(겉깃끝)	20.5
26	동정위치(안깃끝)	16
27	겉고름길이/너비	• /2.5
28	속고름길이/너비	흔적
29	당아래	2
30	어깨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4×3.5
32	당	2
33	누비간격	×
34	옆트임	

*무너비:펼쳐서 측정한 치수

5. 답호 ①

雲寶紋緞의 홑옷이며, 상색이다. 수습 당시 세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바느질은 조잡하면서, 구조는 복잡하다.

깃은 겉깃은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안은 이중 깃이며, 깃머리는 네모로 角이 지고 깃 코는 모판깃에서 바로 중기에 나타나는 당코형 깃의 초기 양식을 보이고 있다.

옷고름이나 동정은 없다. 안 섶에는 섶이 달릴 부분에 섶은 없고 길만 있는데, 길 끝이 식서이므로 바느질이 하지 않고 접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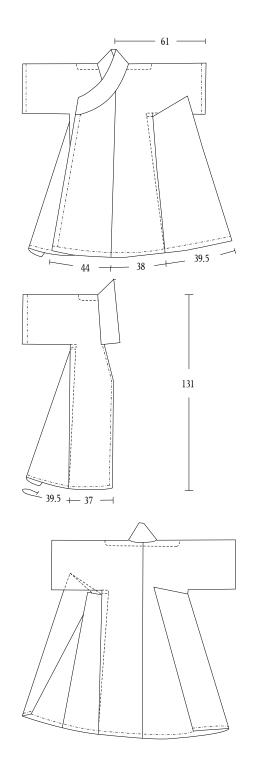
무는 단령이나 직령처럼 너비와 길이에서 앞 뒤 차이가 있다. 귀 끝은 세모형으로 접어 겨드랑이 뒤로 넘겼으며, 옆선은 품보다 밑단 쪽이 퍼지는 조선후기 단령 모양이다.

바느질은 온박음, 홈질, 감침, 배래는 쌈솔, 도련은 공그르기로 하였다.

이 옷은 여러 조각으로 이어져 있어 다른 옷을 뜯어 모아 새로 만들거나, 유행에 따라 새로 改造한 것으로 본다.







	부분	치수
1	길이	131
2	뒤품	55.5
3	화장	61
4	고대	19
5	진동	33.5
6	소매길이	33.5
7	소매통	33.5
8	수구	34
9	겉섶너비(上)	24.5
10	겉섶너비(下)	44
11	안섶너비(上)	•
12	안섶너비(下)	•
13	겉섶길이(內)	106.5
14	겉섶길이(外)	91.5
15	안섶길이(內)	•
16	안섶길이(外)	92.3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1.5
19	무너비(上)	24/8
20	무너비(下)	39.5/18.5
21	무길이(內)	93
22	무길이(外)	100
23	동정길이	•
24	동정나비	•
25	동정위치(겉깃끝)	•
26	동정위치(안깃끝)	•
27	겉고름길이/너비	•
28	속고름길이/너비	•
29	당아래	2.5
30	어깨바대	7.5/51
31	겨드랑이바대	7.5×2
32	당	•
33	누비간격	•
34	접어줄임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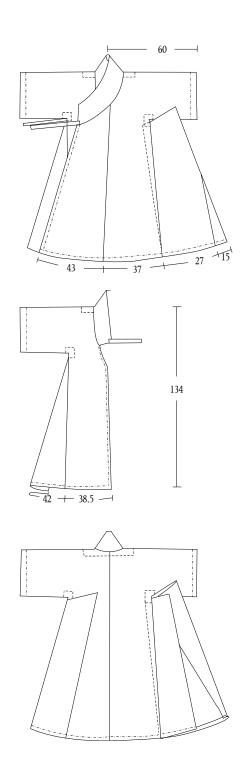
*무너비:접어서 측정한 치수

6. 답호 ②

半袖에 홑옷이며, 옷감은 大花紋紗(蓮花蔓草)이다. 상색이면서 녹색을 띠고 있다. 수습 당시 길쪽 부분이 둘로 분리되어 있었다. 동정은 없는데 옷고름은 겉과 안 각기 2개씩 달려있다. 어깨바대는 빈약하다. 안 깃은 답호①처럼 가운데 마름선이 있는 二重이다. 이중깃은 조선 전기 直領袍類에서 表衣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특징인데 본 유물에서는 겉의 안단으로 되어있었으며 치수도 줄어들었다. 이것은 새로 개조하면서 치수나 자리가 이동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옆 겨드랑이 아래선을 시침으로 이동시킨 점, 안단의 섶이 없는 것 등이특징이다.







	부분	치수
1	길이	134
2	뒤품	54.5
3	화장	60
4	고대	19.5
5	진동	33.5
6	소매길이	32.5
7	소매통	33.5
8	수구	33
9	겉섶너비(上)	21.5
10	겉섶너비(下)	43
11	안섶너비(上)	•
12	안섶너비(下)	•
13	겉섶길이(內)	109
14	겉섶길이(外)	95
15	안섶길이(內)	•
16	안섶길이(外)	80
17	깃길이	97.5
18	깃너비	12
19	무너비(上)	24.5/9
20	무너비(下)	42/17.5
21	무길이(內)	93.5
22	무길이(外)	105
23	동정길이	•
24	동정나비	•
25	동정위치(겉깃끝)	•
26	동정위치(안깃끝)	•
27	겉고름길이/너비	26.5/2
28	속고름길이/너비	32/1.3
29	당아래	2
30	어깨바대	7.5×36.5
31	겨드랑이바대	7.5×7.5
32	당	×
33	누비간격	×
34	접어줄임분	5.5

*무너비 : 접어서 측정한 치수

7. 답호 ③

熟綃로 만든 홑옷이며 반소매[半袖]이다.

상색인데 녹색을 띠고 있다. 수습 당시에는 겉섶과 뒤가 없었다. 보수 후에는 옷고름만 없고, 완전한 모양이 되었다. 본 출토 유물에서 바느질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무는 곧은선[直線]으로 뻗어나가는데 앞 무가 뒤보다 길고 넓으며, 두 번 접음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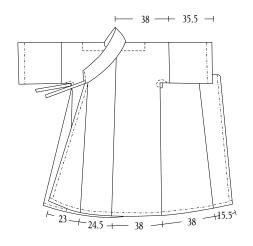
겉섶은 이중이다. 겨드랑이 아래는 안으로 바대를 달았는데, 마름 할 때 한쪽 너비가 1.5cm 되게 곧게[直線]하고, 배래 쪽은 90°가 되도록 휘어서 옆선과 소매배래에 걸쳐 "¬"자 모양으로 굴려 바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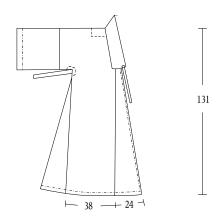
바느질은 옛쌈솔, 온박음, 수직감침, 고름은 말아 감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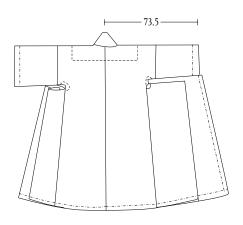
깃은 겉은 칼처럼 끝이 뾰죽한(칼깃) 모양이며, 안 깃은 네모난(모판깃) 모양인데 안섶에서 반 또는 더 넓게 밖으로 나가 달렸다. 답호 석점이 모두 같은 양식이다.











	부분	치수
1	길이	131
2	뒤품	65
3	화장	73.5
4	고대	18.5
5	진동	33
6	소매길이	41
7	소매통	34
8	수구	34.5
9	겉섶너비(上)	25
10	겉섶너비(下)	47.5
11	안섶너비(上)	5
12	안섶너비(下)	24
13	겉섶길이(內)	115.5
14	겉섶길이(外)	98
15	안섶길이(內)	91.5
16	안섶길이(外)	88
17	깃길이	99.5
18	깃너비	11.5
19	무너비(上)	48/28.5
20	무너비(下)	53.5/34
21	무길이(內)	102.5
22	무길이(外)	99
23	동정길이	
24	동정나비	
25	동정위치(겉깃끝)	
26	동정위치(안깃끝)	
27	겉고름길이/너비	29/2.7
28	속고름길이/너비	28.5/2.5
29	당아래	4.5
30	어깨바대	25×38.5
31	겨드랑이바대	3×12.5
32	당	
33	누비간격	
34	접어줄임분	

*무너비:펼쳐서 측정한 치수

8. 철릭 ①

홑옷이며, 옷감은 雲寶紋緞이다. 色은 網色인데 靑·綠色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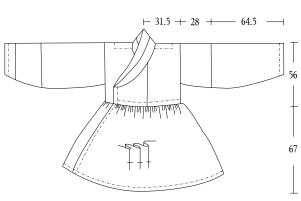
수습 당시 크게 두 조각으로 분리되고 부분파손이 심하였다. 보수에 의해 형태는 정리되었으나 동정과 고름이 없으며, 소매와 아래 단에 덧단을 댔는데 단은 모두 곧은선[直線]으로하였다. 소매배래는 조선전기 유물들은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곧게 뻗다가 수구가 좁아지는데, 본 유물은 통이 좁으면서 배래 중심이 진동과 수구 쪽 보다 조금 넓은 모양으로 변했다. 조선전기 유물에 비해 품이 좁고, 깃도 깃머리가 완전히 우임 옆선까지 내려오던 것이길이도 짧아지고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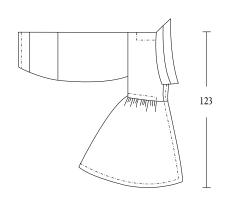
본 유물은 얼른 보면 임진왜란 이전 朝鮮 前期의 기본형인 上衣下裳의 길이 1:1 비율(현재 衣56cm, 裳67cm)이나, 잔주름(1cm에 5~6개의 주름), 이중 깃 등으로 된 것 같다. 그러나자세히 보면 등솔기나 깃 등의 바느질 자리가 이동되었고, 또 잔주름을 고치거나 뜯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대부분 처음 바느질 자리가 바뀌어졌다. 이는 치수의 변화가 많았음을 확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유물은 하음공이 처음 官職에 등용된 때에 입었던 옷이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치러야 했던 사회의 혼란한 정세와 함께 새로운 옷의 유행을 맞이하는 틈바구니에서 변형을 시킨 것이라 보며, 이런 과도기 상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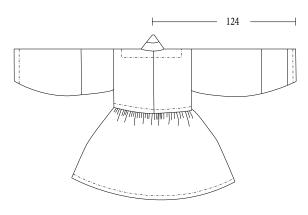
바느질은 주로 홈질이며, 옷고름의 말아감침과 온박음, 소매배래는 통솔로 하였다.











	부분	치수
l	길이	56/67
2	뒤품	65
3	화장	124
4	고대	19.5
5	진동	34.5
6	소매길이	92.5
7	소매통	39
8	수구	24
9	겉섶너비(上)	30
10	겉섶너비(下)	30
11	안섶너비(上)	5
12	안섶너비(下)	4.5
13	겉섶길이(內)	43
14	겉섶길이(外)	16.5
15	안섶길이(內)	10
16	안섶길이(外)	10.5
17	깃길이	109.5
18	깃너비	6.5/6.5
19	동정길이	
20	동정나비	
21	동정위치(겉깃끝)	
22	동정위치(안깃끝)	
23	겉고름길이/너비	흔적
24	속고름길이/너비	•
25	겨드랑이 밑	18
26	어깨바대	8×48.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64
32	치마폭수	7
33	치마주름간격	1cm안에 5~6개

9. 철릭 ②

홑옷이며, 옷감은 세 종류가 섞여 있다.

겉은 큰 꽂[大花, 寶相花]을 중심에 두고 작은 꽂[小花]와 잎들이 넝쿨처럼 大花를 감싸고 있는 모란(寶相花)蔓草紋緞이다. 동정은 紬로 하였으며, 어깨바대와 허리바대 上下衣를 연결하는 허리단의 바대는 雲寶紋紗를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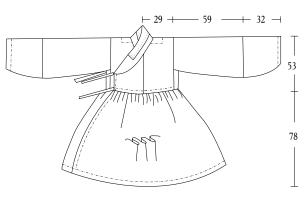
부분 파손이 있었으나 깃과 옷고름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바느질은 온박음, 공그르기, 통솔, 감침, 말아감침으로 하였다. 주름너비는 1.5~2cm로 전기에 비해서는 매우 넓어진 것이지만, 하음공의 출토 유물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 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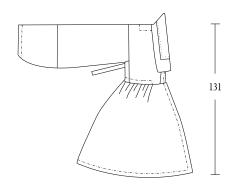
품은 등솔시점을 곬로 하여 매우 가늘게(0.5㎝) 박으면서 겨드랑이 아래 옆선을 좁게(2㎝) 덧대어 맞추고 있는데, 이처럼 옆선을 좁게 한 것은 드문 일로 옷감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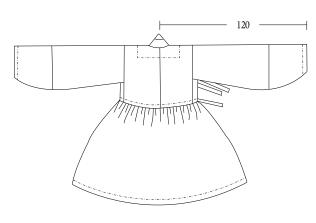
衣는 53cm, 치마(裳)는 78cm인데, 裳의 너비는 6폭(1폭 너비 59cm)+20cm이다. 품을 포함한 옷고름 등 모든 부분의 크기비례나 소매모양을 보면 조선 전기와는 다른 중기의 철릭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부분치수1길이53/782뒤품643화장1204고대185진동316소매길이887소매통37.58수구269겉섶너비(上)29.510겉섶너비(下)29.511안섶너비(下)2.512안섶너비(下)2.513겉섶길이(內)3814겉섶길이(內)1215안섶길이(內)1216안섶길이(內)1217깃길이10118깃너비1219동정길이6420동정나비721동정위치(겉깃끝)20.522동정위치(안깃끝)1623겉고름길이/너비29/225겨드랑이 밑1926어깨바대24×3527겨드랑이바대.28매듭단추.29고리.30고리바대.31치마폭수20cm+6			
2 뒤품 64 3 화장 120 4 고대 18 5 진동 31 6 소매길이 88 7 소매통 37.5 8 수구 26 9 끝섶너비(上) 29.5 10 끝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下) 2.5 12 안섶너비(下) 2.5 13 끝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발대 .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부분	치수
3 화장 120 4 고대 18 5 진동 31 6 소매길이 88 7 소매통 37.5 8 수구 26 9 겉섶너비(上) 29.5 10 겉섶너비(上) 29.5 11 안섶너비(上) 2.5 12 안섶너비(下) 2.5 13 겉섶길이(內) 38 14 겉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59	1	길이	53/78
4고대185진동316소매길이887소매통37.58수구269겉섶너비(上)29.510겉섶너비(下)29.511안섶너비(上)2.512안섶너비(下)2.513겉섶길이(內)3814겉섶길이(內)1915안섶길이(內)1216안섶길이(內)1217깃길이10118깃너비1219동정길이6420동정나비721동정위치(겉깃끝)20.522동정위치(안깃끝)1623겉고름길이/너비29/224속고름길이/너비29/225겨드랑이 밑1926어깨바대24×3527겨드랑이바대·28매듭단추·29고리·30고리바대·31치마폭너비59	2	뒤품	64
5진동316소매길이887소매통37.58수구269겉섶너비(上)29.510겉섶너비(下)29.511안섶너비(上)2.512안섶너비(下)2.513겉섶길이(內)3814겉섶길이(內)1915안섶길이(內)1216안섶길이(內)1217깃길이10118깃너비1219동정길이6420동정나비721동정위치(겉깃끝)20.522동정위치(안깃끝)1623겉고름길이/너비29/225겨드랑이 밑1926어깨바대24×3527겨드랑이바대.28때듭단추.29고리.30고리바대.31치마폭너비59	3	화장	120
6 소매길이 88 7 소매통 37.5 8 수구 26 9 끝섶너비(上) 29.5 10 끝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下) 2.5 12 안섶너비(下) 2.5 13 끝섶길이(內) 38 14 끝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끝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 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4	고대	18
7 소매통 37.5 8 수구 26 9 겉섶너비(上) 29.5 10 겉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下) 2.5 12 안섶너비(下) 38 14 겉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때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5	진동	31
8 수구 26 9 겉섶너비(上) 29.5 10 겉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下) 2.5 12 안섶너비(下) 2.5 13 겉섶길이(內) 38 14 겉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건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6	소매길이	88
9 겉섶너비(上) 29.5 10 겉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上) 2.5 12 안섶너비(下) 2.5 13 겉섶길이(內) 38 14 겉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7	소매통	37.5
10 겉섶너비(下) 29.5 11 안섶너비(上) 2.5 12 안섶너비(下) 2.5 13 겉섶길이(內) 38 14 겉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건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8	수구	26
11 안섶너비(上) 2.5 12 안섶너비(下) 2.5 13 겉섶길이(內) 38 14 겉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건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9	겉섶너비(上)	29.5
12 안섶너비(下) 2.5 13 겉섶길이(內) 38 14 겉섶길이(內) 19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10	겉섶너비(下)	29.5
13	11	안섶너비(上)	2.5
14겉섶길이(外)1915안섶길이(內)1216안섶길이(外)1217깃길이10118깃너비1219동정길이6420동정나비721동정위치(겉깃끝)20.522동정위치(안깃끝)1623겉고름길이/너비29/2.524속고름길이/너비29/225겨드랑이 밑1926어깨바대24×3527겨드랑이바대·28매듭단추·29고리·30고리바대·31치마폭너비59	12	안섶너비(下)	2.5
15 안섶길이(內) 12 16 안섶길이(內)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13	겉섶길이(內)	38
16 안섶길이(外) 12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14	겉섶길이(外)	19
17 깃길이 101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15	안섶길이(內)	12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16	안섶길이(外)	12
19 동정길이 64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17	깃길이	101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18	깃너비	12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19	동정길이	64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20	동정나비	7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21	동정위치(겉깃끝)	20.5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22	동정위치(안깃끝)	16
25 겨드랑이 밑 19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23	겉고름길이/너비	29/ 2.5
26 어깨바대 24×35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24	속고름길이/너비	29/2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59	25	겨드랑이 밑	19
28 매듭단추 29 고리 30 고리바대 31 치마폭너비 59	26	어깨바대	24×35
29 고리 30 고리바대 31 치마폭너비 59	27	겨드랑이바대	•
30 고리바대 31 치마폭너비 59	28	매듭단추	
31 치마폭너비 59	29	고리	•
	30	고리바대	
32 치마폭수 20cm+6	31	치마폭너비	59
	32	치마폭수	20cm + 6
33 치마주름간격 1.5~2	33	치마주름간격	1.5~2

10. 철릭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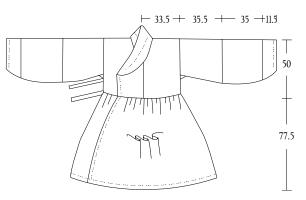
겉은 吐紬, 안은 紬로 만든 겹옷이다. 겉은 진한 남색이고, 안은 상색이다. 동정은 없고, 고름도 겉섶쪽은 없으나 우측 겨드랑이에 2개가 남아있는데 갈색의 紬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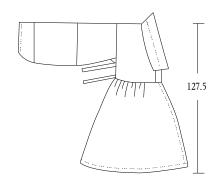
衣는 50cm, 裳은 77.5cm로 裳이 길다. 裳의 너비는 겉은 10폭(1폭 35cm), 안은 9폭+26cm이며, 주름너비는 3cm이다. 겨드랑이에 3×3cm 너비의 襠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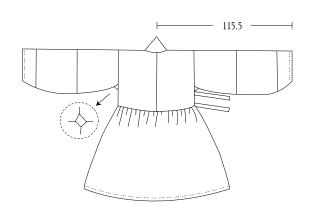
기타 모양이나 바느질 등은 철릭②번과 비슷하다.











	부분	치수
1	길이	50/77.5
2	뒤품	67
3	화장	115.5
4	고대	19.5
5	진동	33.5
6	소매길이	82
7	소매통	39
8	수구	26.5
9	겉섶너비(上)	27
10	겉섶너비(下)	28.5
11	안섶너비(上)	4
12	안섶너비(下)	4
13	겉섶길이(內)	36
14	겉섶길이(外)	13
15	안섶길이(內)	6
16	안섶길이(外)	6.5
17	깃길이	112.5
18	깃너비	12
19	동정길이	•
20	동정나비	•
21	동정위치(겉깃끝)	•
22	동정위치(안깃끝)	•
23	겉고름길이/너비	29/2.5
24	속고름길이/너비	흔적
25	겨드랑이 밑	14
26	어깨바대	•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겉 : 35 안 : 36.5
32	치마폭수	겉:10 안:26cm+9
33	치마주름간격	3

11. 철릭 ④

熟綃로 만든 홑옷이며, 상색이다. 깃은 겉이 칼깃이고, 안은 모판 깃이다. 동정은 없고, 고름은 한 개뿐이다.

衣의 길이는 52cm, 裳은 78cm에 11폭(1폭 37cm)이며, 裳의 주름너비는 2.5~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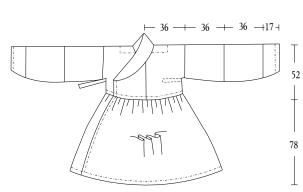
바느질은 박음, 감침, 옛쌈솔, 말아감침으로 하였으며 매우 정교하다. 수구는 곧은선 덧단을 대었으며, 깃은 길의 솔기 시접을 한번 접기 바느질로 단단하게 하였다. 배래와 上下衣 연결은 옛쌈솔로 하였으며, 허리바대는 수직감침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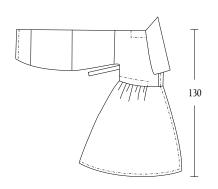
겨드랑이 바대는 옆선과 소매배래에 너비 2.5cm에 길이 13.5cm의 굽은바대(90°)를 달았는데 바느질은 수직감침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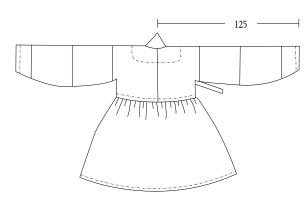
모양이나 크기의 비례는 다른 철릭들과 같다.











	부분	치수
1	길이	52/78
2	뒤품	68
3	화장	125
4	고대	18
5	진동	31
6	소매길이	89
7	소매통	35
8	수구	25
9	겉섶너비(上)	29.5
10	겉섶너비(下)	31
11	안섶너비(上)	3
12	안섶너비(下)	4.5
13	겉섶길이(內)	37
14	겉섶길이(外)	29.5
15	안섶길이(內)	5.5
16	안섶길이(外)	5.5
17	깃길이	105
18	깃너비	11.5
19	동정길이	
20	동정나비	•
21	동정위치(겉깃끝)	
22	동정위치(안깃끝)	
23	겉고름길이/너비	26/2.5
24	속고름길이/너비	30/2.5
25	겨드랑이 밑	15
26	어깨바대	19.5×34
27	겨드랑이바대	2.5×13.5
28	매듭단추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37
32	치마폭수	11
33	치마주름간격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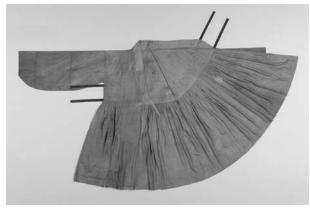
12. 철릭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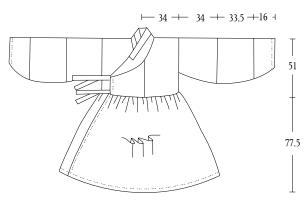
겉은 交織, 안은 紬로 만든 겹옷으로 수의였으며, 緗色인데 녹색도 띠고 있다. 깃과 고름과 동정은 파손됐으나, 모두 있어 모양은 완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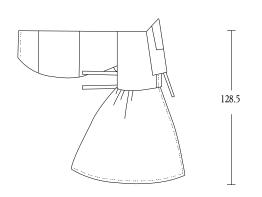
衣 51cm, 裳 77.5cm이다. 裳의 주름너비는 1.5cm이고, 겉감은 11폭(1폭 33.5cm), 안감은 10폭(1폭 36cm)이다. 겨드랑이에 2.5cm너비의 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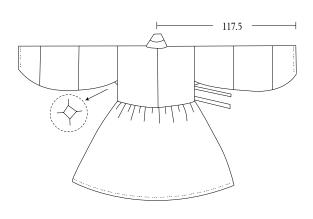
고름은 겉은 두개씩 네개 모두 있는데 褐色이다. 안고름은 두개 모두 있는데 상색이다. 바느질은 홈질, 박음, 감침으로 양호한 편이다. 단 처리는 석땀 상침으로 하였다.











	부분	-1.4
	, =	치수
1	길이	51/77.5
2	뒤품	66
3	화장	117.5
4	고대	19.5
5	진동	31
6	소매길이	83.5
7	소매통	38
8	수구	23
9	겉섶너비(上)	27.5
10	겉섶너비(下)	29
11	안섶너비(上)	4
12	안섶너비(下)	3.5
13	겉섶길이(內)	36.5
14	겉섶길이(外)	18
15	안섶길이(內)	6.5
16	안섶길이(外)	7
17	깃길이	108.5
18	깃너비	10.5
19	동정길이	65.5
20	동정나비	7.5
21	동정위치(겉깃끝)	21
22	동정위치(안깃끝)	22
23	겉고름길이/너비	32.5/2.5
24	속고름길이/너비	42/2
25	겨드랑이 밑	16.5
26	어깨바대	•
27	겨드랑이바대	
28	매듭단추	•
29	고리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겉:33.5 안:36
32	치마폭수	겉:11 안:10
33	치마주름간격	1.5

13. 철릭 ⑥

겉은 細紬, 안은 紬로 만든 겹옷이다. 상색인데 녹색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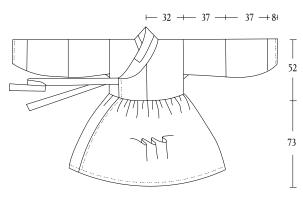
동정과 옷고름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옷고름 중에서 겉고름은 넓은 것(大 106×6cm 小80×6cm)이 좌우로 2개 달렸는데, 깃고름은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맬 수 있게 길다. 안고름도 2 개(33×2.5cm)가 있다. 겨드랑이에 너비 2.5cm의 네모[四角] 襠을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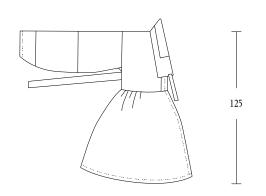
의는 52cm, 상은 73cm이다. 裳의 주름 너비는 2,5~3cm이다. 소매는 직배래인데, 수구 쪽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굴렸다. 바느질은 홈질, 박음, 상침, 감침으로 하였다. 단은 석땀 상침으로 하였다. 모양이나 크기의 비례는 다른 철릭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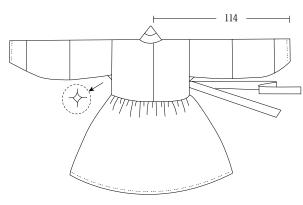
접힌 자국으로 보아 보공으로 넣었던 것이다.











	부분	치수
1	길이	52/73
2	뒤품	64
3	화장	114
4	고대	20
5	진동	30
6	소매길이	82
7	소매통	33
8	수구	23
9	겉섶너비(上)	25
10	겉섶너비(下)	25
11	안섶너비(上)	2.5
12	안섶너비(下)	3
13	겉섶길이(內)	35.5
14	겉섶길이(外)	17
15	안섶길이(內)	9
16	안섶길이(外)	9
17	깃길이	104
18	깃너비	11
19	동정길이	65
20	동정나비	7
21	동정위치(겉깃끝)	21.5
22	동정위치(안깃끝)	17.5
23	겉고름길이/너비	106/6 80/6
24	속고름길이/너비	33/2.5 32/2.5
25	겨드랑이 밑	16.5
26	어깨바대	•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겉 : 38 안 : 34
32	치마폭수	겉:31cm+10 안:12
33	치마주름간격	2.5~3

14. 철릭 ⑦

겉과 안이 모두 紬로 된 누비옷이다. 상색인데 녹색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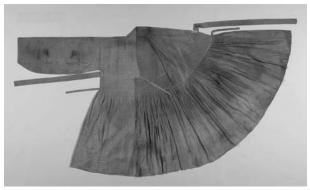
수습 당시 소매는 한쪽뿐이었으나, 보수 후에 동정과 옷고름 소매 등 모두 갖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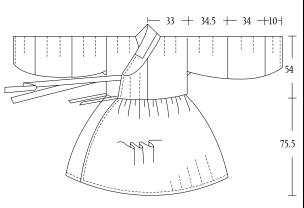
누비는 8~8.5cm 간격으로 성글게 누볐다. 고름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다. 넓은 것은 두개(大 103.5×5cm, 小 81×5cm), 좁은 것 두개(32×2cm)인데 옷고름 긴 것으로 허리 한바퀴 돌려 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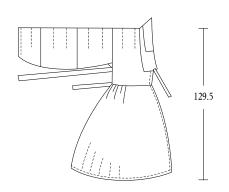
衣는 54cm, 裳은 75.5cm이며, 겉은 11폭(1폭 34~35cm), 안은 13폭(23~34cm)이다. 주름너비는 2~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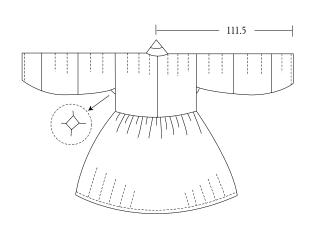
겉섶과 수구 및 밑단처리는 0.5cm 너비로 고운 홈질로 하였다.











	부분	치수
1	길이	54/75.5
2	뒤품	66
3	화장	111.5
4	고대	19.5
5	진동	30
6	소매길이	78.5
7	소매통	35
8	수구	24
9	겉섶너비(上)	23.5
10	겉섶너비(下)	28
11	안섶너비(上)	•
12	안섶너비(下)	
13	겉섶길이(內)	39
14	겉섶길이(外)	19.5
15	안섶길이(內)	•
16	안섶길이(外)	•
17	깃길이	103
18	깃너비	10.5
19	동정길이	64.5
20	동정나비	8
21	동정위치(겉깃끝)	19
22	동정위치(안깃끝)	19.5
23	겉고름길이/너비	103/5
		81/5
24	속고름길이/너비	36./2.2
25	겨드랑이 밑	17.5
26	어깨바대	•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겉:34~35 안:23~34
32	치마폭수	겉 : 11 안 : 13
33	치마주름간격	2~3

15. 철릭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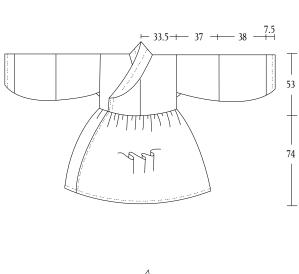
겉은 吐紬, 안은 紬로 만든 겹옷이다. 겉은 녹색을 띠고, 안은 상색이다. 수습 당시 양쪽 소매와 동정이 없었다. 옷고름은 달렸던 흔적만 남아 있는데 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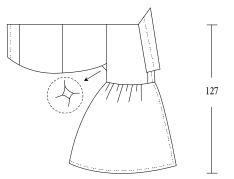
衣는 53cm, 裳은 74cm이며 겉은 11폭(1폭 38cm). 안은 12폭+22cm(1폭 34cm)이다. 주름너비는 2~3cm이고, 겨드랑이에 너비 2.5cm 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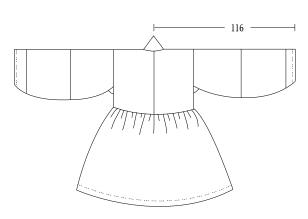
소매통은 중간이 6.5㎝로 본 철릭 8점 중에서 다른 옷에 비해 넓은 편이며, 모양도 진동 부분 굴림이 절구통[臼] 모양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는 본 한음공의 옷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바느질은 홈질, 박음, 감침으로 하였다. 단처리는 석땀 상침으로 하였다.









	부분	치수
1	길이	53/74
2	뒤품	67
3	화장	116
4	고대	19
5	진동	34
6	소매길이	82.5
7	소매통	41
8	수구	27
9	겉섶너비(上)	28
10	겉섶너비(下)	30
11	안섶너비(上)	5
12	안섶너비(下)	5
13	겉섶길이(內)	37
14	겉섶길이(外)	13
15	안섶길이(內)	8
16	안섶길이(外)	8.5
17	깃길이	111
18	깃너비	11.5
19	동정길이	•
20	동정나비	•
21	동정위치(겉깃끝)	•
22	동정위치(안깃끝)	•
23	겉고름길이/너비	• /3
24	속고름길이/너비	· /1.8
25	겨드랑이 밑	17.5
26	어깨바대	•
27	겨드랑이바대	•
28	매듭단추	•
29	고리	•
30	고리바대	•
31	치마폭너비	겉 : 38 안 : 34
32	치마폭수	겉:11 안:22cm+12
33	치마주름간격	2~3

16. 直領袍類(道袍?)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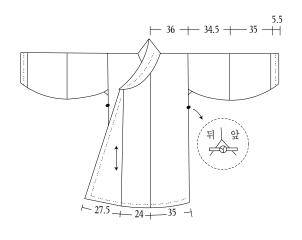
겉은 吐紬, 안은 紬로 만든 겹옷이다. 겉은 남색이며, 안은 상색인데 녹색을 띠고 있다. 옷고름은 좌우에 각 한 개씩 흔적만 남아 있는데 갈색이며 너비 2.5㎝이다. 襠이 달려있고, 당 아래 11㎝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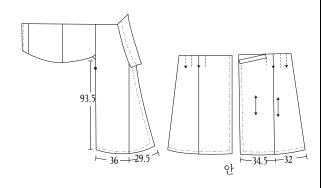
되는 두 가닥으로 나뉘어 있다. 한 가닥은 겉으로 달린 덧 판과, 다른 하나는 양쪽 겨드 랑이 선에서 각기 중심으로 곧게 뻗은 안쪽 판이다. 겉 판은 몸통 길이 앞으로부터 연결되어 내려 간 것이며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밑단으로 뻗치는 무가 달려 있다. 안쪽 판은 각기 겨드랑이에서 중심으로 뒷 중심선에서 8cm 떨어진 선까지 곧게 뻗어 내리는데 중간은 16cm 너비가 벌어져 있다. 안쪽 판에서 뒤로 넘어간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반은 뒷판에 홈질로 고정시키고, 반쪽은 반과 다시 반으로 접어 네 번 접힌 가닥을 앞길 쪽에서 홈질로 고정시켰던 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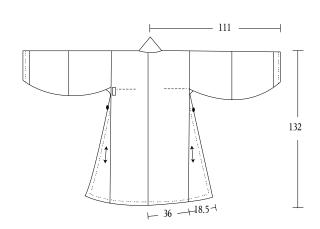
옷의 구조는 후기 도포와는 부분적으로 다르다. 조선시대 중 후기의 전형적인 도포를 보면 뒷자락은 앞의 길이 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곧게 내리고 다른 폭을 대지 않고 있다. 또한 안자락은 좌우 두 자락이 있는데 중심부분은 어깨에서 내린 등판에 이어서 내려와서 가운데가 서로 맞닿거나 겹쳐지고 있으며, 옆선은 무로 겨드랑이에서부터 내려와서 밑단은 옆선 쪽으로 퍼져있다.











	부분	치수
1	길이	132
2	뒤품	73
3	화장	111
4	고대	19
5	진동	34
6	소매길이	75
7	소매통	41
8	수구	25
9	겉섶너비(上)	26.5
10	겉섶너비(下)	51.5
11	안섶너비(上)	8
12	안섶너비(下)	29.5
13	겉섶길이(內)	97
14	겉섶길이(外)	95
15	안섶길이(內)	97
16	안섶길이(外)	83
17	깃길이	114.5
18	깃너비	10.5
19	무너비(上)	15.5
20	무너비(下)	32
21	무길이(內)	93
22	무길이(外)	91
23	동정길이	•
24	동정나비	•
25	동정위치(겉깃끝)	•
26	동정위치(안깃끝)	•
27	겉고름길이/너비	• /2.5
28	속고름길이/너비	28/2.2
29	당아래	•
30	어깨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
32	당	2.2
33	누비간격	•
34	옆트임	93

*무너비:펼쳐서 측정한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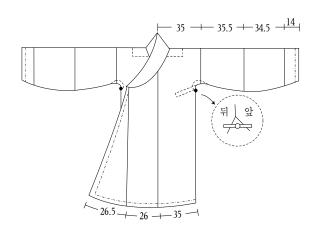
17. 直領袍類(道袍?)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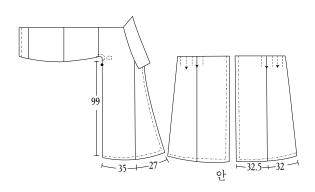
熟納로 만든 홑옷으로, 바느질이 제(올)실을 뽑아서 바느질하여 매우 정교하다. 옆선은 겨드랑이에서 5.5cm 아래로 앞길과 뒤를 쌍밀이 매듭단추로 연결하였는데 뒷길에는 머리를, 앞에는 고리를 달았다. 옷고름은 겉은 없지만 2.5cm 너비로 달렸던 흔적이 있다. 겨드랑이 밑에 안쪽으로 굽은 선 바대 안고름이 한 개 있다. 무는 앞으로 네 번 접히고, 뒤는 한판으로 홈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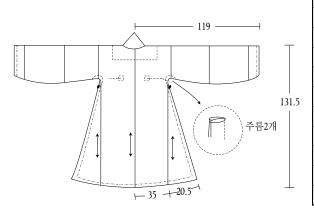
깃은 길 부분을 한번 접어 바느질하여 도톰하고 단단하다. 바느질은 온박음, 감침, 옷고름은 말아감침, 배래는 옛쌈솔로 하였다.











	нн	-1.4
_	부분	치수
1	길이	131.5
2	뒤품	63
3	화장	119
4	고대	19.5
5	진동	31.5
6	소매길이	84
7	소매통	35.5
8	수구	24
9	겉섶너비(上)	28
10	겉섶너비(下)	52.5
11	안섶너비(上)	5
12	안섶너비(下)	27
13	겉섶길이(內)	119
14	겉섶길이(外)	99
15	안섶길이(內)	87
16	안섶길이(外)	85
17	깃길이	110.5
18	깃너비	11.5
19	무너비(上)	17
20	무너비(下)	32
21	무길이(內)	98
22	무길이(外)	96
23	동정길이	
24	동정나비	•
25	동정위치(겉깃끝)	•
26	동정위치(안깃끝)	•
27	겉고름길이/너비	· /2.5
28	속고름길이/너비	30.5/3
29	당아래	
30	어깨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2.7×9.5
32	당	
33	누비간격	
34	옆트임	99.5

*무너비:펼쳐서 측정한 치수

18. 方領形上衣

겹옷이다. 옷감은 겉은 交織, 안은 紬로 만들었는데 겉이 안보다 곱다.

깃이 네모[方領로 되었으며, 소매는 짧고(45.5cm), 길이는 앞이 길고 뒤가 짧은 前長(86.5 cm)後短(65cm)이다. 시신의 머리맡에 개어서 보공으로 두었던 것으로 깃과 동정 단추 등이 모두 있어 양호하다.

단추는 쌍밀이紐子(돌마귀, 매듭)로 갈색이며, 좌우 나란히 上下 넉단으로 달렸는데 제일 위는 하나이고 다음 세 개는 모두 쌍이다. 단추는 좌측은 머리, 우측은 고리를 달았다. 앞의 깃과 섶은 이중으로 나누어 마름하고, 바느질은 정교하게 온박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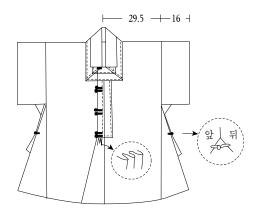
겨드랑이에는 4.5cm너비의 檔을 달았고, 옆선은 檔 아래로 10cm부터 트여있으며, 쌍밀이 매듭단추를 달아 앞과 뒤를 연결시켰는데, 여미는 실용과 멋을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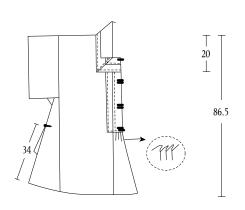
앞깃과 섶여밈에서 단추를 풀었을 때는 편안하게 놓이는데, 나란히 잠갔을 때는 깃과 섶 앞품이 운다(남는다). 이 우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가슴부분은 마름 하면서 옷을 입었을 때 가슴의 여유분을 고려한 매우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착안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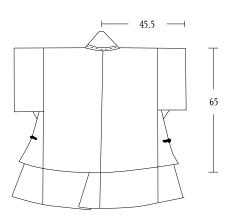
바느질은 홈질, 온박음, 감침, 상침으로 하였다.











	부분	치수
1	길이	86.5/65
2	뒤품	66
3	화장	45.5
4	고대	19
5	진동	34
6	소매길이	16
7	소매통	34
8	수구	33.5
9	겉섶너비(上)	3
10	겉섶너비(下)	10.5
11	안섶너비(上)	3.5
12	안섶너비(下)	10.5
13	겉섶길이(內)	34
14	겉섶길이(外)	35
15	안섶길이(內)	34
16	안섶길이(外)	34
17	깃길이	58.5
18	깃너비	9
19	무너비(上)	2
20	무너비(下)	12
21	무길이(內)	49
22	무길이(外)	48
23	동정길이	43.5
24	동정나비	6
25	동정위치(겉깃끝)	•
26	동정위치(안깃끝)	
27	겉고름길이/너비	•
28	속고름길이/너비	•
29	겨드랑이 밑	
30	등바대	
31	겨드랑이바대	
32	매듭단추나 고리	0
33	당	4.5×4.5
34	누비간격(길)	
35	누비간격(소매)	
36	옆트임	15

19. 액주음 ①

겉은 吐紬, 안은 紬로 만든 겹袍이며, 겉은 남색이고 안은 상색이다.

수거 당시는 소매나 등솔이 모두 찢긴 상태로 매우 불량하였다. 동정이 없고 옷고름은 좌측에 하나 뿐이지만 모양은 잘 정리되었다. 옆이 막히고 뒤가 트여있다.

소매는 거의 직배래이며 수구쪽으로 굴렀다. 겨드랑이에는 2 cm너비의 네모[四角] 檔이 있고, 5 cm 아래로 11.7 cm 너비만큼 $0.1 \sim 0.2 \text{cm}$ 너비의 잔주름을 잡았다.

뒤는 고대중심으로부터 67.5cm 아래까지 트임이 있으며, 트임 좌우에는 사뜨기(1.5cm)로 이음부분을 막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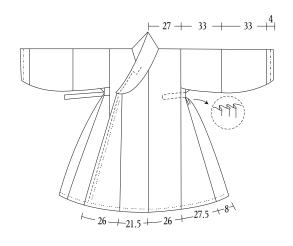
깃은 겉깃은 칼깃이며, 안깃은 네모난 모판모양이다. 동정은 없어졌지만 달렸던 자국으로 보아 길이 68cm, 너비 6.5cm이다. 앞섶은 이중이며, 겉고름을 너비가 좁고 갈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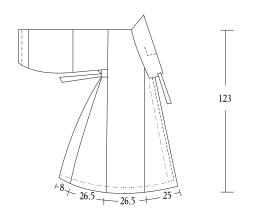
수구 안단은 곧은선으로 덧단을 대었다. 단 처리는 석땀상침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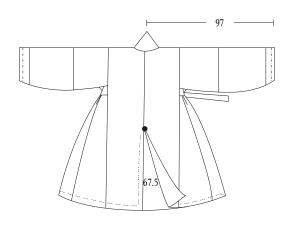
바느질은 홈질, 감침, 박음, 석땀 상침, 사뜨기로 하였다.











	부분	치수
1	길이	123
2	뒤품	64
3	화장	97
4	고대	19
5	진동	32
6	소매길이	70
7	소매통	34.5
8	수구	26
9	겉섶너비(上)	23.5
10	겉섶너비(下)	47.5
11	안섶너비(上)	5
12	안섶너비(下)	25
13	겉섶길이(內)	108
14	겉섶길이(外)	89
15	안섶길이(內)	86
16	안섶길이(外)	83
17	깃길이	105
18	깃너비	10.5
19	무너비(上)	6
20	무너비(下)	35.5
21	무길이(內)	91
22	무길이(外)	88
23	동정길이	흔적68
24	동정너비	6.5
25	동정위치(겉깃끝)	19
26	동정위치(안깃끝)	17.5
27	겉고름길이/너비	28/1.8
28	속고름길이/너비	32/2.5
29	당아래	5
30	어깨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
32	당	2×2
33	누비간격	•
34	접어줄임분	

20. 액주음 ②

수의이다. 겉은 吐紬, 안은 紬로 만든 겹옷이며 겉은 남색(쪽)이며, 안은 상색이다. 겉은 남색이지만 부분으로 상색을 띄며, 뒤판도 상색이다. 상색으로 변한 부분은 시신의 등판에 눌렸던 곳이다. 옆트임이 있는데 단추가 양쪽으로 달여있다. 속에 얇은 솜을 넣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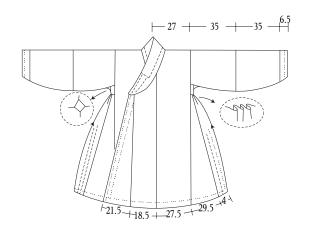
소매 한쪽은 1차 수습 때는 없었는데 2차 수거 때 발견되어 인수되었으며, 파손이 매우심하였다. 모양은 정리되었으나 동정과 옷고름은 없으나, 바느질 흔적으로 길이와 너비가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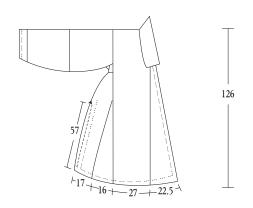
겨드랑이 밑에 2cm너비의 襠이 있다. 당 아래로 32cm부터 트여있는데, 트임 아래에 앞과 뒷길 연결은 연봉매듭단추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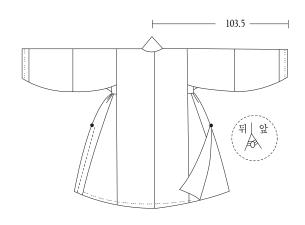
바느질은 홈질과 박음이고, 도련은 석땀 상침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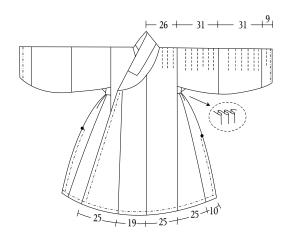
	부분	치수
1	길이	126
2	뒤품	64
3	화장	103.5
4	고대	18
5	진동	28.5
6	소매길이	76.5
7	소매통	33.5
8	수구	22.5
9	겉섶너비(上)	19.5
10	겉섶너비(下)	40
11	안섶너비(上)	3.5
12	안섶너비(下)	22.5
13	겉섶길이(內)	107
14	겉섶길이(外)	89
15	안섶길이(內)	81
16	안섶길이(外)	80
17	깃길이	99.5
18	깃너비	10.5
19	무너비(上)	4
20	무너비(下)	33.5
21	무길이(內)	93
22	무길이(外)	90.5
23	동정길이	62(흔적)
24	동정너비	8(흔적)
25	동정위치(겉깃끝)	19
26	동정위치(안깃끝)	19
27	겉고름길이/너비	
28	속고름길이/너비	•
29	당아래	5.5
30	어깨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
32	당	2×2
33	누비간격	•
34	접어줄임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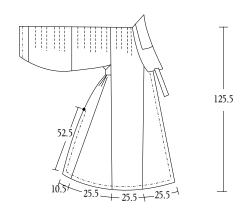
21. 액주음(누비)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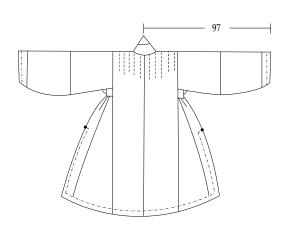
겉과 안이 모두 紬이고, 누비옷(간격 2,5cm)이며, 상색이다.

겨드랑이에 2cm너비의 襠이 있고, 37cm 밑에 옆트임을 주었는데 앞과 뒷자락 여밈은 도래매듭 끈으로 하였다. 소매와 도련 등 안단에 1cm너비의 곧은선 단을 대었다. 동정은 달려 있으며, 옷고름은 안고름 하나만 있고(35×2cm), 겉고름은 없으나 실밥흔적으로 너비 5cm이다.









	부분	치수
1		
1	길이	125.5
2	뒤품	58
3	화장	97
4	고대	18
5	진동	30.5
6	소매길이	71
7	소매통	35.5
8	수구	25.5
9	겉섶너비(上)	21
10	겉섶너비(下)	44
11	안섶너비(上)	7
12	안섶너비(下)	25.5
13	겉섶길이(內)	110
14	겉섶길이(外)	90
15	안섶길이(內)	93
16	안섶길이(外)	84
17	깃길이	98
18	깃너비	11.5
19	무너비(上)	3
20	무너비(下)	35
21	무길이(內)	93.5
22	무길이(外)	90.5
23	동정길이	65
24	동정너비	7
25	동정위치(겉깃끝)	15.5
26	동정위치(안깃끝)	18.5
27	겉고름길이/너비	• /5
28	속고름길이/너비	35/2
29	당아래	5.5
30	어깨바대	
31	겨드랑이바대	
32	당	2×2
33	누비간격	2.5
34	접어줄임분	

22. 액주음(누비) ④

겉과 안의 옷감은 紬이고 누비옷(간격 4.5cm)이다. 상색인데 약간 녹색을 띤다.

옷고름과 동정이 모두 있어서 모양이나 바느질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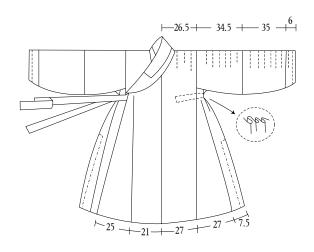
겨드랑이 밑에 3cm너비의 襠이 있으며, 옆트임은 진동 아래로 33.5cm에 있으며, 안으로 곧 은선 덧단을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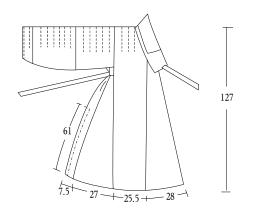
옷고름은 길고 넓어 긴 것으로 허리를 한바퀴 돌아 맬 수 있도록 하였다. 겉고름 중에 겉 섶 쪽(左)은 120×5.5cm이고, 겨드랑이 옆선(右)에 단 것은 97×5.5cm이다. 안고름은 37.5×2.5cm 로 좁고 가늘다. 동정에 때가 묻은 흔적이 있어 평소에 입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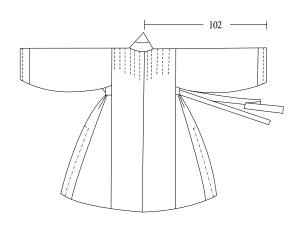
바느질은 홈질, 박음으로, 수구와 깃 겉섶은 0.8cm너비로 홈질하였다.











	부분	치수
1	길이	127
2	뒤품	62
3	화장	102
4	고대	20
5	진동	30
6	소매길이	75.5
7	소매통	33
8	수구	22.5
9	겉섶너비(上)	24.5
10	겉섶너비(下)	46
11	안섶너비(上)	7
12	안섶너비(下)	28
13	겉섶길이(內)	112
14	겉섶길이(外)	89
15	안섶길이(內)	95.5
16	안섶길이(外)	85
17	깃길이	103
18	깃너비	11.5
19	무너비(上)	3
20	무너비(下)	34.5
21	무길이(內)	95
22	무길이(外)	96
23	동정길이	69
24	동정너비	8.5
25	동정위치(겉깃끝)	19.5
26	동정위치(안깃끝)	15
27	겉고름길이/너비	120/5.5 97/5.5
28	속고름길이/너비	37.5/2.5
29	당아래	5
30	어깨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
32	당	3 × 3
33	누비간격	4~4.5
34	접어줄임분	•

23. 액주음(누비)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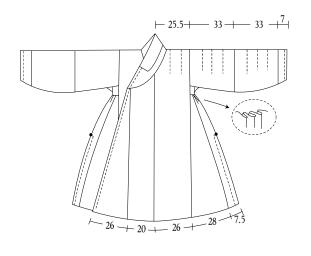
누비겹옷으로 상색이다. 옷감은 겉은 細紬, 안은 紬이며 양호하다. 누비는 8~8.5cm니비로 본 유물 중에 가장 굵다. 동정(너비 7.5cm)은 있는데, 옷고름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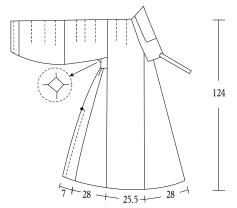
겨드랑이에 2cm너비의 襠이 있고 겨드랑이 밑 37cm아래로 옆트임이 있으며, 트임에는 도 래매듭 끈으로 앞과 뒤의 길이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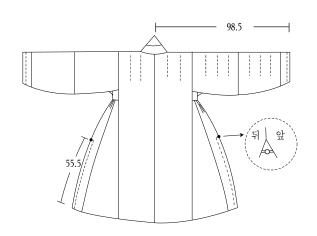
깃과 섶 수구 트임에 0.8cm 홈질로 하였다.

겉고름은 5cm너비로 바느질 흔적이 있는데, 너비로 보아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매는 끈이라고 본다.









	부분	치수
l	길이	124
2	뒤품	61
3	화장	98.5
4	고대	19.5
5	진동	30
6	소매길이	73
7	소매통	32
8	수구	23
9	겉섶너비(上)	21
10	겉섶너비(下)	46
11	안섶너비(上)	6
12	안섶너비(下)	28
13	겉섶길이(內)	109
14	겉섶길이(外)	93
15	안섶길이(內)	89.5
16	안섶길이(外)	83.5
17	깃길이	99
18	깃너비	11
19	무너비(上)	3.5
20	무너비(下)	35.5
21	무길이(內)	95
22	무길이(外)	92.5
23	동정길이	63.5
24	동정너비	7.5
25	동정위치(겉깃끝)	16.5
26	동정위치(안깃끝)	18.5
27	겉고름길이/너비	• /5
28	속고름길이/너비	41/2
29	당아래	5.5
30	어깨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
32	당	2×2
33	누비간격	8
34	접어줄임분	<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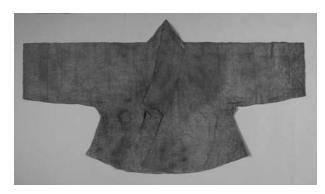
24. 저고리(삼회장)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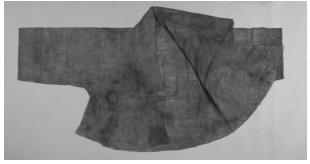
보상화만초보문단과 紬로 만든 삼회장 겹저고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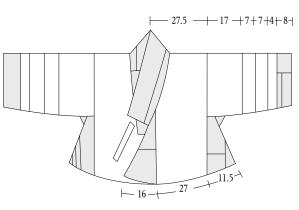
겉은 남색을 띤 상색이다. 매우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었으나 보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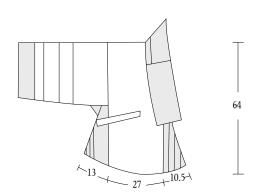
동정은 실 흔적만 있으며, 겉고름은 24×2.5㎝하나만 남아있다. 깃은 모판깃이며, 당은 5㎝ 너비이다. 깃과 섶, 곁막이, 당, 수구에는 寶相花蔓草寶紋緞으로 하였다. 이 문단은 겉섶에는 두조각, 안섶은 다섯조각, 깃은 일곱조각, 무는 열조각까지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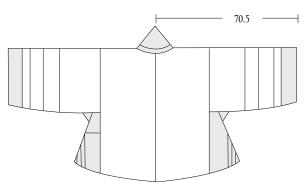
안에 풀솜을 넣었다. 바느질은 홈질과 박음 두 가지이며, 매우 엉성하다.











	부분	치수
1	길이	64
2	뒤품	65
3	화장	70.5
4	고대	19
5	진동	33
6	소매길이	43
7	소매통	31
8	수구	27
9	겉섶너비(上)	4.5
10	겉섶너비(下)	16
11	안섶너비(上)	3.5
12	안섶너비(下)	10.5
13	겉섶길이(內)	35
14	겉섶길이(外)	27.5
15	안섶길이(內)	23
16	안섶길이(外)	22
17	깃길이	94.5
18	깃너비	12
19	무너비(上)	3.5
20	무너비(下)	11.5
21	무길이(內)	27
22	무길이(外)	24.5
23	동정길이	•
24	동정나비	•
25	동정위치(겉깃끝)	•
26	동정위치(안깃끝)	•
27	겉고름길이/너비	24/2.5
28	속고름길이/너비	•
29	겨드랑이바대	•
30	등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32	매듭단추나 고리	•
33	당	5 × 5
34	누비간격(길)	
35	누비간격(소매)	•
36	옆트임	

25. 저고리(누비) ②

겉과 안을 굵은 紬로 만든 누비옷이다. 상색이면서 녹색을 띠며, 안에 풀솜을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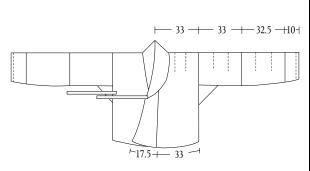
오물자국으로 보아 壽衣일 확률이 많다. 8cm 너비로 누비처럼 징그고 있다. 겨드랑이 밑에 13cm크기의 襠이 있고, 당 아래 14.5cm에서부터 15.5cm 트여 있다. 겉깃은 둥그래 모양이고, 옷고름은 겉에 2개(34.5×2cm)가 다 있다. 소매는 길고 겨드랑이에 네모[四角]의 襠을 달았다. 매우 곱고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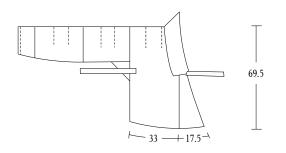
길이 69.cm, 화장은 108.5cm로 소매가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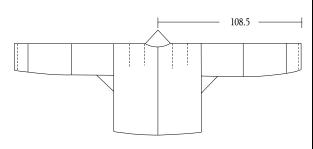
바느질은 홈질 박음이며. 단은 0,8cm 너비로 박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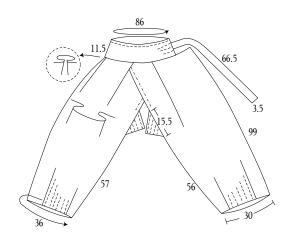
	부분	치수
1	길이	69.5
2	뒤품	66
3	화장	108.5
4	고대	20
5	진동	25.5
6	소매길이	75.5
7	소매통	25
8	수구	21.5
9	겉섶너비(上)	10
10	겉섶너비(下)	17.5
11	안섶너비(上)	7.5
12	안섶너비(下)	17.5
13	겉섶길이(內)	40.5
14	겉섶길이(外)	35.5
15	안섶길이(內)	37.5
16	안섶길이(外)	38
17	깃길이	91.5
18	깃너비	12
19	무너비(上)	
20	무너비(下)	
21	무길이(內)	•
22	무길이(外)	
23	동정길이	
24	동정나비	
25	동정위치(겉깃끝)	
26	동정위치(안깃끝)	
27	겉고름길이/너비	39.5/2
28	속고름길이/너비	34.5/2
29	겨드랑이바대	
30	등바대	•
31	겨드랑이바대	
32	매듭단추나 고리	•
33	당	13×13
34	누비간격(길)	8
35	누비간격(소매)	8
36	옆트임	15.5

26. 開襠袴(솜 누비)

오물이 묻은 것으로 보아 수의일 확률이 많다. 겉은 紬로 하였는데 청록색 느낌이 나고, 안은 綿布이며 상색이다. 얇게 솜을 넣은 솜옷이며 3cm너비로 누볐다. 가랑이에는 15.5cm길이의 세모[三角]襠이 左右로 마주 여미도록 되어 있다. 트임 안쪽 단에는 紬로1.5cm너비의 곧 은선 단을 대었다. 허리둘레의 허리 막음에는 11×2cm너비의 여유 분을 두었다. 옷고름 한쪽은 있으나(66.5×3.5cm) 다른 쪽은 없다. 통의 너비는 45cm이며, 부리는 30×2cm너비로 부리 쪽이 좁아드는 바지형이다.

바느질은 박음, 홈질, 감침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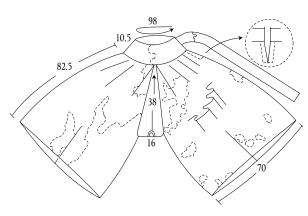
	부분	치수
1	바지길이	99
2	바지폭	45
3	밑위길이(內/外)	47/45.5
4	밑아래길이(배래)	56, 57
5	밑너비(上/下)	11.5
6	바지폭수	8
7	바지부리	30
8	허리둘레	86
9	허리너비	11.5
10	끈길이/너비	66.5/3.5
11	옆트임	11×2
12	옆트임의 당	•
13	밑의 당	15.5×15.5

27. 단속곳

홑옷이며, 성글면서 가는[細] 면포로 만들었는데 허리 일부와 바지통 일부분만 남아있다. 파손이 매우 심한데, 허리와 길이 및 밑의 일부가 남아있어서 원형을 살렸다.

허리주름은 중심 사이 부분에 밖으로 누이는 맞주름이 앞과 뒤 각각 2개씩 4개 잡혀있다. 밑바대는 겹인데 겉과 안의 한쪽 변 시접을 식서와 어슨선[斜線]으로 교차하여 바느질하였 다. 한쪽 바지 통은 네 폭으로 너비가 70cm×2이다. 끈은 너비 5.5cm 한쪽이 조금 남아있다. 바느질은 홈질, 감침, 박음, 밑단은 말아 감침하였다.





	부분	치수
1	바지길이	82.5
2	바지폭	70
3	밑위길이(內/外)	38
4	밑아래길이(배래)	44.5
5	밑너비(上/下)	1.5
6	바지폭수	16
7	바지부리	70
8	허리둘레	98
9	허리너비	10.5
10	끈길이/너비	· /5.5
11	옆트임	14.5
12	옆트임의 당	•
13	밑의 당	•

28. 廣多繪

길이 297cm(술 길이24.5×너비3cm) 너비1.8cm이며 상색이다. 진주 강씨 부회장 강필영씨가 시신의 수의에 매어있던 것을 수거하여 물에 2일 동안 담가두었다 한다. 물에 담갔더니 술의 망 장식이 있는 속에서 빤짝빤짝하는 것이 보였다 하는데 석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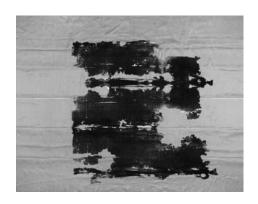
	부분	치수
1	크기	297×1.8
2	술길이/너비	2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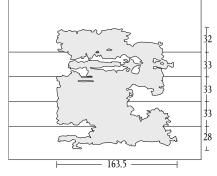
29. 大斂衾

겉과 안을 모두 면포로 만들었다. 겉은 쪽물을 들여 짙은 남색이며, 안은 성글고 부드러운 무명이다. 파손이 너무 심하여 크기는 현재 남은 것으로는 알 수 없다.

크기는 깃과 동정이 없어져서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겉의 길이는 163 cm이고, 다섯 폭이다(33cm 4폭과 28cm). 안은 흰 무명인데, 길만 겉과 비슷한 크기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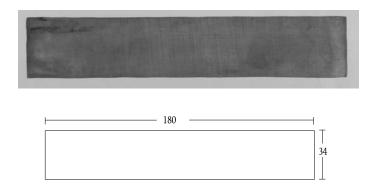
대부분 다른 출토유물일 경우 이불이나 요, 베개, 침구류는 비단으로 치례를 많이 하는데 본 유물에서는 殮布도 하나뿐이다. 남색(쪽염) 무명이 나온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바느질 은 홈질로 하였다.





30. 地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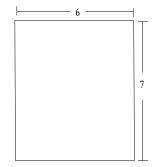
겹이며, 겉과 안을 모두 紬로 만들었다. 겉은 남색인데 상색 얼룩이 보이며, 안도 상색인데 녹색을 띠었다. 길이 180cm에 너비는 34cm이다. 너비는 다른 유물에서는 棺의 위쪽 머리부분은 넓고, 아래쪽의 발 부분은 좁은데 본 유물에서는 上下가 같다.



31. 五囊

머리카락과 좌우의 손발톱을 담는 주머니이다. 다섯개가 한 틀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유물에서는 墨書로 "左足"이라고 쓰여 있는 것 한 점 뿐이다. 옷감은 紬에 홑으로 되었 으며, 상색이다. 실밥 흔적은 있으나 바느질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크기는 펼쳐서 6×7㎝이 며 시접은 0.5㎝로 자국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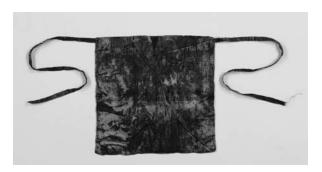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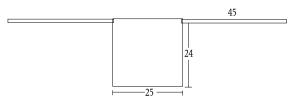


32. 幎目

주검의 얼굴가리개이다.

25×24cm로 겉은 남색 공단이며, 안은 상색 紬이다. 끈은 길이 45cm에 너비1cm 2개뿐이다. 바느길은 홈질로 성글게 하였으며 한쪽은 안이 겉보다 1cm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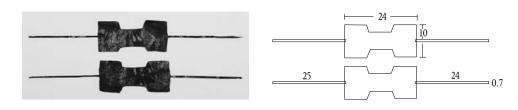




	부분	치수
1	크기	25×24
2	끈길이/너비	45×1

33. 幄手

손 싸개이다. 겹으로 겉은 貢繳인데 남색이고, 안은 紬이며 상색이다. 한 쌍이 모두 있는데 끈은 각기 두개씩 남아있다. 끈을 따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달렸던 흔적이 없다. 대부분 끈은 네개씩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같은 시기 趙儆(1541~1609년)²⁾의 악수에서는 끈이두 개뿐이며, 각기 중앙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예가 있고,³⁾ 심수륜(1534~1589년) 것은 엇갈려 양쪽으로 연결되었다.⁴⁾ 본 유물에서는 중앙에 연결하였다.



- 2) 豐壤趙氏로 武臣이다. 1583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다. 1593년 훈련대장이 되고, 선 조31년(1598)에 漢城府 判尹을 배수받고, 1604년 신무공신 3등이 되어 豐壤君에 봉해졌다. 장례는 1609년 國 葬으로 치렀다.
- 3) 서울역사박물관, 『趙儆墓出土遺衣』 123쪽, 2003
- 4) 경기도박물관, 『심수륜묘 출토복식』 233쪽, 2004

34. 帽

옷감이나 색은 명목과 악수처럼 겉은 공단에 남색으로, 안은 상색 紬로 되어 있다. 58×23cm 크기이며, 사방 홈질로 막음 하였고 한쪽은 흰실로 석땀 상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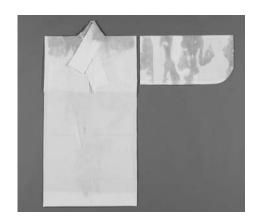
크기나 모양이 지금까지 다른 예로 보아 확인 할 수는 없지만, 본 유물에서 머리쓰개가 없으므로 帽로 대용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35. 袍(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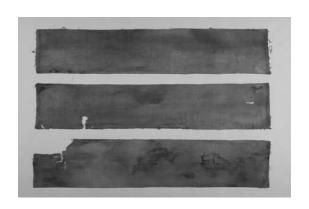
고운 綿布 겹으로 만든 것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부분의 바느질이 매우 정교하여 살렸다. 남아있는 것은 깃과 길 일부와 동정의 뒤쪽 일부이며, 총 기장은 94.5㎝이다. 이로 보아 上衣이며, 袍의 일부라는 것이 입증된다. 소매길 이는 모르지만, 소매통과 수구가 일부 남아 있는데 수구는 0.1㎝ 너비로 온박음으로 막음하고 어깨 목선에는 앞뒤와 어깨선으로 교차하여 고운 온박음(8㎝)을 하였다. 동정도 석땀상침으로 마무리하였다.



	부분	치수
1	길이	94.5
4	고대	17
7	소매통	30
8	수구	20
18	깃너비	11.5
24	동정너비	•
30	어깨바대너비	•

36. 紬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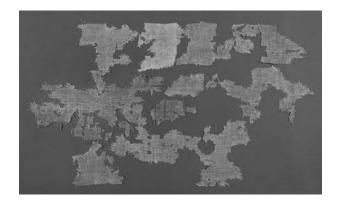
폭이 남아있는 紬 석장이다. 상색과 녹색을 띠며, 길이는 각기 182~184cm에 너비는 36cm이다. 용도는 棺의 내부에 배접하였던 것으로 본다.



37. 삼베조각

뒷면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強베(布)의 일부이며 丈베와 短베로 쓰였던 것이다. 백색인데 녹색을 띤 것도 있다.

일부는 바느질(홈질)된 것도 있는데 염포나 옷을 만들었던 일부였던 것으로 본다.



V. 출토유물의 특징

본 유물은 과도기적인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바느질이나 부분처리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는 조선 前期 廣大形에서 中期로 접어드는 短小化와 실용성을 겸하면서 새로운 것이 시도되고 변화하려는 기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 시기 출토유물로는 단국대학교 소장으로 세 건50 있다. 한편 시기가 조금후이긴 하지만 정양우(1574~1647년) 묘의 출토유물은 총 61점 중에서 袍類가 21점이며, 그중에서도 氅衣와 中致莫이 각 7점씩이 된다.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 특징은 氅衣와 中致莫이다른 袍類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점이다. 그런데 하음공의 유물에서는 창의나중치막은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시기적으로 하음공이 20여년 이 앞선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 때는 이 옷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인지, 아니면 미처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다.

하음공은 83세(1541~1624년)까지 장수하였다. 이때 국내사정은 선조25년(1592) 임진년에 倭軍이 침략하고 1597년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온 丁酉再亂까지 7년간의 전쟁을 겪고, 내부에서는 1623년 西人 일파가 광해군 및 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仁祖)를 옹립한 사건인 仁祖反正, 1924년(仁祖 2) 李适의 亂이 일어나는 등 복잡한 했다. 임진왜란 7년간 통하여 경제적인 파탄과 사회질서의 붕괘, 인명과 문화재 손실이 컸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 처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듯이 복식도 모양이나 바느질 등이 다른 시대의 출토 유물들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철릭이 여덟 점이나 되는데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모두 다르다. 특히 철릭 한 점은 많이 개조한 흔적이 있는데, 임진왜란 이전 전형적인 조선 전기의 모양과 바느질이 남아있다. 따라서 본 유물은 이 시기를 가름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옷의 변화 양상은 沒年은 다르지만 生年이 같은 비슷한 시대를 산 趙儆(1541~1609년)의 유물6과 모양이나 치수 바느질법이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 다른 유물들과 달리 두 유물

⁵⁾ 김함(1568~1598년), 정휴복(1529~1604년), 정양우(1574~1647년), 제주 고씨(1560~1630년).

^{6) 1998}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이장 중 출토되었다. 유물은 26건 27점이며, 獬豸흉배 1점, 의복류 총19점, 염습 구류 6점이다. 본 박물관에 의뢰하여 보존처리 하였으며, 본 자료로 2001년 박승원이 석사논문 「조경(趙儆) 묘 출토복식 연구」, 2003년 2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趙儆墓出土遺衣』를 출간 하였다.

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악수나 단령 등에서 나타난다. 악수는 대부분 끈이 두 개인데 중심에 하나뿐인 점과, 명주로 만든 단령에서 무가 전기에는 곧은 선[直線]으로 내리던 것이접어 줄임과 함께 뒷무를 세모로 접어 올리는 점, 角帶를 거는 고리가 겨드랑이 뒷부분에 있는 점등이다. 각대 걸개고리는 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趙儆의 단령 석점에서 보이고 있다.

출토유물에서 나타나는 색은 網色과 藍色 褐色이며 드물게 紅色계열도 보인다. 그러나 이색들은 처음에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상색이란 가을에 단풍이 든 누런 색으로 출토유물에서 가장 많은 보이는 대표적인 색이다. 다음으로 남색은 짙은 쪽빛인데 특히 무명이나 緞類에 많이 나타난다. 남색은 출토 후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과정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지만, 색은 남아있다. 갈색을 보이는 부분은 주로 옷고름이나 여성용 저고리의 회장 부분이다. 이 갈색은 처음에는 그림이나 기록 및 현대 옷에서 나타나듯이 紅色계열이였음이 분명하다. 홍색은 매우 드물게 조선 전기 모시로 만든 團領과 直領에서 보이며, 출토유물에서도 치마나 이불 명정 등에서 색의 잔재가 발견된다.

1. 옷

1) 단 령

석 점인데 겹 한 점, 홑 두 점이다. 겹으로 된 한 점은 壽衣였다. 모두 파손이 매우 심하고 바느질도 복잡하다.

겹으로 만든 수의는 옷감은 겉은 남색이고 안은 상색이며, 겉과 안은 무늬는 같지 않지만 蔓草花紋緞이다. 어깨바대는 雲寶紋紗로 하였다. 이 옷의 특징은 안이 半袖인 점이다.

홑 두 점은 매우 고운 熟網로 만들었으며 녹색을 띤 상색이다. 바느질이 옛쌈솔이나 홈질이며, 단처리는 곧은선의 덧단을 대었으며, 매우 정교하다.

석 점 모두 품이 좁아지고 섶여밈이 중앙으로 이동되는 것, 소매가 좁고 소매통이 진동보다 중심 쪽으로 조금 넓어지는 것, 각대고리가 달리는 것 등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 전기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고 있다.

2) 직 령

한 점이며, 단령 철릭 액주음과 함께 수의이다. 겹옷이며 겉은 남색인데 뒷부분이 상색으로 변한 흔적이 있다.

옷의 모양이나 구조는 깃 외에는 단령과 비슷하다. 조선 前期의 직령에 비해 소매통의 너비나 품이 좁은 편이며, 옆선으로 곧게 뻗은 무는 전기 것과 비슷하지만 앞쪽의 무가 뒤쪽무에 비해 작고 뒤로 접힘이 삼각을 이루면서 밑으로 퍼지는 것 등은 단령이나 답호와 같다. 따라서 직령도 옆이 트이고 무가 있는 다른 포류와 함께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답호

석 점이다. 모두 半袖이며 옷감은 蓮花蔓草紋紗, 雲寶紋緞, 熟綃로 하였다.

특히 본 유물은 袍類 중에서 바느질이나 모양 등에서 가장 혼돈을 이르키고 있다.

이중 깃이 안에 들어있고, 깃머리가 모판에서 변형된 것, 소매에서 수구 쪽 배래의 세모이음, 옆선 무에서 앞이 뒤 판보다 많이 좁은 것, 무접힘선의 이동, 옷고름 중에 고리가 있는 것 등이다.

이 옷 역시 고친 흔적이 있어 시대적으로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4) 철 릭

본 출토유물 중에서 여덟 점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다. 따라서 대부분 비슷한 모양이나 각기 조금씩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흔적이 보이며, 용도에 따라 색이나 무늬가 옷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수습 당시 파손이 심하였으나 보수하여 대부분 모양이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袍類 중에서 가장 간편한 것으로 겉옷으로, 또는 겉옷의 밭침용으로 이용되었다.

홑옷은 석점, 겹옷은 넉점, 누비1점이다. 색은 여섯 점이 網色이며, 두 점은 藍色이다.

옷감은 대부분 紬가 많은데, 무늬가 있는 것은 홑 것으로 雲寶紋緞과 모란만초문단 吐紬 熟綃 細紬 紬이다. 이외에도 깃이나 어깨·등·허리 등의 바대에 겉과 다른 옷감을 쓴 것이 있다. 옷고름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 될 수 있다. 내 개인데 모두 짧은 것, 네 개인데 짧은 것과 긴 것이 섞여 같이 있는 것이 있다.

이 가운데서 특별한 것은 잔주름과 이중깃으로 된 것 한 점이다. 많은 부분을 고친 것으

로 이 옷은 하음공이 관직을 가진 이른 시기에 입었던 것을 시대의 추세에 따라 고쳐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5) 直領袍類(道袍?)

결과 홑 각 한 점씩 두 점이 있다. 겹옷은 겉은 吐紬에 남색이며, 안은 紬인데 상색에 녹색을 띠고 있다. 홑옷은 紬로 만들었는데 제(올)실을 뽑아서 바느질하여 매우 정교하다. 겨드랑이에 襠이 달려있고, 당 아래 여유를 두고 아래로 트여있으며 앞과 뒷길은 매듭단추로 연결하였다. 이 옷의 구조는 조선시대 후기 도포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에서 연구대상이 된다.

6) 方領形上衣

조선전기 남자 옷에서 馬上衣로 적합한 옷으로 前長後短형이다. 쌍밀이 매듭단추(紐子, 둘마 귀)를 달고, 이중 깃과 섶, 겨드랑이의 襠과 아래로는 트임 등을 두어 실용과 멋을 내고 있다.

앞깃과 섶여밈에서 단추를 잠갔을 때는 우는데, 이는 입었을 때 가슴의 여유분을 고려한 매우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착안이라고 본다.

바느질은 홈질, 온박음, 감침, 상침으로 하였으며 단은 석땀 상침으로 하였다.

7) 액주음

다섯 점이 있다. 이중 하나는 수의이다.

모두 겹이며 옷감은 吐紬 紬 細紬로 하였고, 누비가 석 점인데 2.5~8.5㎝까지 고운 누비에서부터 굵은 것까지 있다. 옷고름은 길이나 너비에 따라 두 가지를 달았는데 너비가 넓은 것은 길이가 길어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매어 입었던 것이다. 옆이 중간에서 트인 것도 있다. 이는 활동이 간편하게 함과 동시에 보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늬가 없으며, 소매가 좁고, 옷고름으로 보아 직령이나 단령의 받침 躬(裏衣)이였다.

8) 저고리

두 점인데 겹과 홑 각 1점씩이다.

하나는 삼회장으로 길은 紬이며, 수구와 곁막이에는 보상화만초보문단을 여러 조각이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조각을 이은 일은 매우 드물다.

다른 하나는 명주 겹옷으로 굵게 넓게(0.8㎝) 누볐으며, 겨드랑이에 넓고 큰 襠이 있고 소매가 길다. 일반적이 저고리이지만 품이 좁은 편이다.

9) 속 곳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단속곳이고, 하나는 누비바지로 밑이 트인 開襠袴이다.

단속곳은 가는 木棉에 고운 바느질로 만든 것으로 파손은 심하지만 길이나 무의 치수 와 모양은 남아있다.

개당고는 허리 옆으로 여유분이 있으며, 부리가 바지형으로 좁아 졌다.

이와 같은 속옷은 통상적으로 여성들의 속옷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濟州 高氏 등 남 녀 한 가족의 유물이 같이 출토되거나, 남자들이 입고 있는 경우가 발견됨으로써 전기에는 남성들도 여성과 다름없는 속옷을 입었음이 알게 되었다.

10) 광다회

수의의 사용되었던 것으로 한 점뿐이지만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단령에 광다회를 매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출토물에 나오는 단령에는 布帶를 하에 角帶 모양의 무늬를 찍고 있다. 끈은 납작한 多繪이며 다회와 술 사이에 무늬를 넣어 짜고 끝에 술을 느렸으며, 무늬 안에는 석영을 넣어 반사 빛을 내게 하였다.

11) 엮습구류

寢具類로 이불 지요 배개와, 신체부위의 強襲具用 명목 악수 오낭이 있다.

이불과 악수 명목은 藍色으로 되어있으며, 특히 대렴금은 무명에 매우 짙은 남색이다. 대 렴금의 남색은 수세나 보수 중에 물이 빠지고, 손에 묻어나고 있다. 안은 성근 무명인데 흰 색과 쪽물이 얼룩져 있다.

명목이나 악수에서 끈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달리 하나뿐이라는 것은 흔치 않다. 다행이 五囊 중에서 파손이 심하여 모양은 알 수 없으나 左足하나가 있어 다른 오낭의 존재를 알 수 있다.

12) 섬유류 및 기타

유물가운데 명목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겉은 남색의 공단으로, 안은 상색인 것이 있다. 또한 두 겹의 木棉으로 만들었으며, 길이로 보아 袍類로 추정되는 옷이 있다. 부분이지만 매우 고운 바느질과 당시의 木棉류를 연구하는데 자료가 된다.

이외에 용도를 모르는 상색의 紬와 매우 심하게 파손된 삼베[麻布]조각들이 있다. 삼베는 본 유물에서는 없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이 된다.

2. 바느질

바느질은 홈질, (온)박음, 감침, 상침. 공그르기, 옛쌈솔, 사뜨기 등 우리 나라 전통바느질 기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일관유물들에 비해 바느질 솜씨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색 좋은 편은 아니다. 이는 옷의 용도나 종류 등 지니는 가치에 기준을 두고 이에 맞춰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달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직자의 官服중에 가장 上格인 團領이나 直領에서 나타난다. 단령 중에 여름 홑옷의 바느질은 옛쌈솔이나 단추, 제올(실)로 한 땀 한올씩 뜬 단이나 식서의 감침은 一品이다. 이외에도 方領, 숫자가 가장 많은 腋注 흡, 도포 등에서 정교한 솜씨를 볼 수 있다. 반면에 같은 단령이라도 무늬와 색이 있는 것인데도 매우 조잡한데, 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改造를 한 옷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 바느질을 통해서 바느질 線이 이동되거나, 옷을 뜯어서 개조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바뀐 옷들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보문단 철릭이다. 깃은 물론 주름선을 축소 시켜 이동시켰는가 하면, 주름이었던 일부를 안깃에 붙인 것 등이다. 또한 무의 자리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전기 옆선의 무는 곧 바로 옆으로 퍼져 나가서 上下의 균형이 곧 바르게 있던 것에서 겨드랑이 아래에서 밑단으로 어슷 내려 밑단이 허리보다 퍼지고, 겨드랑이 무는 세모로 접으면서 뒤로 넘기고 있다. 이러한 무의 밑단퍼짐 모양은 朝鮮 中期에 들어서면 어슷마름으로 처리하여 연결되고 있다.

특히 삼회장저고리에서 깃이나 무 소매에 무늬 조각을 이었는데 무에 아홉 조각이나 이어 붙였다. 이 옷에서 바느질은 매우 볼 품 없으나 시대적인 상황인가, 가정사정인가, 아니면 알뜰한 주부의 솜씨에서 나온 것일까 알 수 없지만 많은 자료가 된다.

본 유물에서의 바느질이나 이와 함께 옷의 구조와 모양에 매우 혼동을 이르키고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양식에서 중기로 넘어서는 유행의 과도기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3. 무 늬

총 아홉 벌에 있는데 구름[雲]문과 꽃[花]문으로 나뉜다.

구름문에는 단순한 雲紋과, 寶紋이 가미된 雲寶紋이 있다. 옷감은 緞과 紗에 있는데, 운보 문은 단령과 답호 한 벌에서 보인다. 운문은 두 개로 연속된 날개에 하나의 꼬리를 달고 사 이에 작은 寶紋들이 있다. 운문은 옷의 안쪽 바대 등 부속에 쓰였다.

花紋은 철릭이나 답호 저고리에 보인다. 모두 滿開한 寶相花를 중심으로 넝쿨이 싸고 있는가 하면, 사이에 작은 꽃들과 寶紋이 섞여있는 것도 있다.

4. 피륙과 色

모두 熟網, 紬, 吐紬, 無紋緞, 紋緞, 麻布(삼베), 綿布, 交織 등 아홉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紋緞은 아홉 건 외에 가장 많은 것은 紬類이다. 紬는 현재 통상적으로 明紬라고 하는 것으로 각기 너비와 밀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시대 겨울용으로 상류층에서는 옷의 안감과 裏衣재료로 쓰였지만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피륙이다. 기타綿布로 만든 것에는 파손상태가 매우 심해서 한 폭 너비는 대럼포에서 경우 알 수 있는 정도이며 開襠袴, 단속곳, 대럼포와 조각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삼베 조각은 아주 거칠게 짜여진 것으로 한 폭 너비를 알 수 없으나, 두께는 0.56mm로 피륙 중에서 가장 두껍다.

(표 1) 유물에 나타난 피륙의 너비와 두께 명칭 너비(cm) 두께(mm) 비

피륙명칭	너비(cm)	두께(mm)	비	고
熟綃	35.5 ~ 40	0.13 ~ 0.19	5 건 : 단령 답호 철릭	도포
紬	31 ~ 39	0.15 ~ 0.25	43건 : 겉감 안감 동정	니
緞	58 ~ 66	0.21 ~ 0.36	9 건 : 단령 철릭 답호	저고리 염습구 등
紗	59.5 ~ 64.5	0.14 ~ 0.15	3 건 : 단령 답호(부속)	철릭(부속)
交織	31.5 ~ 34.5	0.21	2 건 : 철릭 방령	

色은 크게 두 가지로 糊色과 藍色이 보인다. 평상복이나 裏衣, 또는 안감은 모두 상색이다. 남색은 團領이나 腋注音 直領 등 官服類의 겉옷과, 염습구로 명목 악수 대렴금에 쓰였다. 출토유물에 나타나는 상색은 원래 염색을 하지 않은 素色인데 관속에서 오랜기간 동안시신과 土壤속의 상황에 따라 변하면서 생긴 색이다. 한편 紅계통이나 남색 황색 등도 변하여 상색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유물에서도 壽衣로 입었던 옷에서 겉이 남색인단령이나 直領을 보면 주검[屍身]의 몸이 눌려 닿았던 등판 부분은 상색으로 완전히 변해있다. 그런가 하면 명목이나 악수 등에 남아 있는 藍色은 內質과 직접 닿았던 부분이지만 겹이며 겉이므로 그냥 남아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남색(藍染)의 특성상 장기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색은 거의 변하여 알 수 없는데, 다른 출토유물 중에 모시옷에 홍색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 유물에는 더러 상색에 녹색을 띈 것들이 있다. 이것은 남색이었던 것인데 물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남색 물이 스며든 것인지 애매하다.

Ⅵ. 맺음

이상 약 30여 점의 유물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물들은 조선시대 前期樣式에서 中期로 넘어가는 어수선한 시기를 거치는 과도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여러 점의 袍類에서 새로 개조한 것이 많은 것도 본 유물의 특징이다. 이는 가정형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행의 변환기에서 시세를 따르기 위함이었는지 모르지만 복잡한 難題를 안고 있다. 철릭이여덟점인데 모두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점이나, 특히 直領袍類로 분류시켰지만 중기에 나타나는 直袍類 樣式과 연결되는 袍가 주목된다. 본 유물은 옷의 크기와 모양 및 바느질이 변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드문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2005년 石宙善紀念博物館은 개관24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학술세미나 23회와 특별전시 24회를 열어왔으며, 발표에 대한 연구자료집 『韓國 服飾』도 금년으로 23호를 냈다. 그 중에서 출토복으로만 19회가 된다.

출토유물전시는 1981년 5월2일 개관을 치르고, 그해 7월에는 개관기념 행사의 일환에서

廣州李氏 유물로 첫 "壽衣特別展"(7월13일~19일)을 열었다. 지금도 변함없지만 얼마나 열약한 환경이었는가. 출토유물 같은 특수한 유물을 정리할 인력이나 공간은 물론, 전시할 공간이나 진열장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1전시실 입구 박물관 홀에 노출 전시했다. 무덤에서나온 것이라 냄새도 나고 처음에는 두렵고 꺼려하던 유물이 거듭되는 동안 호기심과 함께가치를 알게되었다. 관람객가운데는 유물을 뒤집어 보는가하면, 열성적인 사람은 용감하게자를 가지고 치수를 재기도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전시물은 흐트러지고 볼펜자국이나 다른오물자국을 묻히는 일들도 있었다. 雪上加霜이라는 말처럼 5월에는 바람과 비가 많은 시기다. 유물을 노출시켜 발가벗겨놓은 것도 부끄럽고 걱정인데 거센 바람과 함께 줄곧 비가 올때면 몇 번이나 가슴 조이고 하늘을 원망했는지 모른다.

출토유물을 다루는 일은 처음에는 "그저 하는 것"이라고, "해야하는 것"이라고, "맡겨진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모든 조건(시설, 인적자원, 경제력 등)을 갖춘 기관에서 그럴듯한 정리를 하고, 화려한 보고서가 나오고, 전시를 열고 있다. 모두들 출토복에서는 가장 앞선 연구, 선각자라고 자처하고 있다. 그런 것 같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그런 옛 조상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은 효력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 기틀을 마련하신 故 난사 석주선선생님의 근검 절약정신을 이어 '이 없이 잇몸으로' 오늘까지 이어왔다. 하나 둘의 연구원만으로 벅찬 일들을 치르다가 난사선생님이 가신 다음 맡으셨던 민속학연구소가 전통복식연구소로 바뀌면서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2000년 대학원 전통의상 학과가 생기면서 수업시간(출토복식보수)이나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또 사회교육원의 전통복식과정 학생들 함께 한 결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내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내[川]를 건너지 않고 어찌 깊이를 알리"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되새긴다. 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출토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하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한 인내가 필요한가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또 넝마로도 쓸 수 없는 한 조각이나 실 올, 바느질 한 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모양이 번듯하고 좋은 것만 쓰임이 아니라 매듭 한 부분, 실 한 올, 바늘 한 땀이 모두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필요한 부분임을 알게되었을 것이다.

항상 출토유물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갈 때면 설레이고 가슴이 뛴다. 이번엔 무엇을 주실 것인가. 얼마나 큰 덤을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에서이다. 그 기대는 절대로 저 버리지 않았고 헛되지 않았다. "그 동안 수고했으니 이번에 이것이다"하고 꼭 주셨다. 옷깃 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前生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까? 그래서 알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분들과 만나면 고맙고, 반면에 기대와 두려움이 큰 것이다. 1978년부터 해마다 출토현장에 가고 그 유물들을 다루었으니 이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자부한다. 인적사항만 알면 어떤 유물들이, 어떤 무늬가, 어떤 바느질이, 몇 점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는 가름된다. 그러나 꼭 엉뚱한 문제거리를 주신다. 이것을 덤(보너스)이라고 한다. "너가 했으면 몇 해 했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것도 아느냐?"하시는 것이다. 그 냄새, 그 숱한 시간들이 어려웠지만 이 맛이다. 이 보너스에 한다.

해마다 이런 전시를 열면서 이를 남기신 故人과 기증해주시는 宗中께 감사드린다.

이 유물들을 통하여 이론으로 막히고, 실물자료가 없어 헤매던 한국복식사 연구에 얼마나 크고 바른 길을 열어 주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바느질, 크기, 모양, 피륙의 종류, 무늬, 있었다 없어지는 것들, 새로 생겨 나는 것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주심에도 아직도 그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때는 이 옷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였을까. 다른 지방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디서 짠 피륙일까? 값은얼마나 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 투성이이다. 옷고름 하나를 제짝 찾아 주기위해 몇 시간을 어정대던 때, 이름을 몰라서 답답할 때면 꿈속에서라도 가르쳐주시기를 바랐지만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유물을 정리하다보면 이상하게도 보채는 미운 아이처럼 자꾸꼬이는 것이 있다. 귀찮지만 더 한번 보면 그럴 땐 꼭 덤을 주신다. 뭔가를 알려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조선 후기 유물을 다룰 때였다. 넓은 주름이 있는 철릭이었다. 주름을 잡아서 반듯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뒤틀린다. 아예 맘을 진정하고 처음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여러 번 열심히 했을 때도 안 보이던 것이 있었다. 가장자리(邊)에 피륙을 생산해 낸 地名과 공장 이름을 새긴 것이 눈에 띠였다. 아! 이걸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먹였구나. 감사할 수밖에…. 이 맛에 다시 외롭고 고달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갈 수로 커 가는 두려움. 과연 이거 제대로 잘 하는 것일까? 조상님께 꾸지람이나 받지 않을까? 후배들에게 잘못 처리했다고 질책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번도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부족 한 점은 질책을 받겠습니다.

이 발표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유물출토 현장과 종중을 다리를 놓아주신 윤훈덕 선생님, 유물을 쾌히 기증하여 주신 종중의 전 회장님 姜鎬範과 현재 姜欽湧회장님, 강창구 총무님, 유물이 본 박물관으로 기증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습하고 보관하던 광다회를 직접 가져오고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종중 부회장 강필영님, 이사회가 끝나고 직접 오셔서 작업결과 를 격려해주신 종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개벽하는 바람에 400년 동안 계셨던 幽宅을 떠나고, 입으신 옷 모두 뺏기신 靈前에 미안함과 한없는 고마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이 일을 위해 노력한 연구원, 학생들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바느질 연구

금 종 숙(本 박물관 조교)

목 차 |

- I. 머리말
- Ⅱ. 유물의 특징
- 1. 임진왜란전후 유물
- 2. 진주강씨 유물
- Ⅲ. 유물의 바느질법
- IV. 맺 음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바느질 연구

Ⅰ. 머리말

2001년 11월 10일 경기도 파주 교하읍 초당공파 진주강씨(晋州姜氏 大虎, 1541~1624년)묘에서 3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묘주의 생몰년대는 壬辰倭亂 전후에 걸쳐 있으며, 이 시기는 조선시대 복식사적인면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양분되는 변화들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출토 유물이 문헌에 의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안해 주어 그 시대의 복식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진주강씨 복식은 생몰년대가 임진왜란전후로 걸쳐 있다는 점과, 임진왜란전의 대표적인 남자복식 종류가 골고루 있다는 점 등이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고는 진주강씨와 같은 연대인 임진왜란전후의 유물들을 통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진주강씨 유물의 특징과 바느질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유물의 특징

1. 임진왜란전후 유물

임진왜란전 남자의 복식은 단령과 직령 답호 철릭 액주음 등이 대표적이며, 단령 철릭 도 포은 임란후를 거치면서 형태가 세부적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는 직령형의 답호나 액주음은 사라지게 되며 창의 등이 새로이 보이게 된다.

이 시기 보고된 유물들은 다음과 같다.

단령과 답호에서 조경(1541~1609년)과 진주강씨(1541~1624년)의 유물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를 길과 연결할때 무를 따로 재단하지 않고 삼각형으로 접어서 홈질하여 길과무를 분리선을 만들었다. 또한 이중섶은 조경의 유물에서는 단령 답호 액주음 직령의 겉섶에, 진주강씨 유물 또한 단령 직령 답호 도포 액주음에도 이중섶으로 되어 있다. 이후 정광경(1586~1644년)의 도포에서는 겉섶에 이중섶이 작아 졌음을 알 수 있으며, 점차 이중섶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른점은 답호의 깃 형태이다. 조경의 답호는 모두 칼깃이나, 진주강씨의유물의 깃은 여자 저고리에서 보이는 목판식 당코깃과 조금 비슷한데 깃머리 부분의 직선이 1.5㎝ 정도로 매우 좁다.

이 시기의 도포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장기정씨(1565~1614년)의 유물에는 모시홑도포와 아청명주겹도포가 있다. 홑도포는 무에 외주름이 있어 왼쪽은 앞길에 오른쪽은 무쪽에 고정이 되어 있으며, 겹도포는 겹주름으로 되어 앞길에 고정되어 있다. 또한 김약(1559~1625년)))의 유물에서는 양쪽겨드랑이에 5㎝의 주름이 잡힌 무가 각각 있는데 겹주름 부분은 포의 앞길에 고정되어 있다. 발표 도록에서는 "양쪽 무의 주름을 펴고 한판(汗版)을 달아 앞길로 넘겨 고정시키면 도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진주강씨의 유물에서는 겹과 홑 각 한점이 나왔는데 모두 주름을 두 번 접어 앞길에 고정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도포는 조선전기 도포의 초기형태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게 되었다.

액주음은 정휴복, 조경, 제주고씨의 유물에서도 나타나며, 본 유물에서는 5점이 되며,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¹⁾ 安東大學校博物館,『安東地域傳統服飾』,5쪽,安東大學校博物館圖錄1,1996

[표 1] 임진왜란전후의 출토유물

묘주 (생몰연대)	남자복식류	소장처 (출토지)	출 처
정휴복 (1529~1604)	단령1, 직령6, 액주음포3, 반수직령포(답호)1, 철릭 4, 저고리1, 바지 등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성남시)	『韓國服飾』 제7호 (1989)
조경 (1541~1609)	홑단령3, 홑·겹 철릭3, 누비액주음포3, 홑 답호2, 솜포1, 겹직령포1, 겹창옷(중치막)1, 겹저고리3, 겹방령형상의1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 화성군)	『趙儆墓出土遺衣』 (2003)
장기정씨 (1565~1614)	홑·겹도포2, 솜누비소창의1, 솜누비중치막 1, 솜저고리2	안동대학교박물관 (경북 포항시)	『포항 내단리 장 기 정씨 묘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 (2000)
이용해 (1547~1626)	단령4, 철릭6, 도포3, 창의9, 직령포3, 방령3, 주의1, 저고리1, 이불, 요, 종교, 횡교, 자리 5건 17점, 기타19	충주박물관 (강원도 원주시)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2004)
고여우(父) (1560~1630) 고경행(子) (1590~1650)	저고리류l6, 단령2, 액주음2, 옆트임 직령포 3, 철릭2, 염습구류, 부장품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천안 풍세면)	『韓國服飾』 제15호 (1997)
문익신 (1556~1645)	명주솜창의1, 명주솜누비직령포1(주의), 명주누비저고리1, 무명솜저고리1, 명주누비솜 바지1, 무명솜버선3	동아대학교박물관 (경남 합천)	심부자, 전혜숙 『服飾』10호 (1986)
정광경 (1586~1644)	직령포(도포)l	경기도박물관 (서울 사당동)	『동래정씨묘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 (2003)
정양우(父) (1574~1647) 정태제(子) (1612~1669)	모자, 모류, 단령, 금사쌍학흉배, 도포2, 철 릭2, 창의7(대창의2포함), 중치막21, 직령포4 (광수주의2포함), 배자1, 답호류(방령의)3, 적 삼·저고리5, 바지류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여주)	『韓國服飾』 제8호 (1990)

2. 진주강씨 유물

團領 3점, 直領 1점, 褡護 3점, 帖裏 8점, 直領袍類(道袍?) 2점, 方領形上衣 1점, 腋注音 5점, 開襠袴 1점, 저고리 2점, 단속곳 1점, 廣多會1점, 大斂衾 1점, 地褥 1점, 幎目 1점, 幄手 1점, 五囊 1점, 帽(?) 1점, 袍(?) 1점, 紬(3조각), 피륙조각 등 37점에 이른다.

진주강씨의 유물은 다음과 특징을 가진다.

첫째 수의로 겹단령(단령+답호형식), 철릭, 액주음을 착용하였다. 이는 조선전기의 단령-

답호-철릭 일습의 착용 실례를 볼 수 있다.

둘째 단령, 답호, 저고리등 옷감을 조각조각 이어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의 물자부족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홑단령 2점등의 바느질은 식서를 그대로 수직감침하는 방법으로 아주 정교하였다.

넷째 雲寶紋緞 철릭의 등솔이나, 겉섶선의 바느질선이 이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고쳐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답호의 안깃이 이중깃으로 되어 있으며, 무를 따로 재단하지 않고 삼각형으로 접어서 선을 만들었다.

여섯째 남자바지의 묘에서 개당고, 단속곳등이 있어 여자바지와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진주강씨 유물목록

번	번 유물명		유형 유형			피르	특 징	
호	파돌병	홑	겹	솜	누비	피륙	ল ও	
1	단령①		0			모란만초문단	안의 옷의 소매가 반수(식서로 끝이남), 단추고리 있음, 凹자형 어깨바대	
2	단령②	0				숙초	바느질 정교함, U자형 어깨바대	
3	단령③	0				숙초	바느질 정교함, 凹자형 어깨바대	
4	직령		0			토주	겨드랑이바대가 겉에서 온박음으로 되어있음	
5	답호①	0				운보문단	안깃- 이중깃, 일자형 어깨바대	
6	답호②	0				연화만초문사	안깃- 이중깃, 일자형 어깨바대	
7	답호③	0				숙초	凹자형 어깨바대	
8	철릭①	0				운보문단	이중깃, 뜯어서 다시 바느질한 흔적, 일자형 어깨바대	
9	철릭②	0				모란만초문단	凹자형 어깨바대	
10	철릭③		0			토주	겉・안 함께 주름잡음	
11	철릭④	0				숙초	U자형 어깨바대	
12	철릭⑤		0			교직	겉・안 함께 주름잡음	
13	철릭⑥		0			세주	겉・안 함께 주름잡음	
14	철릭①				0	주	길고 넓은 고름 1쌍, 짧고 좁은 고름 1쌍	
15	철릭®		0			토주	겉・안 함께 주름잡음	
16	직령포류 (도포?)①		0			토주	겨드랑이에 5cm 주름 2개가 앞길에 고정	
17	직령포류 (도포?)②	0				숙초	겨드랑이에 5cm 주름 2개가 앞길에 고정	
18	방령형상의		0			교직	쌍밀이 단추로 여밈	
19	액주음(1)		0			토주	뒷 트임에 사뜨기가 있음	

비송	0미대	유형			피르	E T	
번호	유물명	홑	겹	솜	누비	피륙	특 징
20	액주음②		0			토주	트임에 연봉매듭끈이 있음
21	액주음③				0	주	트임에 도래매듭끈이 있음
22	액주음④				0	주	길고 넓은 고름이 있음
23	액주음⑤				0	세주	트임에 도래매듭끈이 있음
24	저고리①		0			보상화만초보문단/ 주	조각조각 이어서 붙임
25	저고리②				0	주	檔이 매우큼
26	개당고				0	주	가랑이 부분에 2개의 權이 있음
27	단속곳	0				면포	파손이 매우 심함
28	광다회					견사	술안에 운모가 있어 반짝임
29	대렴금		0			면포	파손이 매우 심함
30	지요		0			주	상태가 양호함
31	명목		0			공단/주	겉감과 안감의 길이가 차이남
32	악수		0			공단/주	끈이 가운데로 달렸음
33	正囊		0			주	'右足' 이라고 쓰여있음
34	모(?)		0			공단/주	면실로 석땀상침 있음
35	포(?)		0			면포	깃과 동정, 등솔의 바느질 체크 가능
36	紬 3조각	0				주	1폭 그대로 남아 있음
37	피륙조각	0				삼베	홈질이 되어 있는 조각있음

Ⅲ. 유물의 바느질법

1. 단령(3점)

단령은 모두 3점으로 겹 1점, 홑 2점이 있다. 겹단령은 겉과 안을 각각 만들어 무 부분만이 징궈져 있었다. 2점의 홑단령은 바느질이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다.

1) 단 령①

겹옷이다. 겉은 牧丹蔓草紋緞으로 된 단령인데 안은 牧丹蔓草紋緞의 무늬로 만든 반수(半袖)의 답호 형태의 옷이 있다. 전체적으로 성근 홈질로 하였다.

(1) 단 령

진한 藍色이 남아 있으며, 어깨바대와 고름은 雲寶紋紗로 되어 있다. 겉과 안이 그대로 겹쳐있는 형태로 안의 시접이 몸에 닿는 부분으로 나와 있다.

가.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 등솔은 홈질을 하여 시접을 가름솔로 하였다. 어깨바대는 길이 27.5cm, 너비 40cm의 凹자형으로 양쪽에는 바느질하지 않고 어깨선부분에는 길과 감침을 한 후 앞・뒤를 공그르기로 하였다. 옆선은 파손이 심하여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겨드랑이바대는 가로 9cm, 세로 6.5cm로 만들어 공그르기하였다. 도련은 3cm 너비의 제물 안단을 공그르기로 마무리하였다.

나. 깃

깃은 엇선으로 재단하여 반을 접어 안에 솜을 말아 넣은 후 홈질을 하여 곡선으로 둥글 려서 겉깃과 안깃을 같이 길에 1.5㎝ 간격으로 한땀상침하여 길에 고정시켰다. 깃의 끝부분 과 오른쪽의 고대부분에 매듭단추를 달아 깃을 고정시켰다. 매듭단추는 꼬아서 연봉매듭과 고리를 만들어 부착하였다.

다. 섶

겉섶과 안섶은 모두 홈질을 하였으며, 시접은 가름솔로 하였다. 겉섶선과 안섶선의 바깥 부분은 너비 2.5㎝의 곧은센i直線! 덧단을 대었다.

라. 소매

진동쪽 소매는 홈질하고 시접은 가름솔 하였다. 수구는 2.5cm의 제물단으로 공그르기를 하였다. 배래는 0.3cm시접의 통솔을 하였다.

마. 무

무는 따로 재단하지 않고 진동점에서 2.5cm 내려 와서 위에는 2cm, 아래는 0.5cm로 삼각형으로 접어 홈질하여 길과 무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었다. 무의 윗부분에는 28×26cm의 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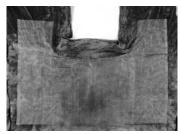
심지로 들어 있어 같이 고정되어 있다.

바. 고름

겉고름은 雲寶紋紗로 홈질을 하여 가로 36.5cm, 세로 1.5cm로 만들어 겉섶과 겨드랑이에 박음으로 고정 시켰다. 안고름은 안깃 끝부분에 길이 28.5cm, 너비 1.5cm, 겨드랑이 부분에 길이 25.5cm, 너비 1.5cm로 만들어 박음으로 고정 시켰다.

사. 각대고리·바대

각대고리는 길이 15.5cm, 너비 2cm로 만들었다. 각대고리가 달릴 위쪽에는 안쪽에 바대를 가로 3.5cm, 세로 3cm로 만들어 공그르기로 달려 있다. 각대고리 아래는 겨드랑이바대에 고 정 되어있는데 반박음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 1〉등바대(겉)



〈사진 2〉매듭단추



〈사진 3〉 깃 안쪽

(2) 답 호

半袖이며, 牧丹蔓草紋緞으로 만든 홑옷이다. 袖口에는 식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가.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 등솔선은 성근홈질로 하여 시접을 가름솔로 하였다. 어깨바대는 높이 35.5cm, 너비 25cm의 凹자형으로 앞뒤를 공그르기로 하였다. 옆선은 박음을 하였으며, 파손이 심해 시접의 방향은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겨드랑이 바대는 가로 11.5cm, 세로 8cm로 만들어 공그르기로 바느질하였다. 도련은 2.5cm의 제물단으로 공그르기하였다.

나. 깃

칼깃이면서 깃의 끝부분에 모가 나있다. 깃은 겉깃과 안깃을 양끝에서 홈질하고 고대부분

에 창구멍으로 뒤집는 형태이다. 따라서 뒷고대 부분은 감침이 되어 있다. 동정의 너비는 겉에는 11cm, 안에는 12cm로 거의 깃의 너비만큼이며, 2.5cm 간격으로 한땀상침 하였다.

다. 섶

겉과 안섶은 모두 홈질이며, 시접은 가름솔로 하였다. 겉섶은 3cm 너비의 곧은선 덧단으로 홈질해서 공그르기로 마무리하였다. 안섶은 2.5cm 너비의 곧은선 덧단으로 공그르기 하였다.

라. 소매

길게 한폭으로 되어 있다. 수구의 끝은 그대로 식서를 사용하였다.

마. 무

무는 따로 재단하지 않고 삼각형으로 접어 홈질하여 길과 무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었다. 앞의 무는 위를 5cm로 하여 도련선까지 접어주었으며, 뒤의 무는 위를 1cm로 하여 무 길이 의 절반정도인 48.5~55cm 길이로 홈질해 주었다.

바. 고름

겉섶쪽에는 깃과 섶에 걸쳐 길이 2.5cm, 너비 0.4cm의 고리가 박음되어 있다. 이 고리는 고리가 간접부착형임을 알 수 있다. 안고름은 안섶쪽 안깃 끝에 달려 있다. 길이는 28cm, 너비 1.5cm로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 겉에서 박음하였다.



〈사진 4〉 겉깃



〈사진 5〉 단추고리







〈사진 6〉 등바대(안)

〈사진 7〉 안깃

〈사진 8〉 겨드랑이바대·고름

2) 단 령②

熟網로 만든 홑 단령이다. 전체적으로 옛쌈솔, 온박음, 수직감침, 말아감침등으로 바느질이 매우 정교하다. 특이한 것은 등솔선, 각 폭의 이음선에서 두폭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수직감침을 하여 시점이 0.1cm도 안되도록 한 것이다.

(1)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다. 등솔은 양쪽의 식서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수 직감침을 하여, 시접은 0.1cm도 안되었다. 어깨바대는 길이 20cm, 너비 34cm의 U자형으로 양쪽 어깨부분을 제외한 앞부분과 뒷부분을 수직감침 하였다. 옆선은 파손이 심하여 측정할수 없었다. 겨드랑이 바대는 가로 7.5cm, 세로 14cm로 온박음 하였다. 도련은 3cm의 제물안단으로 수직감침으로 하였다.

(2) 깃

엇선으로 마름질하여 가운데 솜을 말아 넣어 홈질하였으며, 깃을 곡선으로 굴렸다. 겉깃과 안깃을 길과 함께 옛쌈솔로 시접이 위로 가도록 바느질하였다. 겉섶쪽 깃 끝부분에는 숫단추를 달아 고대부분의 암단추와 걸어 깃을 고정 시켰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옛쌈솔로 바느질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옛쌈솔"이란 바느질법의 일종으로 유물에서는 발견되지만 현재는 사라졌기 때문에 "옛 '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으로 조선후기까지도 홑옷에 많이 쓰였다. 지금의 "쌈솔"과 비슷하나 쌈솔은 두 솔기를 모두 편편하게 하지만 옛쌈솔은 안으로 두 솔기를 온박음 후에 한쪽편을 말아서 감침하여 안쪽의 시접 부분을 보면 약간 볼록한 모양(오메가형: Ω)이며, 겉에는 배래

의 완성선과 평행이 되도록 바느질 땀 자국이 나타난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양쪽의 식서를 이용하여 수직감침을 하였으며, 시접은 0.1cm도 안된다. 수 구는 3cm 너비의 제물안단으로 수직감침 하였다. 배래는 옛쌈솔을 하여 시접이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5)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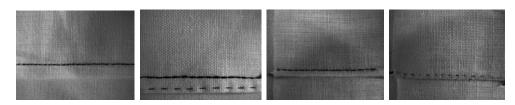
길과 무의 이음은 옛쌈솔으로 바느질되었다. 위에는 말아감침으로 되어 있으며, 3cm의 제물안단을 수직감침 하였다.

(6) 고 름

겉고름 한쌍(2개)이 남아 있다. 한쪽은 식서를 사용하였으며, 한쪽은 말아감침으로 하였다. 두 개의 고름은 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길에 붙는 부분의 너비가 좁아지게 하였다.

(7) 각대고리·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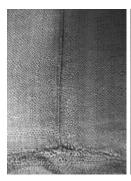
각대고리는 길이 15cm, 너비 1cm로 3줄의 박음선이 있다. 고리는 겨드랑이바대에 부착하였다. 부착하는 방법은 현대의 바지 허리에 다는 고리 형식이다.



〈사진 9〉 옛쌈솔 바느질 방법3)

²⁾ 高富子, 「충남 예산 출토 坡平尹氏(女, 1735~1754)유물 연구」, 156쪽, 『韓國服飾』제21호,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3

³⁾ 금종숙,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법연구, 71쪽,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사진 10〉이유선

〈사진 11〉 각대고리

〈사진 12〉 안깃

〈사진 13〉매듭단추

3) 단 령③

熟綃로 만든 홑 단령이다. 바느질은 옛쌈솔, 수직감침, 박음, 말아감침이 되어 있다.

(1) 길

앞・뒤가 연결되어 있으며, 등솔선은 옛쌈솔로 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어깨바대는 길이 25cm, 너비 40cm의 일자형으로 양쪽 어깨부분을 제외한 앞부분과 뒷부분을 수직감침 하였다. 옆선은 박음하였다. 겨드랑이 바대는 2개가 있다. 겉에 있는 사각형의바대는 가로 8cm, 세로 10cm로 온박음 하였다. 안의 바대는 길이 12cm, 너비 3의 옆선에서소매로 가면서 굽은 형태이다. 도련은 2.5cm의 제물안단으로 수직감침으로 하였다.

(2) 깃

겉깃과 안깃은 엇선으로 마름질하여 가운데 솜을 말아 넣어 홈질하였으며, 길과 옛쌈솔로 하였다. 쌍밀이로 단추를 만들어 겉섶쪽 깃 끝부분에는 숫단추를 달아 고대부분의 암단추와 걸어 깃을 고정 시켰다.

(3) 섶

겉섶은 옛쌈솔로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으며, 곧은선 덧단은 3cm로 수직감침 하였다. 안섶은 감침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으며, 곧은선 덧단 2.5cm로 하여 수직감침 하였다.

(4) 소 매

진동쪽의 소매는 식서를 이용하여 정교한 수직감침으로 하였다. 수구는 3cm 너비의 제물

안단으로 하여 수직감침 하였다. 배래는 옛쌈솔로 하여 시접을 앞으로 넘겼다.

(5) 무

길과 무의 연결은 옛쌈솔로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무의 위쪽에는 말아감침을 하 였으며, 끝에는 3cm 너비의 제물안단으로 수직감침 하였다.

(6) 고 름

겉고름은 겨드랑이 부분의 것이 남아 있다. 한쪽은 식서로, 한쪽은 말아감침을 하여 길에 다는 부분의 너비가 좁도록 하였다. 안고름은 겨드랑이 부분의 것이 남아 있으며, 겉고름과 같은 형태이다.

(7) 각대고리·바대

각대고리는 길이 11.5cm, 너비 1.5cm로 석줄 박음을 하였다. 고리는 겨드랑이 바대에 부착 하였다. 고리는 바대에 대고 박음을 한 다음에 위로 올려 박음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 박음 하고 다시 고리를 아래로 하여 박음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진 14〉매듭단추 〈사진 15〉옛쌈솔(배래) 〈사진 16〉겨드랑이 바대 〈사진 17〉각대고리

[표 3] 단령의 바느질 비교

	구분	단령	! ①	단령②	단령③	
내용		겉	안	호	훋	
	등솔	홈질	홈질	수직감침	옛쌈솔	
	어깨바대	공그르기	공그르기	수직감침	수직감침	
길	옆선	♦	박음	*	박음	
	겨드랑이바대	공그르기	공그르기	온박음	온박음, 감침	
	도련	공그르기	공그르기	수직감침	박음	
	겉깃	함께 한땀상침	홈질	에싸소	તો મો રુ	
깃	안깃	함께 안담경점	홈질	옛쌈솔	옛쌈솔	
	동정	×	한땀상침	×	×	
L.	겉섶	홈질	홈질	옛쌈솔	옛쌈솔	
섶	안섶	홈질	홈질	옛쌈솔	박음	
	진동	홈질	×	수직감침	수직감침	
소매	수구	공그르기	끝이 식서임	수직감침	수직감침	
	배래	통솔	통솔	옛쌈솔	옛쌈솔	
무	무와 길이음선	삼각형으로 찝어 홈질	삼각형으로 찝어 홈질	수직감침	옛쌈솔	
	고름	홈질	홈질	말아감침	말아감침	
	단추	옷감을 꼬아 만듬	•	쌍밀이	쌍밀이	
부속품	각대고리	반박음	•	박음	박음	
	각대고리바대	공그르기	•	•	•	

◆: 정확한 측정 불가

2) 직 령

겉감은 藍色의 吐紬이며, 안감은 상색의 紬로 된 겹옷이다. 특징은 깃의 이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상침이 되어있다. 상침은 안감의 처짐 방지와 안감과 겉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겉에는 두땀, 안에는 석땀으로 보인다. 바느질은 거의 홈질이며, 겉감의 홈질이 안감보다 정교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다.

(1) 길

등솔은 겉과 안 모두 홈질이고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파손이 심하여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겨드랑이바대는 가로 4cm, 세로 3.5cm로 겉에 있으며, 위에서 온박음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도련은 홈질을 하였다.

(2) 깃

겉깃과 안깃은 모두 홈질이다. 동정은 달았던 실이 조금 남아 있어 치수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길이는 67cm, 너비는 7.5cm이다. 안섶쪽 안깃끝에는 온박음이 되어 있다.

(3) 섶

섶은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섶끼리의 연결은 홈질로 시접의 방향은 길쪽에 있는 섶으로 넘겼다. 섶과 길의 연결은 모두 홈질로 시접의 방향은 길쪽으로 넘겼다. 섶에는 석땀상침이 끝에서 3.5㎝ 떨어져서 7㎝ 간격으로 되어 있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을 가름솔로 하였다. 수구는 홈질로 되어 있으며, 석땀상침이 끝에서 4㎝ 떨어져서 5.5~6㎝ 간격으로 되어 있다. 檔은 가로·세로 2㎝이며, 박음을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길쪽에 당의 위치는 이음선의 시접을 이용하지 않고 길의 옷감에 바느질하여 자른 것이다.

檔은 진동선 겨드랑이 부분에 달린 것으로 접힌 상태에서는 삼각 모양으로 보인다. 당은 조선전기의 袍나 저고리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름할 때는 사각형으로 하는 것과 삼각형 두 개를 마름하여 가운데를 바느질하는 것이 있다. 당은 실용성과 멋을 곁들여 다는 것으로 다른곳에 비해 견고하게 주로 박음이나 반박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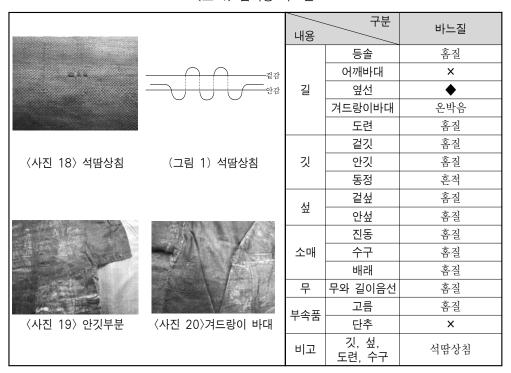
(5) 무

앞과 뒤의 무를 각기 겉감과 안감을 홈질을 하였다. 앞무는 뒷무에 비해 길고 넓으며, 윗 부분의 삼각형의 경사가 가파르다.

(6) 고 름

겉고름과 안고름의 달았던 흔적만이 남아 있다. 겉고름은 겉섶쪽의 고름의 흔적으로 너비를 2.5cm임을 알 수 있다.

[표 4] 겹직령 바느질



◆ : 정확한 측정 불가

3. 답호 (3점)

답호는 석점으로 모두 홑이다. 옷감은 雲寶紋緞, 蓮花蔓草紋紗, 熟綃로 되어 있다. 깃의 머리부분이 직선이면서 모가 나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두점의 안깃이 이중깃으로 되어 있다.

1) 답 호①

雲寶紋緞으로 만든 홑옷이다. 안깃은 이중깃이다.

(1) 길

등솔은 박음하여 가름솔하였다. 어깨바대는 길이 7.5cm, 너비 51cm로 일자형이며, 직각부

분이 둥글려져 있다. 수습당시 뜯겨진 상태로 정확한 바느질법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옆선은 측정하기 어려웠다. 겨드랑이 바대는 가로 7.5cm에 세로 2cm로 되어 감침하였다. 도련은 2.5cm 제물안단으로 공그르기 하였다.

(2) 깃

깃머리는 1.5cm 직선이며, 모가 나 있다. 겉깃은 하나로 된 통깃이나 안깃은 이중깃으로 되어 있다. 겉깃은 홈질을 하였으나 안깃은 뜯어진 상태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3) 섶

겉섶은 박음을 하여 가름솔 하였으며, 2.5cm의 제물안단으로 공그르기로 하였다. 안섶은 없으며, 0.6cm 너비의 제물안단에 공그르기 하였다.

(4) 소 매

소매는 이음선이 없으며, 수구는 3cm 너비 제물안단으로 공그르기 하였다. 배래는 0.4cm너비의 쌈솔로 하였으며, 시접은 뒤로 넘겼다.

(5) 무

무는 따로 재단하지 않고 진동점에서 2.5cm 내려 와서 위에 4cm, 아래는 도련선에 맞추어 삼각형으로 접어 홈질하여 길과 무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었다. 무 위부분에는 조각을 이어 서 붙였다.

(6) 고 름

겉고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 21〉 어깨바대



〈사진 22〉 안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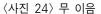






〈사진 23〉 무 접는 순서









〈사진 25〉겉깃 〈사진 26〉겨드랑이 바대

2) 답호②

蓮花蔓草紋紗로 된 홑옷이다. 안깃은 이중깃이다. 어깨바대는 각이 굴려진 알자형이다.

(1)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다. 등솔선은 홈질하여 가름솔 하였다. 어깨바대 는 길이 7.5cm, 너비 36.5cm로 일자형이며, 직각부분이 둥글러져 있으며, 감침으로 하였다. 옆 선은 통솔로 되어 시접은 앞쪽으로 넘겼다. 겨드랑이 바대는 가로 7.5cm. 세로 7.5cm로 하여 공그르기 하였다.

(2) 깃

겉깃은 통깃으로 길에 홈질을 하였다. 안깃은 이중깃으로 되어 있으며, 겉깃 바느질선에 맞추어 공그르기 하였다.

(3) 섶

겉섶은 홈질을 하여 가름솔 하였으며, 3cm너비의 제물안단은 공그르기 하였다. 안섶은 없 으며, 식서를 한번 접어져 있다. 접힌 식서에 일정한 구멍이 보이나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4) 소 매

소매는 이어져 있지 않고 수구는 2.5cm의 제물안단으로 공그르기 하였다. 배래는 0.3cm너비의 통솔로 하였다.

(5) 무

무는 따로 재단하지 않고 진동점에서 2cm 내려 와서 위에 5.5cm, 아래는 배래선에 맞추어 삼각형으로 접어 홈질하여 길과 무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었다. 무 위부분에는 조각을 이어 서 붙였다.

(6) 고 름

겉고름 한쌍(2개), 안고름 한쌍(2개)이 남아 있다. 겉고름의 길이는 26.5cm, 너비는 2cm이며, 안고름은 길이 32cm, 너비 1.3cm로 모두 홈질로 만들어 박음으로 고정하였다.



〈사진 27〉 겉깃



〈사진 28〉 안깃



〈사진 29〉무(안쪽)

3) 답호③

熟綃로 만든 홑옷이다. 바느질은 옛쌈솔, 말아감침, 수직감침, 박음 등 정교하다.

(1) 길

앞뒤가 연결되어 있으며, 등솔은 박음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어깨바대는 길이 25cm, 너비 38.5cm의 凹자형이다. 어깨바대를 접어 어깨선을 넓게 감침한 뒤에 앞과 뒤를 수직감침 하였다. 옆선은 옛쌈솔로 하여 시접은 앞으로 넘겼다. 겨드랑이에는 가로 3cm, 세로 12.5cm의 굽은바대를 옆선과 소매부분까지 수직감침으로 하였다. 도련은 3.5cm의 제물 안단을 하여 수직감침 하였다.

(2) 깃

깃과 닿는 길부분을 두번 접어 바느질하였는데 이는 깃의 처짐을 막고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조선전기 홑옷이나 袍류에서 보이는 바느질 기법이다. 길과 겉깃을 박음 한다음 각각 길과 겉깃의 시접을 0.5cm가 되도록 접은 다음 다시 바느질을 하고 시접을 다시위로 올려자른다. 이후 안깃을 접어 깃선에 맞추어 감침하였다.

(3) 섶

겉섶끼리의 이음선은 한쪽은 식서, 한쪽은 말아감침으로 하여 서로 박음하여 시접은 길쪽의 섶으로 넘겼다. 길과 겉섶은 박음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의 소매이음선은 박음을 하여 시접은 소매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2.5cm 너비의 제물안단으로 수직감침 하였다. 배래는 옛쌈솔을 하여 시접을 앞으로 넘겼다.

(5) 무

길과 무의 연결은 옛쌈솔을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무의 윗부분은 말아감침, 끝에는 2.5cm의 제물안단으로 수직감침 하였다.

(6) 고 름

겉고름은 한쌍(2개)이 달렸다. 길이 29cm, 너비 2.7cm이며, 겉고름의 달리는 부분은 0.6cm 접어서 박음로 고정하였다. 안고름은 안쪽깃의 끝에 달렸으며, 길이는 29cm, 너비는 1.2cm 이다.



〈사진 30〉겉깃



〈사진 31〉 겨드랑이바대



〈사진 32〉겉고름



〈사진 33〉 안깃

[표 5] 홑답호의 바느질비교

내용	구분	답호①	답호②	답호③
	등솔	박음	홈질	박음
	어깨바대	♦	감침	감침
길	옆선	♦	통솔	옛쌈솔
	겨드랑이바대	감침	공그르기	수직감침
	도련	공그르기	공그르기	수직감침
	겉깃	홈질	홈질	박음
깃	안깃	♦	공그르기	감침
	동정	×	×	×
섶	겉섶	박음	홈질	박음
23	안섶	×	×	옛쌈솔
	진동	×	×	박음
소매	수구	공그르기	공그르기	수직감침
	배래	쌈솔	통솔	옛쌈솔
무	무와 길이음선	홈질	홈질	옛쌈솔
	고름	×	홈질	말아감침
부속품	단추	×	×	×
	바대	×	×	×

◆: 정확한 측정 불가

4. 철릭(8점)

철릭은 총 8점으로 홑 3점, 겹 4점, 누비 1점이 출토되었다. 옷감은 雲寶紋緞, 牧丹蔓草紋緞, 吐紬, 熟綃, 交織, 細紬, 紬등이 있다.

1) 철릭(1)(홑)

雲寶紋緞으로 만든 홑옷이다. 등솔과 섶선이 뜯어서 다시 바느질한 흔적이 보이며, 겉깃길이, 품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친 옷 임을 알 수 있다. 어깨바대는 같은 옷감으로 일자형이며, 허리바대도 같은 옷감이다.

(1)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등솔은 박음으로 하였으며,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어깨바대는 길이 48.5㎝, 너비 8㎝의 일자형으로 공그르기로 마감하였다. 옆선은 0.3㎝ 시접의 통솔로 바느질하였으며, 시접은 뒤로 넘겼다.

(2) 깃

깃은 이중깃으로 되어 있다. 겉깃은 홈질로 안깃은 공그르기로 되어 있으며, 이중깃선은 찝어서 박음하여 이중선을 만들어 주었으며, 시접은 목부분으로 넘겼다.

(3) 섶

겉섶은 홈질로 하였으며,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겉섶선은 기울어져 있으며, 시접에는 처음에 바느질했던 자국이 남아 있어, 뜯어서 다시 바느질 한 것을 알 수 있다. 안섶은 통 솔로 바느질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통솔로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2.5cm의 직선덧단을 박음한다음 공그르기로 마무리하였다. 배래는 0.3cm 너비의 통솔로 하였으며 시접의 방향은 뒤로넘겼다.

(5) 裳

치마는 총 7폭(한폭 64cm)으로 홈질하였으며, 시접은 가름솔하였다. 시접은 식서로 되어 있으며, 식서 부분의 당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가윗집을 내었다. 주름은 홈질로 1cm안에 5~6개 잡혀 있으며, 주름잡힌 아래 1cm 떨어져서 홈질로 주름을 고정시켜 주었다. 도련은 2.5cm 제물안단에 감침 하였다. 안섶쪽 주름없는 부분에 먼저 주름 잡아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어 다시 고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 衣・裳 연결

衣・裳 연결과 허리바대는 박음으로 하고, 위로 올려 공그르기로 마무리하였다.

(7) 고 름

겉고름과 안고름은 흔적만 남아 있다.



〈사진 34〉등솔선



〈사진 35〉 겉섶선 안쪽



〈사진 36〉 안깃(안)



〈사진 37〉 허리바대



〈사진 38〉치마 주름



〈사진 39〉이음선

2) 철릭②(홑)

牧丹蔓草紋緞으로 만든 흩옷이다. 어깨바대는 雲寶紋紗로 된 凹자형이며, 허리바대도 雲寶紋紗로 되어 있다.

(1) 길

등솔은 한폭의 천을 접어서 시접을 0.2cm 되게 하여 박음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였다. 어깨바대는 길이 35cm, 너비 24cm의 凹자형으로 위아래 공그르기로 하였다. 옆 선은 0.1cm 찝어서 박음하여 시접은 뒤로 넘겼다.

(2) 깃

겉깃은 길과 같은 모란만초문단으로 길에 박음하였으며, 안은 雲寶紋紗로 겉깃에 달린

부분에 겉깃에 맞추어서 공그르기 하였다. 동정은 2~2.5㎝간격으로 한땀상침 하여 고정 시 켰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박음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박음하여 가름솔하였다. 수구는 2.8㎝의 제물안단으로 공그르기 하였으며, 배래는 0.5cm시접의 통솔을 하였다.

(5) 裳

치마는 총 20cm+6폭(한폭 59cm)으로 박음하여 가름솔하였다. 주름의 너비는 1.5~2cm이며, 도련은 2.5cm 제물안단으로 하여 공그르기로 마무리하였다.

(6) 衣・裳 연결

의와 상의 연결은 주름이 잡히지 않은 안쪽부분만 옛쌈솔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박음 하 였다. 허리바대는 雲寶紋紗로 만들어 衣부분에 대고 공그르기로 마무리하였다.

(7) 고 름

겉고름은 홑이며 위아래를 말아서 감침하고, 안고름은 위아래 0.5cm 접어 공그르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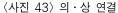




〈사진 40〉겉고름 〈사진 41〉옆선

〈사진 42〉어깨바대







〈사진 44〉 허리바대

3) 철릭③(겹)

吐紬로 만든 겹옷이다. 겉감은 藍色이 남아 있으며, 안감은 상색이다. 겉감과 안감이 모두 홈질로 되어 있다. 겉감의 홈질은 안감의 홈질에 비해 곱게 되어 있다.

깃의 이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상침이 되어있다. 상침은 겉에는 두 땀, 안에는 석땀으로 보인다. 이는 안감의 처짐 방지와 안감과 겉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다.

(1) 길

등솔은 홈질로 되어 있으며,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하여 가름솔로 하였다.

(2) 깃

겉깃과 안깃 모두 홈질로 되어 있다. 겉깃의 홈질이 안깃의 홈질에 비해 매우 곱다. 안섶쪽의 깃 끝에는 온박음이 되어 있다. 깃의 중심선에는 6cm 간격으로 안에는 석땀, 겉에는 두땀 상침이 되어 있다.

(3) 섶

겉섶과 안섶 모두 홈질로 되어 있으며,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하여 가름솔 하였다. 수구는 홈질하였으며, 수구끝에서부터 3.5cm 떨어지고 6cm 간격으로 안에는 석땀, 겉에는 두땀이 보이도록 홈질로 된 상침하였다. 襠은 가

로·세로 3cm이며, 박유하여 가름솔로 하였다.

(5) 裳

겉감은 총 10폭(한폭 35cm)이며, 안감은 9폭(한폭 36.5cm)+26cm이다. 겉과 안은 모두 홈질로하고 겉감은 가름솔 하였으며, 안감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넘겼다. 주름은 겉감과 안감을 함께 3cm의 너비로 주름을 잡았다. 도련은 홈질하였으며, 치마 전체에 안에는 석땀상침, 겉에는 두땀 상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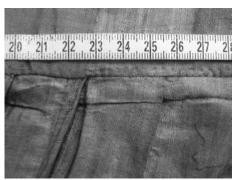
(6) 衣・裳 연결

먼저 衣의 겉과 裳의 겉을 마주보게 하여 박음을 한다. 그리고 안감의 衣 연결부분은 의를 내려 연결 부위선에 맞추어 접은 후 감침한 후에 그 위로 0.2cm 떨어져서 홈질로 주름과고정시켰다.

(7) 고 름

겉고름은 겨드랑이 부분의 한쌍(2개)만 남아 있으며, 겉섶쪽은 흔적만 있다. 홈질로 고름을 만들었으며, 골선이 위로 가도록 박음로 마무리되어 있다. 안고름은 안깃과 겨드랑이 부분에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 45〉 안깃

〈사진 46〉 고름과 당(襠)

〈사진 47〉의·상 연결

4) 철릭④(홑)

熟綃로 만든 홑옷이다. 어깨바대는 U자형이며, 겨드랑이 바대와 허리바대등이 있다.

(1) 길

등솔은 박음을 하여 시접은 가름솔하였다. 어깨바대는 U자형으로 양쪽에는 바느질하지 않고 위아래는 감침하였으며, 그 위로 0.2cm 떨어져서 홈질로 고정하였다. 옆선은 옛쌈솔로 되어 있으며, 겨드랑이바대는 가로 2.5cm, 세로 13.5cm이며, 감침으로 고정되어 있다.

(2) 깃

겉깃은 깃부분을 두번접어 함께 박음 하였으며, 안깃은 감침으로 되어 있다. 안섶쪽의 깃 끝에는 온박음이 되어 있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모두 옛쌈솔로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박음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2cm너비의 직선덧단으로 박음하여 넘겨서 감침으로 마무리하였다. 배래는 옛쌈솔로 하여 시접은 앞으로 넘겼다.

(5) 裳

치마는 총 11한폭(한폭 37cm)으로 박음하여 시접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넘겼다. 주름은 2. 5~3cm 너비로 잡혀 있다. 도련은 2.5cm 너비의 제물안단으로 감침하였다.

(6) 衣・裳 연결

의·상의 연결은 옛쌈솔로 하여 시접은 위로 가게 하였다. 허리바대는 위로 衣와 아래로 옛쌈솔 한부분과 감침 하였다.

(7) 고 름

겉고름은 한쪽은 식서, 한쪽은 말아서 감침하였으며, 겉섶쪽은 흔적이 남아 있다. 안섶쪽의 안고름은 흔적이 남아 있으며, 겨드랑이의 안고름은 남아 있다.



〈사진 48〉 어깨바대



〈사진 49〉등바대



〈사진 50〉 겨드랑이 바대







〈사진 51〉 안깃

〈사진 52〉의·상 연결

〈사진 53〉배래

5) 철릭(5)(겹)

겉감과 안감이 모두 交織으로 되어 있는 겹옷이다. 겉감은 藍色이 조금 남아 있다.

겉감과 안감이 모두 홈질로 되어 있다. 겉감의 홈질은 안감의 홈질에 비해 곱게 되어 있다. 깃의 이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상침이 되어있다. 상침은 겉에는 두땀, 안에는 석땀으로 보인다.

(1) 길

등솔은 홈질로 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하여 시접은 가름솔로 하였다.

(2) 깃

겉깃과 안깃 모두 홈질로 길에 바느질되어 있으며, 동정은 2~2.5cm 간격으로 한땀상침 되어 있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홈질로 시접은 길쪽으로 꺽는다. 안섶쪽의 깃 끝에는 온박음이 되어 있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가름솔하였다. 수구와 배래는 홈질로 되어 있다. 檔은 가로·세로 2.5cm이며, 박음으로 하여 가름솔로 되어 있다.

(5) 裳

겉감은 11폭(33.5cm), 안감은 10폭(36cm)이다. 겉감과 안감 모두 홈질로 하여 가름솔로 되어 있다. 주름은 겉감과 안감이 함께 1.5cm 간격으로 잡혀 있다. 도련은 홈질로 되어 있다.

(6) 衣・裳 연결

衣의 겉과 裳의 겉을 마주보게 하여 박음하고 안감의 衣 연결부위는 의를 내려 연결 부위선에 맞추어 접은 후 감침한 후에 그 위로 0.3cm 떨어져서 홈질로 주름과 고정시켰다.

(7) 고 름

겉고름은 紬로 두쌍(4개)이 달려 있으며, 안고름은 안섶쪽깃 끝부분에 달려 있다. 고름은 홈질로 만들었으며, 위가 골선으로 되어 있다.







〈사진 54〉 안깃

〈사진 55〉의·상 연결

〈사진 56〉 안섶쪽 안깃

6) 철릭⑥(겹)

겉감은 細紬, 안감은 紬이며, 홈질로 되어 있다. 겉감의 홈질은 안감의 홈질에 비해 곱게되어 있다. 깃의 이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상침이 되어있다.

(1) 길

등솔은 홈질해서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하여 시접은 가름솔로 하였다.

(2) 깃

겉깃과 안깃 모두 홈질이다. 동정은 2cm간격으로 한땀상침 되어 있다.

(3) 섶

겉감과 안감 모두 홈질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하여 가름솔 하였다. 수구와 배래는 홈질로 되어 있다. 檔은 가로·세로 2.5cm이며, 박음하여 시접은 가름솔로 하였다.

(5) 裳

겉감은 10폭(한폭 38cm) + 31cm, 안감은 12폭(34cm)이다. 치마폭은 겉감과 안감이 홈질로 하였으며, 겉의 시접은 가름솔, 안의 시접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되어 있다. 주름은 겉감과 안감이 함께 2.5~3cm너비로 잡혀 있다.

(6) 衣・裳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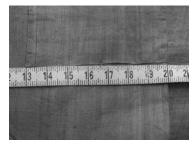
衣와 裳의 연결 부분은 박음을 하였으며 안감의 연결부위는 衣를 내려 연결 부위선에 맞추어 접은 후 감침하며 그 위로 0.4~0.5cm 떨어져서 홈질로 주름과 고정시켰다.

(7) 고 름

겉고름은 길이 106cm와 80cm에 너비 6cm인 2개가 있다. 안고름은 안섶쪽깃 끝부분에 달려 있다. 고름은 홈질로 만들었으며, 위가 골선으로 되어 있다.



〈사진 57〉 당과 고름



〈사진 58〉 동정바느질 간격

7) 철릭(7)(누비)

겉감과 안감 모두 紬로 된 누비옷이다. 衣와 裳에에는 누비간격이 8~8.5cm로 되어 있다. 겉감과 안감사이에는 얇은 솜이 들어 있다.

(1) 길

등솔은 홈질로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하여 시접은 뒤로 넘겼다.

(2) 깃

겉깃과 안깃은 모두 홈질로 되어 있다. 동정은 2cm 간격으로 한땀상침 하였다.

(3) 섶

겉섶은 홈질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으며, 안섶은 없다.

(4) 소매・襠

진동쪽의 소매는 홈질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와 배래는 홈질하였다 檔은 박음하여 가름솔 하였다.

(5) 裳

겉감은 1한폭(34~34cm), 안감은 13폭(23~34cm)이다. 안감의 폭은 일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피륙을 사용하였다. 겉감과 안감은 모두 홈질이며, 겉감의 시접은 시계방향, 안감은 반대반향으로 넘겼다. 주름은 겉감과 안감을 함께 2~3cm 너비로 잡혀 있다.

(6) 衣・裳 연결

겉감의 연결부위는 박음되어 있으며, 안은 감침 하였다. 그 위로 0.2cm 떨어져서 홈질로 주름을 고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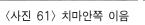
(7) 고 름

겉고름은 길이 103cm와 81cm에 너비 5cm인 넓고 긴 고름 2개와 길이 32cm, 너비 2cm의 짧고 좁은 고름 2개가 있다. 안고름은 길이 36.5cm, 너비 2cm이며, 안섶쪽깃 끝부분에 달려 있다. 고름은 홈질로 만들었으며, 위가 골선으로 되어 있다.



〈사진 59〉고름 〈사진 60〉안깃







〈사진 62〉의·상연결(안)

8) 철릭⑧(겹)

겉감은 吐紬, 안감은 紬로 된 겹옷이며, 홈질로 되어 있다. 겉감 바느질이 안감에 비해 곱다. 깃의 이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상침이 되어있는데, 겉은 두땀, 안은 석땀이 보인다. 이는 안감의 처짐 방지와 안감과 겉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1) 길

등솔은 겉감과 안감 모두 홈질이며,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겉감은 고운홈질, 안은 성근홈질이다. 옆선은 박음하여 가름솔하였다.

(2) 깃

겉깃과 안깃은 모두 홈질이다. 깃의 중심선에는 안에는 석땀, 겉에는 두땀의 상침이 되어 있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모두 홈질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하여 가름솔하였다. 수구는 홈질, 배래는 홈질하여 시접을 뒤로 넘겼다. 襠은 가로·세로 2.5㎝이며, 박음하여 가름솔로 하였다.

(5) 裳

겉감은 11한폭(38cm), 안감은 12폭(34cm)+22cm이다. 치마폭은 겉안 모두 홈질하여, 시접은 겉이 가름솔, 안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넘겼다. 주름은 겉감과 안감이 함께 2~3cm 너비로 잡혀 있으며, 도련은 홈질하였다. 안감의 윗부분은 4.5~5cm 전체적으로 이어 붙였다.

(6) 衣・裳 연결

겉감은 박음으로 되어 있으며, 안감의 연결부위는 衣를 내려 연결 부위선에 맞추어 접은 후 감침하며 그 위로 0.3cm 떨어져서 홈질로 주름과 고정시켰다.

(7) 고 름

겉고름은 자주색으로 흔적이 남아있어 너비가 3cm 임을 알 수 있으며, 안고름도 흔적으로 너비 1.8cm이다.







〈사진 64〉의·상 연결(안)



〈사진 65〉깃・고름

[표 6] 철릭의 바느질 비교

	구분	철릭①	철릭②	철릭③	철릭④	철릭⑤	철릭⑥	철릭⑦	철릭®
내용		홑	홑	겹	홑	겹	겹	누비	겹
길	등솔(겉/안)	박음	박음	홈질	박음	홈질	홈질	홈질	홈질
	어깨바대	공그르기	공그르기	×	감침	×	×	×	×
	옆선	통솔	박음	박음	옛쌈솔	박음	박음	박음	박음
	겨드랑이바대	×	×	×	감침	×	×	×	×
	도련	박음	공그르기	홈질	감침	홈질	홈질	홈질	홈질
깃	겉깃	홈질	박음	홈질	박음	홈질	홈질	홈질	홈질
	안깃	공그르기	공그르기	홈질	감침	홈질	홈질	홈질	홈질
	동정	×	한땀상침	×	×	한땀상침	한땀상침	한땀상침	×
섶	겉섶	홈질	박음	홈질	옛쌈솔	홈질	홈질	홈질	홈질
<u>纽</u> 	안섶	통솔	박음	홈질	옛쌈솔	홈질	홈질	×	홈질
	진동	통솔	박음	홈질	박음	홈질	홈질	홈질	홈질
소매	수구	박음	공그르기	홈질	박음	홈질	홈질	홈질	홈질
襠	배래	통솔	통솔	홈질	옛쌈솔	홈질	홈질	홈질	홈질
	당	×	×	박음	×	박음	박음	박음	박음
	치마	홈질	박음	홈질	박음	홈질	홈질	홈질	홈질
裳	衣・裳연결 (겉/안)	박음	박음	박음/ 홈질, 감침	박음	박음/ 홈질 감침	박음/ 홈질 감침	박음/ 홈질 감침	박음/ 홈질 감침
	허리바대	공그르기	공그르기	×	감침	×	×	×	×
u	고름	흔적	감침 공그르기	홈질	감침	홈질	홈질	홈질	흔적
부속품	단추	×	×	×	×	×	×	×	×
	바대	×	×	×	×	×	×	×	×

◆: 정확한 측정 불가

5. 직령포류(도포?) (2점)

두점으로 겹 한점과 홑 한점이 있다. 겹은 겉에 청록색의 吐紬, 안은 상색의 紬이다. 홑은 熟綃로 만들었다.

1) 직령포류(도포?)(1)(겹)

겉은 남색의 吐紬, 안은 상색의 紬로 만든 겹도포이다. 깃과 섶, 도련, 수구에 석땀상침이되어 있다.

(1) 길

어깨솔기가 없고 앞뒤가 연결되었다. 등솔은 겉과 안이 모두 홈질이며, 옆선은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襠 아래 11cm 밑에 연봉매듭이 달려 있다. 도련은 홈질하였다. 한쪽의 겨드랑이부분에는 가로 1.5cm, 세로 5cm인 옷감이 덧대어 감침 하였다.

(2) 깃

겉감과 안감 모두 홈질하였다. 깃 중심 부분에 7cm 간격으로 석땀상침이 되어 있다.

(3) 섶

겉섶은 두개로 되어 있으며, 두개의 섶 이음선은 홈질을 하여 길쪽에 달린 섶으로 시접을 넘겼다. 안섶도 겉안감을 각각 홈질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을 가름솔로 하였다. 수구는 홈질을 하였으며, 4cm 떨어져서 7cm 간격으로 석땀상침을 하였다. 배래는 홈질하여 시접은 뒤로 넘겼다. 襠은 가로·세로 2.2cm로 길과 소매에 박음하였으며, 시접은 가름솔 하였다.

(5) 무

안쪽으로 들어오는 두자락의 무의 바느질이 떨어져 있었으나 실과 바느질한 흔적이 남았다. 또한 홑도포의 주름잡힌 것이 있어 그 형태를 추정할 수 있으며 5cm 너비로 두 번의 주름을 잡아 앞길부분에 고정시켰음을 알 수 있다.

(6) 고 름

겉고름은 흔적이 남아 있어 너비가 2.5cm 임을 알 수 있다. 안고름은 흔적만이 남아 있다.



〈사진 69〉 겨드랑이(안)

〈사진 70〉주름

〈사진 71〉 안깃



〈사진 72〉 옆선



〈사진 73〉 당과 매듭단추

2) 직령포류(도포?)②(홑)

熟納로 만든 홑옷이다. 어깨바대와 굽은 겨드랑이바대는 있는데, 襠은 없다. 바느질이 매우 정교한 옷이다. 겨드랑이 부분에 두 번 무를 접어 앞길에 고정시킨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1)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 등솔은 곱게 박음하여 시접 0.1cm로 입어서 오른쪽으로 하였다. 어깨바대는 길이 25cm, 너비 34cm의 凹자형으로 수직감침 하였다. 옆선은 옛쌈솔이며 시접은 앞으로 넘겼다. 겨드랑이바대는 가로 2.7cm, 세로 9.5cm로 굽은 바대로 옆선과 소매부분에 걸쳐 감침하였다.

(2) 깃

길과 겉깃을 박음한 다음 길의 시접을 0.3cm 접은 다음 다시 안깃과 함께 양쪽 끝에서부터 박음을 하여 창구멍은 고대부분에 내고 감침으로 마무리하였다.

(3) 섶

겉섶은 박음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안섶은 옛쌈솔이며,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섶은 3cm 너비의 곧은선 덧단으로 수직감침 하였다.

(4) 소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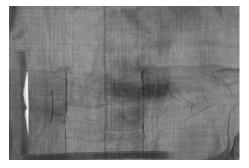
진동쪽 소매는 박음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2.3cm의 제물안단으로 수직감침하였다. 배래는 옛쌈솔로 하여 시접은 앞으로 하였다.

(5) 무

앞길에 달려 뒷길 안쪽으로 넘어가 고정되었으며,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의 두조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는 등부분에 한판이 없이 그대로 뒷길에 고정되어 있다. 겨드랑이 부분에 주름이 5cm 너비로 두 번 접혀서 겉길에 바느질되어 있다. 앞과 뒤에 무가 고정 된 끝에는 가로 2.2cm, 세로 1.5cm의 바대가 있어 감침으로 고정되어 있다.

(6) 고 름

겉고름은 흔적이 남아 있어 너비를 측정 할 수 있는데 2.5cm이다. 안고름은 겨드랑이 부분에 남아 있는데 길이 30.5cm, 너비 3cm이며 한쪽은 식서, 한쪽은 말아감침하여 박음으로 고정 시켰다.





〈사진 74〉 등

〈사진 75〉바대

[표 7] 직령포류(도포?)의 바느질 비교



◆: 정확한 측정 불가

6. 방령형상의

겉감은 청록색이 남아 있는 交織, 안감은 상색의 紬로 만든 겹옷이다. 깃은 각이 네모진 모양이며, 앞은 86.5cm, 뒤는 65cm로 앞이 길고 뒤가 짧다.

(1)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과 뒤가 연결된 형태이다. 등솔은 홈질을 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하였다. 옆선은 박음하여 시접은 뒤로 넘겼다. 도련은 홈질을 하였다.

(2) 깄

겉감은 네모진 깃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위에서 온박음으로 상침 되어 있다. 안 깃은 별도로 있지 않으며, 고대부분에만 덧단을 대었다. 동정의 너비는 겉에는 6cm, 안에는 4cm로 되어 있으며, 1.5~2cm 간격으로 한땀 상침 하였다.

(3) 섶

겉감의 겉섶과 안섶은 크기가 같으며 각각 세개의 주름이 잡혀 있다. 안감의 섶은 두 개의 주름이 잡혀 있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은 가름솔로 하였다. 수구는 홈질하였으며, 배래는 홈질 하여 시접을 뒤쪽으로 넘겼다. 襠은 박음하여 시접은 가름솔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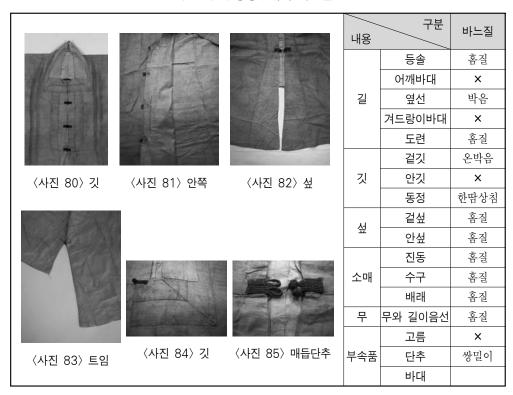
(5) 무

길과 무의 연결은 홈질로 하고, 시접을 가름솔로 하였다. 트임은 진동선부터 14cm 아래부터 시작하였다.

(6) 단 추

여밈의 단추는 모두 넉줄로 되어 있다. 맨 위에는 한쌍(2개), 나머지 석줄은 두쌍(4개)씩 달려 있다. 모두 쌍밀이로 만든 단추이다. 옆선에는 옆트임 lcm 아래에 한쌍(2개)이 달려 있다.

[표 8] 방령형상의의 바느질



◆ : 정확한 측정 불가

7. 액주음(5점)

액주음은 총 5점으로 겹 2점, 누비 3점이 있다. 모두 吐紬, 紬, 細紬로 만들었으며 트임에는 사뜨기, 연봉매듭끈이나 도래매듭끈등으로 트임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착해 주었다.

깃과 섶에는 0.7~0.8cm 떨어져서 홈질이 되어 있으며, 깃의 이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석땀상침이 되어있다.

1) 액주음①(겹)

겉감은 남색이 남아 있는 吐紬이며, 안감은 상색의 紬로 된 겹옷이다.

(1) 길

등솔은 겉감과 안감이 홈질로 되어 있으며,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로 하여 시접을 가름솔로 하였다. 등솔선 밑으로 55.5cm 내려 와서 트임이 67.5cm로 되어 있으며, 트임이 시작하는 양쪽부분에는 사뜨기가 1.5cm 되어 있다. 도련은 홈질로 하였다.

(2) 깃

겉감과 안감이 각각 길에 홈질로 되어 있으며, 양쪽 끝은 0.5cm 떨어져서 고운홈질로 상침을 해오다가 동정이 달리는 위치에는 성근 홈질로 되어 있다. 이는 동정이 달리는 위치가 창구멍으로 성근홈질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정은 달렸던 흔적만이 남아 있다.

(3) 섶

겉섶은 두 개, 안섶은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 겉섶과 안섶 모두 홈질이며,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로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홈질로 1.2cm의 직선덧단을 대후 감침로 마무리하였다. 배래는 홈질을 한 후 시접은 뒤로 넘겼다. 檔은 가로·세로 2cm 로 박음하여 가름솔 하였다.

(5) 무

무는 세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무만이 주름이 1cm안에 네개가 잡혀 있으며, 그 밑으로 1.5cm 떨어져서 주름을 홈질로 고정시켰다.

(6) 고 름

겉고름은 겨드랑이 부분의 길이 32cm, 너비 2.5cm한 개와 겉섶부분에는 흔적만이 남아 있다. 안고름은 길이 28cm, 너비 1.8cm로 한쌍(2개)이 달려있다.



〈사진 86〉 옆주름



〈사진 87〉 사뜨기



〈사진 88〉 안깃

2) 액주음②(겹)

겉감은 吐紬, 안감은 紬이며, 겉감은 남색이 남아 있다. 이음선 마다 겉감과 안감을 징궈주었다. 안에는 솜이 남아 있다. 깃의 이중선, 여밈과 밑도련, 수구의 가장자리[邊]에 상침이되어있다.

(1) 길

등솔은 겉감과 안감을 홈질을 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하여 시접은 가름솔 하였다. 도련은 홈질로 하였다.

(2) 깄

겉깃과 안깃은 홈질하였다. 동정은 흔적이 남아 있다. 안섶쪽의 깃에는 온박음으로 상침 되어 있다.

(3) 섶

겉섶은 두개, 안섶은 한 개로 되어 있다. 모두 홈질로 되어 있으며, 겉섶선과 안섶선은 겉 감과 안감을 징궈 주었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로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홈질하였으며 석땀상침 하였다. 배래는 홈질을 한 후 시접은 뒤로 넘겼다. 檔은 가로·세로 2cm로 박음하여 가름솔하였다.

(5) 무

무는 세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무만이 주름이 1cm안에 세개가 잡혀 있으며, 그 밑으로 0.8cm 떨어져서 주름을 홈질로 고정시켰다. 트임 아래 2cm 밑으로 내려 와서 가로 4cm, 세로 0.7cm의 연봉매듭끈이 달려 있다. 끈은 0.3cm의 너비로 가운데 연봉매듭을 하여 양쪽을 트임부분에 박음로 고정시켜 주었다.

(6) 고 름

겉고름은 없으며, 안고름은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 89〉 연봉매듭끈(겉. 안)

〈사진 90〉 섶 징굼선

3) 액주음③(누비)

겉감과 안감이 모두 紬로 된 겹옷이다. 섶과 도련, 트임부분, 수구에는 $1\sim1.3$ cm의 직선덧단을 대어 주었다.

(1) 길

등솔은 홈질을 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하여 시접은 가름솔하였다. 도련은 박음로 하였다. 옆선은 파손이 많이 되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2) 깄

겉깃은 홈질로 하였으며, 곡선부분만은 박음하였다. 안깃은 감침으로 하였다. 동정은 1.5~ 2.5cm 간격으로 한땀상침이 되어 있다. 안섶쪽의 깃은 온박음으로 마무리하였다.

(3) 섶

겉섶과 안섶 모두 홈질로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4) 소매・襠

진동 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1cm의 직선덧단과 박음을 한 후 넘겨서 감침으로 마무리하였다. 襠은 박음을 하여 소매와 닿는 부분의 시접은 소매쪽으로 넘겼다.

(5) 무

무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무만이 주름이 1cm안에 4~5개가 잡혀 있으며, 그 밑

으로 1cm 떨어져서 주름을 홈질로 고정시켰다. 트임 아래 2cm 밑으로 내려 와서 가로 6.5cm, 세로 0.6cm의 도래매듭끈이 달려 있다. 끈은 0.3cm의 너비로 가운데 연봉매듭을 하여 양쪽을 트임부분에 박음로 고정시켰다.

(6) 고 름

겉고름은 흔적이 남아있어 너비가 5cm이며, 안고름은 안깃쪽에 하나만 남아 있다. 홈질로 만들어 골선이 위로 가도록 박음으로 고정시켰다.









〈사진 91〉도래매듭끈(겉, 안)

〈사진 92〉 덧단

〈사진 93〉 안깃

4) 액주음(4)(누비)

겉감과 안감을 紬로 만들어 $4\sim4.5$ cm 간격으로 누빈옷이다. 깃, 섶, 수구부분에는 $0.7\sim0.8$ cm 떨어져서 홈질이 되어 있으며, 옆에 트임부분에는 1cm의 직선덧단이 되어 있다.

(1) 길

등솔은 홈질을 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박음하여 뒤로 시접을 넘 겼다.

(2) 깃

겉깃은 박음하였으며, 안깃은 홈질을 하였다. 안섶쪽 깃에는 온박음으로 마무리하였다. 동 정은 1.5cm 간격으로 한땀상침 하였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모두 홈질을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홈질로 하였으며, 배래는 홈

질을 하여 시접을 뒤로 넘겼다.

(5) 무

무는 세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무만이 주름이 1cm안에 다섯개가 잡혀 있으며, 그 밑으로 1.2cm 떨어져서 주름을 홈질로 고정시켰다.

(6) 고 름

겉고름은 길이 120cm와 97cm에 너비 5.5cm인 두개가 있다. 안고름은 길이 37.5cm, 너비 2.5 cm로 안섶쪽깃 끝부분과 겨드랑이에 달려 있다. 고름은 홈질로 만들었으며, 위가 골선으로 되어 있다.







〈사진 94〉 襠과 무 주름

〈사진 95〉 동정(안)

5) 액주음(5)(누비)

겉감은 細紬, 안감은 紬로 만들어 8cm 간격으로 누빈옷이다. 깃, 섶, 수구부분에는 0.7~ 0.8cm 떨어져서 홈질이 되어 있으며, 옆에 트임부분에는 1cm의 직선덧단이 되어 있다.

(1) 길

등솔은 홈질을 하여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안감의 등솔선은 입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8.5cm 이동되어 있다. 옆선은 박음하여 뒤로 시접을 넘겼다.

(2) 깃

겉깃과 안깃은 홈질을 하였다. 안섶쪽 깃에는 온박음으로 마무리하였다. 동정은 1.5~2.5 cm 간격으로 한땀상침 하였으며, 옷감을 뒷고대 중심에서 이어서 했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모두 홈질을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홈질로 하였으며, 배래는 홈 질을 하여 시접을 뒤로 넘겼다.

(5) 무

무는 세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무만이 주름이 1cm안에 4~5개가 잡혀 있으며, 그 밑으로 1.2cm 떨어져서 주름을 홈질로 고정시켰다. 트임 아래 1.5cm 밑으로 내려 와서 가로 4cm, 세로 0.7cm의 도래매듭끈이 달려 있다.

(6) 고 름

고름은 안섶쪽 깃 끝부분에 단 안고름 하나만 남아 있는데, 길이 41cm, 너비 2cm이다. 고름은 홈질로 만들었으며, 위가 골선으로 되어 있다.







〈사진 96〉도래매듭끈(겉·안부분)

〈사진 97〉 안고름

[표 9] 액주음 바느질 비교

구분 내용		액주음(1)	액주음②	액주음③	액주음④	액주음⑤
		겹	겹	누비	누비	누비
	등솔(겉/안)	홈질	홈질	홈질	홈질	홈질
	어깨바대	•	•	•	•	•
길	옆선	박음	박음	•	박음	박음
	겨드랑이바대	•	•	•	•	•
	도련	홈질	홈질	박음	홈질	홈질
	겉깃	홈질	홈질	홈질	박음	홈질
깃	안깃	홈질	홈질	감침	홈질	홈질
	동정	흔적	흔적	한땀상침	한땀상침	한땀상침
섶	겉섶	홈질	홈질	홈질	홈질	홈질
	안섶	홈질	홈질	홈질	홈질	홈질
	진동	홈질	홈질	홈질	홈질	홈질
소매	수구	홈질	홈질	박음	홈질	홈질
당	배래	홈질	홈질	홈질	홈질	홈질
	당	박음	박음	박음	박음	박음
무	무연결선	홈질	홈질	홈질	홈질	홈질
부속품	고름	홈질	흔적	홈질	홈질	홈질
	단추(트임)	뒷트임-사뜨기	옆트임-연봉매듭	옆트임-도래매듭	•	옆트임-도래매듭
	바대	•	•	•	•	•

◆: 정확한 측정 불가

8. 저고리(2점)

저고리는 겹과 누비 두개가 있다. 겹저고리는 많은 옷감을 조각조각 이은 것이 특징이며, 보상화만초보문단을 깃, 섶, 수구, 당과 무에 사용하였다. 누비저고리는 8cm간격으로 누벼져 있다.

1) 저고리①(겹)

겉감은 蓮花蔓草紋緞과 紬, 안감은 紬로 만든 겹옷이다.

(1) 길

어깨솔기 없이 앞과 뒤가 연결된 옷이다. 등솔은 겉과 안이 각각 홈질로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하였다. 옆선은 박음을 하여 가름솔로 하고, 도련은 홈질을 하였다. 곁마기는 옷 감을 조각조각 박음하여 가름솔로 되어 있다.

(2) 깃

겉깃과 안깃은 길에 홈질로 되어 있다. 겉깃은 조각조각 옷감을 박음으로 이어 가름솔 하였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모두 박음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안섶쪽의 깃의 끝부분에는 온박음 으로 마무리하였다.

(4) 소매・襠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는 홈질하였으며, 배래는 홈질을 하여 시접은 뒤로 넘겼다. 襠은 가로·세로 5cm로 박음하여 시접은 길과 소매쪽으로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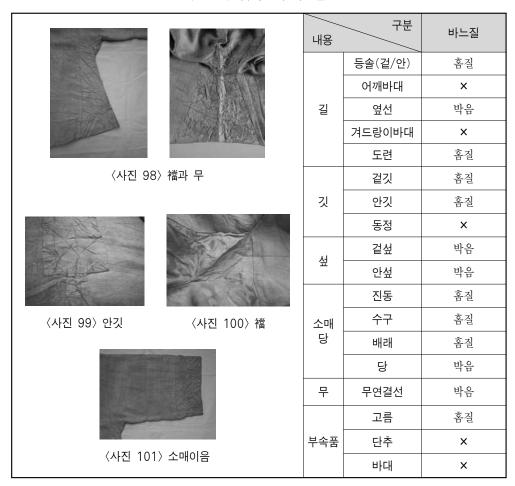
(5) 무

길과 무의 연결은 박음을 하여 시접은 길쪽으로 넘겼다. 여러 조각은 박음으로 바느질하여 가름솔로 하였다.

(6) 고 름

길에 있는 겉고름만이 남아 있다. 길이 24cm, 너비 2.5cm로 홈질을 하여 만들어 골선이 위로 가게 하여 박음으로 고정 시켰다.

[표 10] 겹저고리 바느질



◆ : 정확한 측정 불가

2) 저고리(2)(누비)

겉감과 안감 모두 紬로 된 옷이다. 솜이 들어 있으며 8cm 간격으로 누벼져 있다. 겉깃은 칼깃, 안깃은 목판깃이다. 옆선에는 15.5cm의 트임이 있으며, 넓은 당이 달려 있다.

(1) 길

어깨솔기가 없으며, 앞뒤가 연결된 옷이다. 등솔은 홈질로 되어 있으며,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옆선은 홈질을 하여 시접은 뒤로 넘겼다. 도련은 홈질하였다.

(2) 깃

겉깃과 안깃은 홈질을 하였다.

(3) 섶

겉섶과 안섶은 홈질을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4) 소 매

진동쪽 소매는 홈질을 하여 시접을 길쪽으로 넘겼다. 수구와 배래는 홈질하였으며, 배래 시접은 뒤로 넘겼다. 權은 가로·세로 13cm이며, 박음하여 시접은 소매와 길쪽으로 넘겼다.

(5) 고 름

겉고름은 길이 39.5cm, 너비 2cm인 한쌍(두개)과 안고름은 길이 34.5cm, 너비 2cm인 한쌍(두개)이 있다. 홈질하여 고름을 만든 후에 골선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박음으로 고정 시켰다.

[표 11] 누비저고리 바느질

	내용	구분	바느질
	길	등솔(겉/안)	홈질
		어깨바대	×
		옆선	홈질
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一个		겨드랑이바대	×
		도련	홈질
	깃	겉깃	홈질
		안깃	홈질
〈사진 102〉 깃과 고름		동정	×
	섶	겉섶	홈질
DESCRIPTOR BEHANDER HANDER HOLDER KOKOK KOKOK		안섶	홈질
	소매 襠	진동	홈질
		수구	홈질
		배래	홈질
		당	박음
	무	무이음선	홈질
Company of the second	부속품	고름	홈질
〈사진 103〉襠		단추	×
		바대	×

◆: 정확한 측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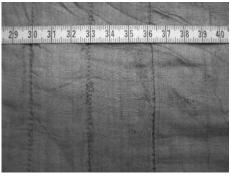
9. 開襠袴

겉감은 紬, 안감은 綿布로 만들었으며 아래 가랑이가 트인 개당고형의 3cm 너비로 누빈 바지이다. 길이는 99~99.5cm, 바지통은 45cm, 허리둘레는 86cm, 허리너비는 11.5cm이다. 끈은 하나가 길이 66.5cm, 너비 3.5cm로 온전히 남아 있으며, 한쪽은 8cm 정도 남아 있다.

바지폭의 이음선은 박음을 하여 시접은 가운데 폭으로 넘겼다. 허리와 바지의 이음은 박음로 하여 시접은 허리쪽으로 넘겼다. 허리의 22cm 부분과 부리, 양쪽 트여진 바지부분에는 1.5cm 너비의 곧은선 덧단을 대어 감침하였다. 또한 가운데 터진부분의 삼각형의 양쪽 밑은 15.5cm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는 위치를 31.5cm와 30cm로 하여 포개지게 하였다.



〈사진 104〉 허리



〈사진 105〉누비간격



〈사진 106〉 가랑이밑의 당



〈사진 107〉 밑단

10. 단속곳

綿布로 만들었으며, 허리는 겹, 밑에 바지는 홑이다. 허리둘레는 98cm, 허리너비는 10.5cm 이다. 길이는 82.5cm, 폭은 4폭을 이었으며 바지통 너비는 70cm이다. 맞주름은 5개이다. 밑의 길이는 38cm 너비는 16cm 삼각형으로 겉과 안을 각각 한쪽을 식서로 하여 서로 식서와 푸서를 마주보게 하였다.

허리는 위를 골선으로 하였으며 허리와 바지 이음은 박음하였다. 바지폭 이음은 홈질을 하였으며, 바지부리는 말아감침, 바지통과 밑은 박음하였다. 한쪽의 옆선은 길이 14.5cm,의 트임이 있어 2.5cm 너비의 곧은선 덧단을 대어 감침하였다. 허리끈은 길이 13cm, 너비 6.5cm 남아 있으며, 밑에는 식서, 위에는 홈질하여 허리에 박음으로 고정하였다.



〈사진 108〉주름



〈사진 109〉트임

11. 광다회

絹紗로 만들었다. 길이는 297cm, 너비 1.8cm 이다. 매듭술장식 속에 雲母이 들어 있어 반짝인다. 고령신씨 여관(高靈申氏 汝灌, 1519~1582)의 광다회는 길이가 222cm, 너비 2.5cm이다. 고령신씨의 유물보다 길이는 길고 너비는 좁다.

12. 대렴금

남색의 綿布로 다섯폭이 남아 있다. 각각의 폭의 너비는 32cm, 33cm, 33cm, 33cm, 28cm, 남 은 길이는 163.5cm이다. 각폭은 홈질로 되어 있다.

13. 지 요

겉감과 안감은 紬로 만들었다. 길이는 180cm, 너비는 34cm이며, 전체적으로 홈질을 하였다.

14. 멱 목

겉감과 끈은 청록색의 貢緞, 안감은 紬로 만들었다. 홈질을 하였으며, 안감의 길이가 겉감에 비해 1cm 짧다. 끈의 길이는 45cm, 너비는 1cm이다. 끈은 홈질로 만들었으며, 골선이 아래로 향하였다.

15. 악 수

겉감과 끈은 貢緞, 안은 紬로 만들었다. 악수 길이는 24cm, 너비는 10cm, 끈의 길이는 2 4~25cm, 너비는 0.6~0.7cm이다. 바느질은 전체적으로 홈질이 되어 있다.

16. 正 囊

오른쪽 부분을 골선으로 하여 紬로 만들었다. 가로 6cm, 세로 7cm이며. 위와 왼쪽에 0.5cm 떨어져서 바느질이 뜯겨져 있는 흔적이 있었다. '五囊'이라고 墨書되어 있다.

17. 帽(?)

겉감은 貢緞, 안은 紬로 만들었다. 길이는 58cm, 너비는 23cm이다. 전체적으로 홈질을 하였으며, 한쪽 길이에만 석땀상침을 하였다. 겉에는 1cm 안에 두땀이며, 안에는 1.2cm 안에 석땀이 있다.





〈사진 110〉 석땀상침(겉·안)

18. 袍(?)

綿布으로 만든 겹으로 된 포이다. 파손으로 정확히 어떠한 포인지는 모르나 깃부분과 등 솔부분에 바느질이 남아 있다.

(1) 길

어깨솔기가 없이 앞과 뒤가 연결된 포이다. 등솔은 박음해서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고대바대는 바느질 흔적이 남아 있다. 어깨선의 길이 4.5cm, 앞뒤로 8cm에 이르게 겉에서 온박음 하였다. 남아 있는 길의 길이는 94.5cm이며, 어깨부분에는 51.5cm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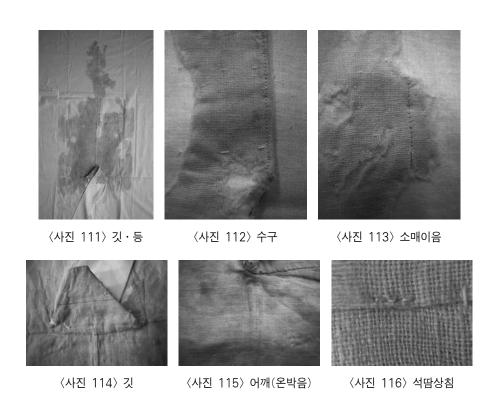
(2) 깃

깃은 박음 하였으며, 깃너비는 10.5cm이다. 동정은 고정은 1cm 간격의 석땀상침으로 하였으며, 목부분에는 1.5cm 간격으로 한땀상침 하였다.

(3) 소 매

소매이음선이 남아 있는데 박음해서 시접을 가름솔 하였다. 수구부분은 남아 있어 치수를

젤 수 있었는데 20cm이다. 겉과 안을 박음 한 후 다시 위에서 온박음 하였다. 배래는 박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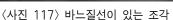
19. 紬 3조각

식서가 있는 세장의 紬이다. 길이는 182~184cm, 너비는 36cm이다.

20. 피륙조각

여러조각의 삼베이다. 이중 바느질선이 남아 있는 것이 보인다. 홈질로 하였으며, 시접을 가름솔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18〉 바느질선(겉·안)

21. 단 추

진주강씨의 유물에서는 매듭단추와 매듭끈이 보인다.

단추의 역할은 앞의 여밈을 고정시키거나 트여진 부분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임이 시작부분으로부터 1~1.5cm 떨어져서 달게 된다.

1) 매듭단추

매듭단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끈을 만들어야 한다. 만드는 방법은 옷감을 직선으로 마름하여 중심선을 접은 후 그 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가운데롤 향하도록 감침한다(사진 119).

단추를 다는 위치는 주로 겉에서 보이도록 달아 겉에서 암수가 한쌍씩 보인다.

단령의 깃머리에는 좌우를 고정시키는 숫단추, 고대부분에 암단추를 단다. 석점의 단령 중 단령①의 단추는 옷감을 꼬아 만들어 달았다.

도포에는 진동이나, 襠 밑부분 부터 트임이 있어 그 밑으로 5cm와 11cm 내려와서 매듭단 추를 앙쪽 무에 고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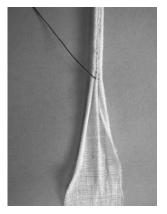
방령에는 깃이 시작하는 부분에 한쌍의 암수 단추와 그 밑으로 두쌍의 단추를 세부분에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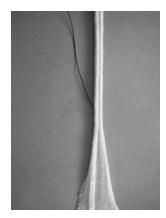
단추를 다는 방법은 안을 박음하여 겉으로 보이게 꺾은 후 삼등분으로 나누어 박음으로 고정시켰다.

2) 매듭끈

매듭끈은 액주음 옆트임에 달려 있다.

매듭끈은 너비 0.3㎝의 끈으로 끈의 가운데에 연봉매듭과 도래매듭을 맺고 양쪽에 두개의 끈이 나오도록 한다. 양쪽 두개의 끈을 각각 트여진 부분의 무에 세등분으로 나누어 박음으로 마무리한다.





〈사진 119〉 쌍밀이 제작 방법4)

⁴⁾ 금종숙,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법연구, 75쪽,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표 12) 진주강씨 유물의 매듭단추와 매듭끈

번호	구분	용도	종류	사 진
1	단령①	깃고정	매듭단추 (꼬임)	
2	단령②	깃고정	매듭단추 (쌍밀이)	단령1 단령2
3	단령③	깃고정	매듭단추 (쌍밀이)	단령3
4	직령포류 (도포?)①	옆트임	매듭단추 (쌍밀이)	
5	직령포류 (도포?)②	옆트임	매듭단추 (쌍밀이)	19 20 21 22 23 24 25 26 37
6	방령 형상의	앞여밈 방령	매듭단추 (쌍밀이)	
		옆트임	매듭단추 (쌍밀이)	30 31 32 33 34 35 36
7	액주음②	옆트임	연봉매듭끈	29, 30, 31, 32, 33, 34, 35
8	액주음③	옆트임	도래매듭끈	9. 30 31 32 33 34 35 36 37 3
7	액주음⑤	옆트임	도래매듭끈	20-20-31-32-33-34-3

Ⅳ. 맺음

이상으로 진주강씨(1541~1624년) 유물의 바느질법 등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조선전기의 바느질 보다 정교함이 덜하다. 그러나 단령에서의 이음선 부분의 수직감침으로 인한 바느질은 정교하였다. 또한 단령 답호의 무, 철릭의 裳의 안감, 저고리 깃 수구, 곁마기등에 옷감을 조각조각 이어서 만든 것이 특징이며, 철릭 등 기존의 옷을 다시 바느질하여 입는등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주강씨 유물의 바느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령은 석점으로 겹 한점, 홑 두점이 있다. 겹은 성근홈질, 공그르기, 한땀상침, 통솔, 반박음 등으로 하였다. 홑 두점은 옛쌈솔, 수직감침, 박음, 말아감침등 정교하게 바느질되어 있다. 특히 이음선 부분은 식서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옷감에 서로 마주보게 하여 수직감침을 하여 시접이 0.1㎝도 안되게 줄만 보이고 있다.

직령은 한점으로 겹옷이다. 겉감은 고운홈질, 안감은 겉감에 비해 성근홈질이다. 겨드랑이바대는 겉에 있어 온박음으로 마무리하였으며, 깃 섶 도련 수구 등의 부분에는 안에는 석땀, 겉에는 두땀이 보이게 상침 하였다.

답호는 석점이며, 모두 흩이다. 홈질, 박음, 감침, 공그르기, 쌈솔, 옛쌈솔, 말아감침 하였다. 이중 두점은 무를 따로 재단하지 않고 길의 옷감을 삼각으로 접어 홈질하여 길과 무의 경계선을 만들었다.

철릭는 여덟점이며, 홑 석점, 겹 넉점, 누비 한점이다. 홑은 박음, 공그르기, 통솔, 한땀상침, 옛쌈솔등으로 하였다. 겹과 누비는 홈질, 감침, 박음, 한땀상침등으로 하였다.

직령포류(도포?)는 홑 한점과 겹 한점이 있다. 바느질은 홈질, 박음, 수직감침, 옛쌈솔, 말아감침등으로 되어 있다. 무는 5cm 간격으로 2번 접어 앞길에 박음으로 고정시켰다.

방령형상의는 겹으로 홈질, 온박음, 한땀상침으로 되어 있다. 깃은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겉에서 온박음 하였다. 특히 깃은 2중으로 되어 있으며, 위에서 온박음으로 상침 이 되어 있다.

액주음은 다섯점으로 겹 두점, 누비 석점이다. 홈질, 박음, 한땀상침으로 되어 있다. 특히 액주음①의 뒤트임에는 다른 액주음의 옆트임의 단추와 달리 사뜨기로 하였다.

저고리는 겹과 누비가 있으며, 홈질과 박음으로 하였다. 겹은 깃과 수구부분, 곁마기, 섶 등 옷감을 조각조각 이어서 박음질하여 가름솔한 것이 특징이다.

개당고는 3cm 너비로 누볐으며, 박음, 감침등으로 하였다.

단속곳은 박음, 홈질, 감침, 말아감침등으로 하였다.

광다회는 견사로 만들어 매듭술장식 속에는 운모가 들어 있다.

염습류에 대렴금은 남색의 綿布로 된 다섯폭의 조각이 남아 있으며, 홈질로 되어 있다. 지요와 명목, 악수, 모(?)는 전체적으로 홈질하였으며, 正囊은 바느질 흔적이 있다.

포(?)는 깃부분에는 박음, 동정에는 석땀상침이 되어 있으며, 어깨바대부분에 겉에서 온박음한 것이 남아 있다.

기타로는 紬 세조각과 삼베조각이 남아 있는데, 삼베조각중에는 홈질한 조각이 있으나 어떤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단추는 앞의 여밈을 고정시키거나 트여진 부분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임이 시작부분으로부터 1~1.5cm 떨어져서 달게 된다. 단령의 깃 끝부분과 도포의 옆트임부분, 액주음의 옆트임부분, 방령의 앞여밈과 옆트임부분에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경기도 박물관.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서울 사당동 홍곡공파 일가-. 2003 高富子・朴聖實、「驪州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 小考」、『韓國服飾』 제8호, 단국대학교 石宙善 紀念博物館, 1990 ,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 연구」, 『韓國服飾』 제15호, 단국대학교 石宙善 紀念博物館, 1997 ____, 「日迎出土 高靈 申氏 遺物 小考」, 『韓國服飾』 제17호,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1999 , 「충남 예산 출토 坡平尹氏(女, 1735~1754)유물 연구」, 『韓國服飾』 제21호, 단국대학 **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3 朴聖實・高富子,「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韓國服飾』 제7호,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1989 금종숙,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법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中, 2004 서울역사박물관, 『趙儆墓出土潰衣』, 2003 심부자·전혜숙,『服飾』10호, 1986 安東大學校博物館,『安東地域傳統服飾』,安東大學校博物館圖錄 1, 1996 安東大學校博物館,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0 충주박물관.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2004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피륙 연구

김 주 영(사회교육원 조 교) 김 은 정(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

- 목 차 I . 머리말
 - Ⅱ. 진주강씨 피륙의 유형
 - Ⅲ. 피륙의 종류와 특징
 - Ⅳ. 피륙무늬의 종류와 특징
 - V. 맺 음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피륙 연구

Ⅰ. 머리말

본 유물은 2001년 11월10일 河陰公(大虎, 1541~1624년, 草堂公의 4世孫)의 묘를 이장하던 중 수습된 것으로 생물연대가 정확하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복식의 형태와 피륙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출토된 유물은 총 37점으로 수의와 보공, 염습구, 피륙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絹類였으며, 견류가 아닌 것으로는 6건이 있다.

피륙의 종류는 熟綃, 紬, 吐紬, 無紋緞, 紋緞, 紋紗, 交織, 麻布, 綿布 등이다.

근래 복식유물의 출토가 많아지면서 조선 전기의 피륙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유물은 조선중기에 사용된 피륙 및 무늬의 종류와 특징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 공할 것이다.

연구범위로는 크게 섬유분석, 조직분석, 밀도측정, 두께측정, 무늬분석 등 5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

출토피륙은 시각적 態와 촉감으로 구별하였고 간단하게는 燃燒法과 현미경 관찰법을 사

용하여 워료 재료를 확인하였다.

둘째. 조직

피륙의 경사 방향을 확인하여 세로로 평평하게 펼친 후 분해경을 위에 놓고 경사를 따라 가면서 조직도를 그린다. 즉 경사가 위사 위로 올라온 곳은 검게, 위사가 아래로 내려간 것은 희게 표시하면서 조직을 판단하였다. 또한 본문에 첨부된 조직사진은 확대 현미경을 이용하여 40배율로 촬영한 것이다.

셋째, 밀도

피륙의 경사 방향을 확인하여 서로 다른 3지점을 선별하여, 사방 1cm정밀 자를 놓고 10배확대 현미경 사진 후 경사와 위사의 올수를 세어 평균치를 내었다.

넷째. 두께

두께는 후도계(Mituoyo Japan)로 서로 다른 3지점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mm로 표시하였다.

다섯째, 무늬

피륙의 무늬는 서로 다른 3지점에서 무늬의 크기를 측정하여 평균치를 내고 한 틀의 크기와 사진을 표로 제시하였으며, 모든 무늬는 도안으로 재구성하였다.

Ⅱ. 진주강씨 피륙의 유형

진주강씨 묘에서 출토된 피륙은 絹類, 綿類, 麻類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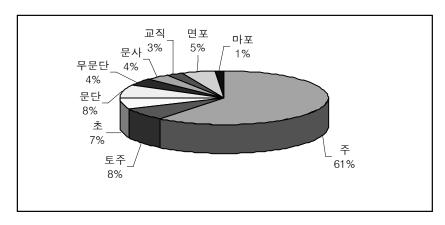
평직의 견류는 熟綃, 紬, 吐紬가 있고, 繻子織은 無紋緞, 紋緞이 있으며, 2경꼬임조직의 紋紗가 있다. 또 經絲에는 견, 緯絲에는 면으로 짠 사면교직과, 1/1사선엮음조직의 광다회도 있다. 평직의 면포와 마포가 있다. 대부분의 피륙은 시각과 촉감으로 종류구별이 가능하다.

출토피륙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분류하면 피륙류는 총 76건비인데 紬가 46건 61%, 吐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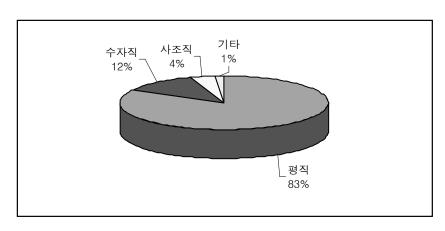
¹⁾ 진주강씨의 출토복식은 37점이나, 전체 피륙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 벌에 사용된 조각인 경우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였다.

가 6건으로 8%, 熟網가 5건으로 7%, 紋緞 6건으로 8%, 無紋緞 3건으로 4%, 紋紗 3건으로 4%, 交織 2건으로 3%, 綿布 4건으로 5%, 麻布 1건 1%로 구분되었다.

다음 그림은 진주강씨 유물의 전체 피륙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유물에 나타난 피륙종류



(그림 2) 유물에 나타난 피륙의 조직유형

[표 1] 유물 피륙유형

	유물	겉 감	안 감	기 타
1	단 령①	紋緞	紋緞	紋紗(어깨바대), 細紬(동정)
2	단 령②	熟綃	-	-
3	단 령③	熟綃	-	-
4	직 령①	吐紬	紬	-
5	답 호①	紋緞	-	-
6	답 호②	紋紗	-	-
7	답 호③	熟綃	-	-
8	철 릭①	紋緞	-	-
9	철 릭②	紋緞	-	문사(바대,깃), 細紬(동정)
10	철 릭③	吐紬	紬	-
11	철 릭④	熟綃	-	-
12	철 릭⑤	交織	紬	細紬(동정)
13	철 릭⑥	細紬	紬	細紬(동정)
14	철 릭⑦	紬	紬	紬(동정)
15	철 릭⑧	吐紬	紬	-
16	직령포류(도포?)①	吐紬	紬	-
17	직령포류(도포?)②	熟綃	-	-
18	방령형 상의①	交織	紬	-
19	액주음①	吐紬	紬	紬(동정)
20	액주음②	吐紬	紬	-
21	액주음③	紬	紬	紬(동정)
22	액주음④	紬	紬	紬(동정)
23	액주음⑤	細紬	紬	紬(동정)
24	저고리①	紬/紋緞	紬	紬(동정)
25	저고리②	紬	紬	-
26	개당고	紬	綿布	-
27	단속곳	綿布	-	-
28	광다회	1/1엮음 편조,綾	-	-
29	대렴금	綿布	綿布	-
30	지요	紬	紬	-
31	명목	無紋緞	紬	-
32	악수	無紋緞	紬	-
33	오낭	紬	-	-
34	呈	無紋緞	紬	-
35	玊	綿布	×	-
36	주 3조각	紬	-	-
37	피륙조각	麻布	-	-

Ⅲ. 피륙의 종류와 특징

1. 絹 類

견류의 조직은 平組織, 繻子織, 紗組織으로 분류된다.

1) 평조직

평조직으로 짜여진 견류은 전통제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본조직으로 실의 밀한 정도와 꼬임, 투공율, 굵기, 실의 품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본 유물에서는 평직으로 짜여진 견류는 綃, 紬, 細紬, 吐紬로 나타났다.

(1) 綃

초는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문헌에 기록된 평견직의 명칭인데 일반적으로는 생사로 짜여서 얇고 빳빳한 느낌의 견류을 말한다. 그러나 『燕山君 日記』2에 生網와 熟網의 명칭이모두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초는 생사로만 제직된 것이 아니고, 정련한 견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숙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유물에서는 얇고 빳빳한 느낌인 綃보다는 실이 가늘고 고르며 촉감이 아주 얇아 부드 럽게 정련을 한 것으로 보여 熟綃라 하였다.

숙초로 보이는 유물은 총 다섯 점으로 단령이 두 점 답호, 철릭, 직령포류(도포?) 각 한점이 있는데 구성은 모두 홑이다. 또 폭의 너비는 $36\sim40$ cm로 이번에 출토된 다른 유물들의주와 비슷하거나 넓으며 장견사를 사용하여 잔털이 없고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된 숙초는 다음과 같다.

단령 ②, ③은 모두 홑옷으로 경·위사 밀도는 25×25/cm로 비교적 가늘고 밀도도 성글어서 피륙의 투공율이 높기 때문에 얇고 반투명하게 느껴진다. 실의 꼬임은 무연 합사이고 아주 성글게 짜였다.

단령 ②은 폭의 너비가 40cm으로 어깨 바대³⁾에서 측정하였다. 두께는 0.15mm이다. 단령 ③도 폭의 너비가 40cm로 소매에서 측정했으며 두께는 0.13mm이다. 본 유물 중 두께가 가장 얇다.

^{2) 『}燕山君日記』卷 58, 11年 6月 癸酉

³⁾ 어깨 바대에 한 폭 너비를 사용하여 양쪽 옆 식서부분을 터 놓는다.

답호 ③은 홑이며 밀도는 27×38/cm로 치밀하게 짜여졌다. 투공율이 다른 숙초의 유물보다 낮으며, 두께도 0.20mm로 가장 두껍다. 폭 너비는 40cm로 소매부분에서 측정되었다.

철릭 ④과 직령포류(도포?) ②는 경·위사에 사용한 실은 장견사 종류로 잔털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꼬임이 없는 무연사이고 굵기는 균일하다. 폭의 너비는 철릭이 37cm, 직령포류(도포?)는 36cm로 비슷하며. 두께는 0.17mm과 0.19mm로 단령에 비해서 조금 두껍다.

숙초에 사용된 식서 너비는 0.1cm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좁다4).

[표 2] 熟綃의 특성

0	7 1.1	-1 -2	0.	밀도(1cm)	폭너비	식서너비	두께	실의	꼬임
유 물	구성	피륙	용도	경사	위사	(cm)	(cm)	(mm)	경사	위사
단령②	홑	熟綃	겉감	25	25	40	0.1	0.15	무연	무연
단령③	홑	熟綃	겉감	25	25	40	0.1	0.13	무연	무연
답호③	홑	熟綃	겉감	27	42	40	0.1	0.20	무연	무연
철릭④	홑	熟綃	겉감	31	29	37	0.1	0.17	무연	무연
직령포류(도포?)②	홑	熟綃	겉감	27	26	36	0.1	0.18	무연	무연

단 령②	단 령③	답 호 ③
철 릭 ④	직령포류(도포?) ②	

〈사진 1〉熟綃

⁴⁾ 시접이 거의 없이 식서부분에 한 올로 바느질하여 선으로만 나타난다.

(2) 吐紬, 綿紬

吐紬는 경사와 위사에 꼬임이 있는 실을 사용하여 아주 치밀하게 짠 종류를 말한다. 토주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綿紬라고 했는데 문헌 중에 많이 나타난다. 『林園十六志』에 吐紬는 家蠶의 退絹, 雪綿子로 실을 만들어 짜는데 질기고 온난하여 값이 보통주의 배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각 색으로 물을 들여 사용되었다. 5)

이번에 출토된 유물에서 토주는 모두 겉감으로 사용되었다. 총 6점으로 직령1점, 철릭 2점, 직령포류(도포?)1점, 액주음 2점이다. 유물 모두에서 짙은 남색이나 녹색이 남아 있다. 또 경사와 위사에 강한 좌연으로 꼬인 絹紡絲을 사용하여 표면에 줄무늬6가 나타나고, 밀도는 치밀하며 거칠게 느껴진다. 두께는 0.20~0.27mm로 주보다는 두껍고, 폭 너비는 35~40cm로 다양하다.

吐紬의 특성은 [표 3] 와 같다.

밀도(1cm) 폭너비 식서너비 두께 꼬임방향 유 물 구성 피륙 용도 경사 (cm) (cm) (mm)경사 위사 위사 직령① 겹 토주 좌연 겉감 33 37.5 0.1 0.21 좌연 철릭(3) 겹 토주 겉감 30 33 37 0.1 0.23 좌연 좌연 철릭(8) 토주 겉감 0.20 좌연 좌연 겹 29 36 40 0.1 직령포류 (도포?)① 겹 토주 겉감 30 33 36 0.1 0.23 좌연 좌연 액주음(1) 겹 토주 겉감 좌연 좌연 30 27 35 0.1 0.25 액주음② 겹 토주 겉감 좌연 좌연 31 27 37 0.2 0.27

[표 3] 吐紬의 특성

직 령①	철 릭 ③	철 릭 ⑧
직령포류(도포?) ①	액주음 ①	액주음 ②

〈사진 2〉 吐紬

⁵⁾ 심연옥,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2 71쪽

⁶⁾ 김주영, 『朝鮮時代 철릭의 피륙[織物] 연구』 41쪽,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3) 細紬, 紬

紬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세주는 실의 굵기가 균일하고 꼬임이 거의 없으며 잔털이 없이 표면이 평평하면서 광택이 나며 짜임이 균일하고 반듯하다. 유물 중 6건의 피륙에 보인다. 주는 실의 굵기가 균일하지 않고 중간 중간 굵은실이나 섬유가 뭉쳐진 것들이 섞여들어가 있고 짜임도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이 경사와 위사의 굵기와 밀도가 비슷하다.

겉감에 사용한 견평직은 細紬가 2점, 紬가 9점이다. 철릭 ⑥과 액주음 ⑤가 있는데 주에 비하여 밀도가 치밀하여 경위사의 굵기도 비교적 균일하여 세주로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좌연 꼬임이 있고 경위사의 굵기가 고르지 못하지만 배열은 가지런한 주이다. 이러한 특징은 철릭 1점, 액주음 2점, 저고리 2점, 개당고 1점, 지요, 오낭, 주조각에서 보이고 있다.

안감에 사용한 주는 총 25건으로 겉감에 사용한 주보다는 성글고 잔털이 많으며 배열도 고르지 않고, 표면에는 광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직령 1점, 철릭 5점, 직령형(도포?) 1점, 방령형 상의 1점, 액주음 5점, 저고리 2점, 지요, 명목, 악수 등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복식 5점에서는 안감에 2~4가지 다른 종류의 주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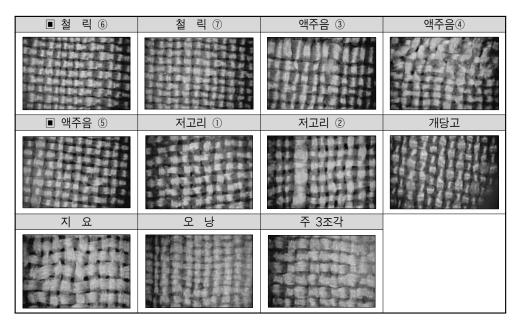
동정에 사용한 피륙도 세주와 주인데, 세주는 총 4점으로 단령 ①, 철릭 ②, 철릭 ⑥, 철릭 ⑦에서 실의 굵기가 균일하고 꼬임이 거의 없다. 주를 사용한 동정은 총 5점으로 일반적인 주와 같다. 경위사가 균일하지 않고 약간의 좌연 꼬임도 보인다. 또 철릭 ⑦은 동정을 2가지 주를 사용했는데 겉깃 쪽에 사용된 주가 안깃 쪽보다 더 좋은 것을 사용하였다.

[표 4-1] 細紬, 紬의 특성

유 물	구성	피륙		용 도	밀도(1cm)	폭너비	식서너비	두께
田 宮	T6	쒸푝				위사	(cm)	(cm)	(mm)
단령①	단령	세주	동정		24	23	-	-	0.15
직령①	겹	주		안감	25	32	33	0.1	0.16
철릭②	호	세주		동정	26	31	-	-	0.20
				길, 소매	22	27	37.5	0.1	0.24
철릭③	겹	주	안감	裳, 섶, 끝동, 당	22	37	34	0.1	0.14
		주	안감	衣	22	25	35.5	0.1	0.22
철릭(5)	겹	干	인심	裳	24	21	35.6	0.1	0.15
		세주		동정	21	27	-		0.16
		세주		겉감		28	37.5	0.2	0.20
철릭⑥	겹	주		안감		33	34	0.2	0.17
		세주		동정	27	30	-	-	0.21
				겉감	24	29	34.5	0.1	0.22
				치마	24	34	32	0.1	0.19
철릭⑦	누비겹	주	안감	치마	28	35	34	0.1	0.26
290	1 41/19	T		길	21	20	31.5	0.1	0.19
			동정	겉깃	28	30	-	-	0.20
			5/8	안깃	20	20	-	·	.024
				치마	21	23	35	0.1	0.20
철릭®	7념	겹 주	주 안감	치마	18	23	-	-	0.20
(2 뒤(0)	⑧ 겹 주			깃	25	30	-	-	0.17
			길	21	26	35.5	0.1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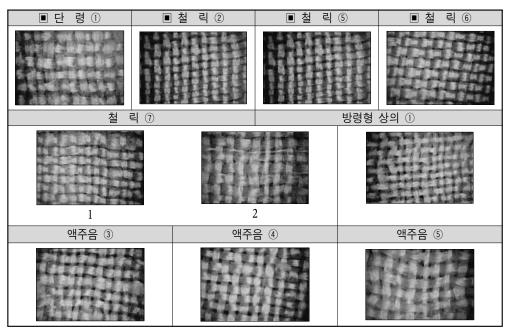
[표 4-2] 細紬, 紬의 특성

0 0	7 44	크리	9 -	밀도	(1cm)	폭너비	식서너비	두께
유 물	구성	피륙	용 도	경사	위사	(cm)	(cm)	(mm)
직령포류(도포?)①	겹	주	안감	16	20	38	0.2	0.21
방령형 상의①	겹	주	안감	29	29	31	0.2	0.18
668 640	19	주	동정	30	24	-	-	0.18
액주음(1)	겹	주	안감	27	21	36	0.1	0.22
액주음②	겹	주	안감	22	14	36	0.1	0.23
			겉감	24	23	32	0.2	0.28
액주음③	누비겹	주	안감	19	30	36	0.1	0.25
			동정	25	20	-		0.25
			겉감	24	30	35	0.1	0.20
액주음④	누비겹	주	안감	22	25	39	0.1	0.19
			동정	21	24	-	0.1	0.24
		세주	겉감	25	23	34	0.1	0.22
액주음(5)	누비겹	주	안감	20	24	35	0.1	0.24
		주	동정	22	17	-	-	0.25
			겉감 (소매, 길)	23	24	28.5	0.1	0.22
저고리①	겹	주	안감	19	14	29	0.2	0.25
			인성	18	16	-	-	0.23
저고리②	누비겹	주	겉감	24	20	35	0.2	0.25
시포디션	무미됩	Τ	안감	26	18	34	-	0.24
개당고	겹	주	겉	27	25	34	0.1	0.25
지요	겹	주	겉, 안감동일	21	19	35	0.1	0.25
명목	겹	주	안감	24	23	-	-	0.21
악수	겹	주	안감	25	24	-	-	0.21
오낭	홑	주	겉감	29	23	-	-	0.22
모	겹	주	안감	22	25	-	-	0.21
주3조각	호	주	겉감	22	21	36	0.2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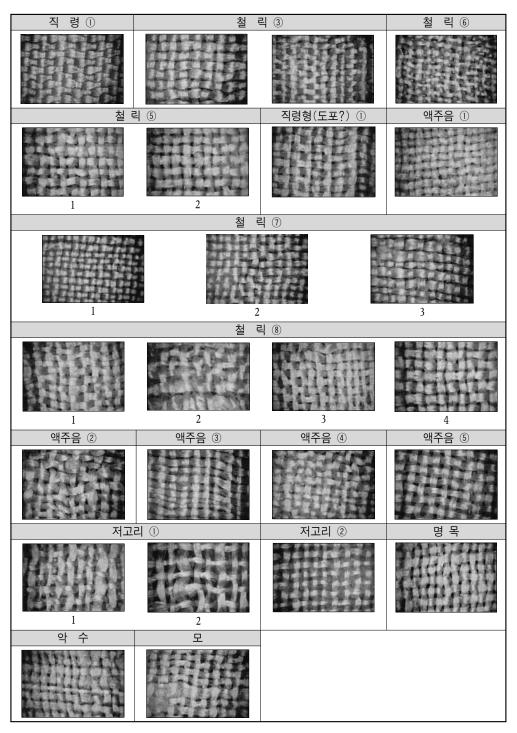
〈사진 3〉 겉감에 보이는 細紬와 紬

- ■는 세주이다.



〈사진 3〉동정에 보이는 細紬와 紬

- ■는 세주이다.



〈사진 3〉 안감에 보이는 細紬와 細

2) 繻子織(朱子織)

繻子織은 朱子織이라고도 부르며, 바닥조직이 수자조직으로 짜여진 것을 緞이라고 한다. 본 유물 중 수자직으로 제직된 피륙은 총 9건인데, 이 중 무늬가 있는 것은 단령 1점, 답호 1점, 철릭 2점, 저고리 1점으로 5점이지만 단령은 겉감과 안감 모두 문단을 사용하였다.

바닥은 모두 5매 經繻子織으로 되었으며, 무늬조직은 5매 緯繻子織으로 제직된 단층조직이다. 경사는 가늘고 위사는 경사의 2~4배 이상 굵은 실을 쓰거나 2올 이상 合絲를 사용한다. 그래서 무늬부분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위수자직으로 짜여지면서 위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단령 ①은 겉감과 안감에 모두 紋緞을 사용하였다. 겉감은 5매 2비 경수자직이고, 문조직은 5매 2비 위수자직으로 짜여졌다. 경사는 가늘고 좌연의 꼬임이 있고. 위사는 거의 꼬임이 없다. 경위사 밀도는123×32/cm, 두께는 0.25mm로 얇은 편이며 아주 부드럽다. 폭너비 62cm이고 석서의 너비는 0.8cm이다. 안감의 밀도는 경·위사 117×38/cm, 두께는 0.24mm이고, 폭너비는 58cm고, 식서는 1cm이다.

답호 ①과 철릭 ①, ②은 5매 경수자직이고 무늬는 5매 위수자직이며 뜀수를 2飛로 하였다. 꼬임은 경사에 좌연의 꼬임이 있고, 위사는 무연사이며 2올을 함께 並絲하였다. 두께는 0.34이고, 폭의 너비는 66cm며, 식서는 1cm이다. 경위사 밀도는 답호는 115×43/cm이고, 철릭은 96×45cm/, 120×35/cm이다.

누비저고리는 깃, 끝동, 무, 섶에 문단을 사용하였다. 경사는 5매 2비 경수자직에 Z연의 꼬임이 있고, 2올을 함께 並絲하였다. 위사는 5매 2비위수자직 무연사이다. 두께는 본 유물 중 緞으로선 가장 두꺼우며, 경위사의 밀도는 $107 \times 48/cm$ 이고, 조각으로 옷을 만들어서 폭너비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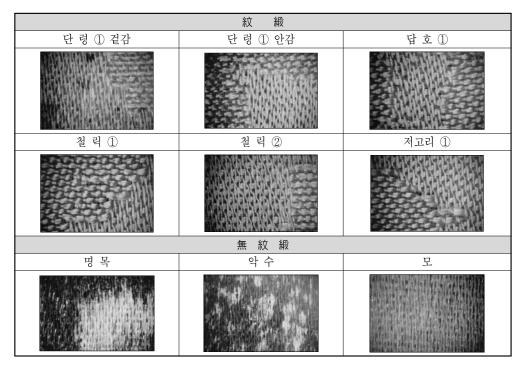
또 다른 수자직으로는 無紋緞이 있는데 모두 5매 2비 경수자조직이며 표면에 경사만 드러나 위조직점은 거의 보이지 않고 광택이 많이 난다. 다른 명칭으로는 貢緞, 素緞, 『飜譯朴通事』에서는 素段子라하고 믠비단이라 언해되었다." 본 유물에서는 복식류 보다는 염습제구인 명목, 악수, 모에서 사용되었다. 地租織이 5매 2비 경수자직으로 經絲의 꼬임은 좌연사이고 아주 가늘며, 緯絲는 무연사로 경사의 3~4배이다. 두께는 모두 0.21㎜이다.

본 유물에서 緞은 평견직 다음으로 많으며, 無紋보다는 有紋이 많다.

⁷⁾ 심연옥, 「이응해 출토복식직물연구」,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188쪽, 충주박물관, 2004

〔표 5〕繻子織의 특성

			0-	밀도((1cm)	폭	식서	두께	조	직
유물	구성	피륙	용도	경사	위사	(cm)	(cm)	(mm)	地租織	紋組織
단령①	겹	紋緞	겉감	123	32	62	0.8	0.25	5매2비경수자직	5매2비위수자직
1 5 5 T	19	形义和又	안감	117	38	58	1	0.24	5매2비경수자직	5매2비위수자직
답호①	홑	紋緞	겉감	115	43	66	1	0.34	5매2비경수자직	5매2비위수자직
철릭①	홑	紋緞	겉감	96	45	66	1	0.34	5매2비경수자직	5매2비위수자직
철릭②	홑	紋緞	겉감	120	35	59.5	0.6	0.25	5매2비경수자직	5매2비위수자직
저고리 ①	겹	紋緞	겉감 (깃, 끝동, 무, 섶)	107	48	알수 없음	알수 없음	0.36	5매2비경수자직	5매2비위수자직
명목	겹	無紋緞	겉감	128	41	알수 없음	알수 없음	0.21	5매2비경수자직	-
악수	겹	無紋緞	겉감	124	40	알수 없음	알수 없음	0.21	5매2비경수자직	-
모	겹	無紋緞	겉감	128	41	알수 없음	알수 없음	0.21	5매2비경수자직	-



〈사진 4〉繻子織

3) 2經 꼬임조직(紗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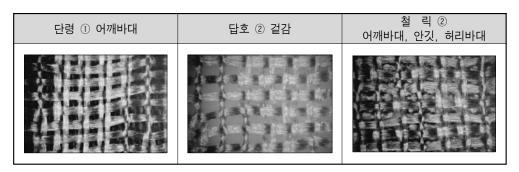
본 유물에서는 2經 꼬임조직은 겉감에 사용된 답호 1점과 단령·철릭의 어깨바대, 허리바대, 안깃 등에 사용되었다.

답호 ②에 사용된 피륙은 평직을 혼합하여 조직의 차이로 무늬를 나타낸다. 地組織을 紗組織으로 짜고 무늬를 평직으로 짜는데, 아주 가는 長絹絲로 성글게 짜여져 투공율이 높아얇게 비쳐 보인다.

단령 ①과 철릭 ②는 바닥이 평직이며, 무늬는 사직으로 답호 ②보다 덜 비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표 6] 2經 꼬임의 특성

유물	구성	ᆔᄅ	9.5	밀도	(1cm)	폭	식서	두께	조	직
ㅠ퍌	千谷	피륙	용도	경사	경사 위사 (cm)		(cm)	(mm)	지조직	문조직
단령①	겹	紋紗	어깨바대	28	24	-	0.6	0.14	평직	2경꼬임사직
답호②	겹	紋紗	겉감	30	20	64.5	0.7	0.15	2경꼬임사직	평직
철릭②	홑	紋紗	어깨바대 안깃, 허리바대	29	22	59.5	0.6	0.14	평직	2경꼬임사직



〈사진 5〉2經 꼬임

2. 綿 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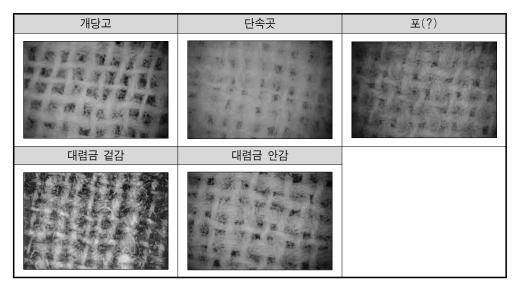
綿類는 평직으로 총 4점으로 다른 피륙보다 파손이 정도가 매우 심하다.

開堂考의 안감은 면포를 사용하였는데 흔적만 있고, 겉감에서 형태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絹紡絲가 좌연의 꼬임을 준 것에 반하여 綿紡絲는 우연으로 꼬임을 주었고 경위사의 밀도는 매우 성글게 짜여졌으며 두께는 $0.27 \sim 0.34$ mm이다.

폭의 너비는 대렴포에서만 알 수 있는데, 너비는 34㎝이고 겉감은 짙은 남색이다.

0므	유물 구성 구성	구성	용도	밀도((1cm)	폭너비	식서너비	두께	꼬임	방향
TE	千谷	피륙	공도	경사	위사	(cm)	(cm)	(mm)	경사	위사
개당고	겹	綿布	안감	19	18	알수없음	알수없음	0.27	우연	우연
단속곳	홑	綿布	겉감	19	20	알수없음	알수없음	0.30	우연	우연
대렴금	겹	綿布	겉감	22	25	34	0.1	0.33	우연	우연
네임급	113	市内/门	안감	19	21	34	0.1	0.34	우연	우연
포(?)	•	綿布	겉감	21	20	알수없음	알수없음	0.31	우연	우연

[표 7] 綿布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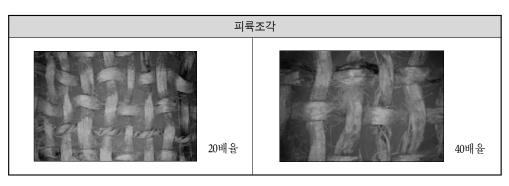
〈사진 6〉 綿布

3. 麻 類

평직으로 제직 된 麻布 1점이 있다. 형태를 알 수 없는 잔편으로 식서 너비는 0.2㎝이고, 한 폭 너비는 알 수 없어 정확한 승수는 측정할 수 없지만, 전통피륙의 평균 너비인 36㎝8 로 가정했을 때 넉새의 거친 마포로 볼 수 있다. 두께는 0.56㎜로 본 유물 중에서는 가장 두 꺼운 피륙이다.

[표 8] 麻布의 특성

유물 구성 피륙		용도	밀도(1cm)	폭너비	식서너비	두께		
ΠŻ	1.9	<u> </u>	<u>9</u> T	경사	위사	(cm)	(cm)	(mm)	
피륙조각	홑	마포	겉감	9	7	알수없음	0.2	0.56	



〈사진 7〉麻布

4. 交織類

조선시대 문헌 중에 나타나는 교직의 종류는 다양하다. 세종 5년(1720년)의 기록에는 絲麻兼織布가 지방에서 제직된다 하였다. 18세기 徐有而가 저술한 『林園經濟志』에는 다양한 교직포의 기록이 있다. 교직은 경사에 견사, 위사에 면사로 짠 것을 교직이라 하고, 경사에는 견사, 위사에 면사 2을 견사 2을을 번갈아 짠 것이다. 문헌 중에는 다양한 교직의 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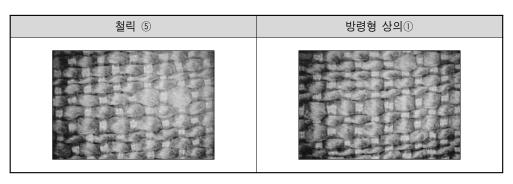
⁸⁾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사 연구』, 93쪽, 한림원, 2000

이 보이지만 조선시대 출토유물 중 교직류는 거의 견사와 면사가 경, 위사로 짜인 것이 대부분이다.⁹

본 유물 중 교직은 2점이 출토되었는데 철릭 ⑤과 방령형 상의의 겉감 전체에서 보이며, 경사는 장견사를 쓰고, 위사는 잔털이 많은 면사를 사용하여 제직되었다. 모두 평직이고 物性이 거칠고 뻣뻣하며 광택이 없어 토주 혹은 면포와 유사하다. 경사는 꼬임이 없는 무연의 견사이며 위사는 좌연의 꼬임을 준 면방사로 잔털이 일어난다. 위사가 경사보다는 굵고, 한폭 너비는 34cm, 31.5cm이고 두께는 0.21mm이다.

유물 구성 피륙 용		85	밀도(1 용도		폭너비	식서너비	두께	꼬임	방향	
πΞ	下谷	씌팍	공도	경사	위사	(cm)	(cm)	(mm)	경사	위사
철릭(5)	겹	사면 교직	겉감	25	34	34	0.1	0.21	무연	좌연
방령형 상의①	겹	사면 교직	겉감	24	33	31.5	0.1	0.21	무연	좌연

[표 9] 交織의 특성



〈사진 8〉 交織

5. 엮음류

엮음류은 직기를 이용한 직조에 의해서 짜여진 機織物이 아니고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⁹⁾ 심연옥, 2004 앞의 책, 186쪽

이용하여 엮거나 얽어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組物을 多繪라 하였으며 平調의 광다회와 환조의 원다회가 있었다. 광다회는 평면으로 납작하게 짠 것으로 폭을 넓게 하여 허리띠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대전회통의 기록에 의하면 경공장에 다회장을 설치하고 일정한 수의 장인을 宮과 숨에 두어 다회를 친 기록이 있고, 오색다회, 자색 광다회 등을 제조 하였다.¹⁰⁾

또 다회는 일본에도 전해졌는데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고야에 진을 치고, 조선으로부터 많은 장인들을 데리고 와 여기서 '韓組'라는 독특한 기법을 전하게 하였다. 이 것을 '韓組帶'라 하며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등 많은 색들이 섞여 있는 것과 금실로 만들 어진 것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하는 유물은 없다"고 한다.¹¹⁾

본 유물은 1上 1下의 변화 綾組織으로 짜여졌고 끝에는 정교한 매듭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였고, 매듭 안에는 雲母를 넣어 매듭 사이사이에서 반짝이며 비치게 하였다.

유 물 1/1엮음 편조, 매듭
과다회

[표 10] 엮음류

¹⁰⁾ 심연옥, 2002 앞의 책, 61~62쪽

¹¹⁾ 長沼, 『美しい組紐』, 22쪽, 泰流社, 1992

Ⅳ. 피륙무늬의 종류와 특징

본 유물의 피륙 중 무늬가 있는 것은 6점이다. 대부분의 유물이 紬이고, 그리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 편이다. 무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구름무늬와 꽃무늬이다. 이것들은 자연무늬로 인간과 가장 부담이 없는 것들, 주변에 보이는 친밀한 자연물들가운데 '祥瑞로운 것 들'12)을 소재로 한다.

이 중 운보문이 보이는 유물은 총 4점으로, 답호 ①과 철릭 ①은 전체 의복을 구성하는 피륙으로 사용하였고, 단령 ①과 철릭 ②은 의복의 안깃이나 어깨바대, 허리바대 등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구름의 형상은 수레의 역할도 하고 또 구름다리도 되어 仙人들의 陰陽을 부리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구름은 陰氣와 陽氣의 조화로 구름이 일고 변화된다는 것이다.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을 雲氣라 하고 또 구름이 움직여가는 모양을 雲脚이라 하였다.

구름은 古來로 不老不死를 상징하였는데, 인간의 소원 중 不老不死가 최대라는 것은 태고에서부터 오늘까지, 즉 미개사회에서부터 문명의 길을 걸어온 인류에 있어서까지 변함이 없었다. 인류는 그 소원을 신에게 청원하기 위해 제사의례를 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表象으로서 구름모양을 삼았다.¹³⁾

꽃무늬는 총 4점의 유물에서 다섯 건이 보인다. 꽃의 종류는 연화와 모란이다. 연화는 荷花, 芙蓉, 水花등으로 불려졌는데 민간에서는 연꽃이 씨를 많이 가지고 있어 得男의 기대와 부합되어 다남을 상징하는 무늬으로 널리 사용되어졌다. 또한 蓮은 連과 음이 같아 連生貴子의 상징물로 자주 애용되었다.

모란은 牧丹이라고도 하는데 꽃잎이 탐스럽고 화려해서 '花中王', 부귀와 번창의 상징인 富貴花라고도 하며, 財福·多男·壽福 등을 상징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화나 모란꽃을 그릴때는 반드시 덩굴과 함께 그렸는데, 이는 열매가 자손이 되고 덩굴은 한자로 蔓帶라 하는바, 이는 음이 萬代와 같아 子孫萬代의 뜻이 되기 때문이다.14

¹²⁾ 고부자, 『조선시대 피륙[織物]의 무늬』, 196쪽,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¹³⁾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 제4권 구름무늬』, 8쪽, 안그라픽스, 1995

¹⁴⁾ 조용진, 『東洋畫 읽는 법』, 89쪽, 집문당, 1989

(표 11-1) 무 늬

유물	피륙 명칭	명칭 및 용도	무늬소재	한틀크기 경×위(cm)	유 물	도안 한틀
단 ①	모란 만초 문단	단령의 겉감	모란, 만초	15.5×21.5		
		단령의 안감	모란, 만초	9.5×14		
	운보 문사	단령의 어깨 바대	운문, 잡보 (전, 주 산호, 서각, 서보, 보)	11.5×17		
답호 ①	운보 문단	답호의 겉감	운문, 잡보 (보주, 보, 서각, 방승, 전, 서보)	11.5×16		

[표 11-2] 무 늬

유물	피륙 명칭	명칭 및 용도	무늬소재	한틀크기 경×위(cm)	유 물	도안 한틀
답호 ②	연화 만초 문사	답호의 겉감	연화, 만초	10.7×24.5		
철릭 ①	운보 문단	철릭의 겉감	운문, 잡보 (여의두, 보, 서각, 전, 보주, 서보)	11.5×17		
철릭 ②	모란 만초 문단	철릭의 겉감	모란, 만초	21×14.5		
	운보 문사	철릭의 안깃, 어깨 바대, 허리 바대,	운문, 잡보 (전, 산호, 서각, 서보, 보, 방승,)	11.5×17	1	

[표 11-3] 무 늬

유물	피륙 명칭	명칭 및 용도	무늬소재	한틀크기 경×위(cm)	유 물	도안 한틀
저고 리	보상화 만초 보문단	겉감 (깃, 끝동, 무, 섶)	모란, 만초, 잡보(서각, 서보, 방승, 전, 보, 보주,)	?×18		

V. 맺 음

이상으로 晋州姜氏(1941~1624년)묘에서 출토된 피륙의 종류와 무늬의 종류에 대하여 조 사하여 다음과 같다.

본 묘에서 출토된 피륙은 絹類, 綿類, 麻類, 交織, 엮음으로 구분된다. 평직의 견류는 크게熟綃・紬・吐紬로 나누었는데 그중에서 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吐紬와 熟綃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모두 5매 수자직의 紋緞과 無紋緞이이 있으면 2경 꼬임의紋紗가 있다. 또 면류와 교직, 마류도 출토되었다.

피륙의 종류는 그리 다양하지 않으나 한 점의 유물에 여러 가지 피륙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안감에는 작은 조각에서 큰 조각까지 잔편을 많이 이어 사용하여 진주강씨 집안의 근검 절약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무늬가 있는 피륙으로는 緞과 紗에서 보이는데 크게 雲紋과 잡보, 모란, 연화, 만초로 이루어 있다. 운문은 조선시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무늬로 4건이 있다. 모란은 多福·多男·繁榮 등 吉祥의 의미로 일반적인 무늬중 하나이다. 이들은 모두 자연무늬로 인

간과 가장 부담이 없는 것들, 주변에 보이는 친밀한 자연물들 가운데 祥瑞로운 것 들을 소 재로 하였다.

본 진주강씨 유물의 피륙은 여러 건의 동시대 유물과 함께 조선중기 피륙의 연구에 새로 운 자료로 학문적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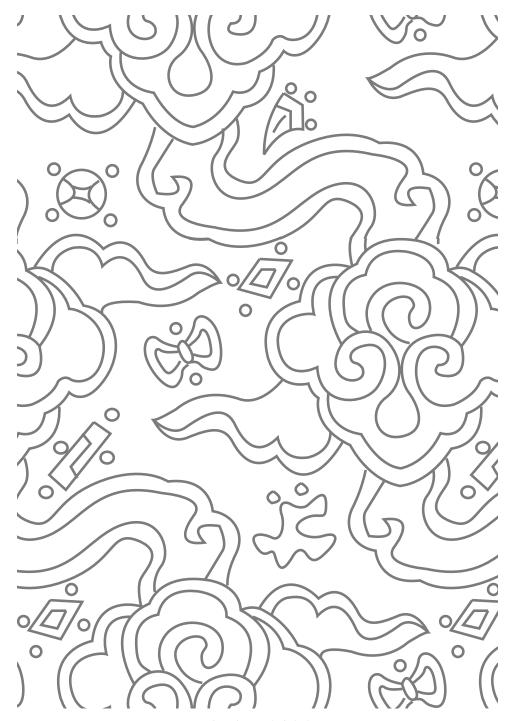
『世宗實錄』 『燕山君日記』 고부자, 『조선시대 피륙[織物]의 무늬』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1 , 『趙儆墓出土遺衣』서울역사박물관, 2003 민길자, 『한국전통직물사 연구』 한림원, 2000 민길자 심연옥, 「조선 전기 출토직물의 종류와 그 제직 기구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 제15 호 1997 심연옥,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2 , 「이응해 출토복식 직물연구」『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충주박물관, 2004 , 「남오성묘 출토복식 직물연구」『남오성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05 조효숙, 『심수륜묘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심수륜묘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2004 , 『장기 정씨 묘 출토 직물의 분석」 『포항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2000 조용진, 『東洋畫 읽는 법』집문당, 1989 김주영, 「朝鮮時代 철릭의 피륙[織物] 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03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 제4권 구름무늬』 안그라픽스, 1995 長沼、『美しい組紐』 泰流社, 1992



단 령 ①



단 령 ②



단 령 ① 어깨바대



답 호 ①



답 호 ②



철 릭 ①



철 릭 ②



저고리 ①

檀國大學校

后面善紀念博物館

개 관 기 념 행 사 내 역

- 開館 1981년 5월 2일 -

- 1. 開館紀念"廣州李氏壽衣特別展"
 - 日 時:1981.7.13 ~ 7.19
 - 場所:本博物館 세미나실
 - 1979. 3 京畿道 果川 出土 1580年代
 - 1980. 11. 29 重要民俗資料 第114號 指定
- 2. 開館一周年紀念"第二回壽衣特別展"
 - 日 時:1982.5.8 ~ 5.15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 南陽洪氏 壽衣 1980. 京畿道 陽州 出土 1450年代
 - 廣州李氏 壽衣 1979. 3 京畿道 果川 出土 1580年代
 - 全州李氏 壽衣 1981. 6 京畿道 龍仁 出土 1730年代
- 3. 開館二周年紀念 "第一回 學術 세미나"
 - 日 時:1983.5.2 ~ 5.3
 - 場所:本博物館 세미나실
 - 論題 및 演士
 - 決織品의 保存과 陳列 典實榮子 선생(東京 國立文化財研究所 主任研究官)
 - 2)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석주선 박사(本 博物館長)

- 4. 開館三周年紀念"第二回 學術세미나 및 第三回 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
 - 日 時:1984.5.1 ~ 5.4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중앙홀
 - 論題 및 演士
 - 1)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하효길 관장(國立民俗博物館)
 - 2) 고대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민길자 교수(國民大學校)
 - 3) 舊韓末 宮中禮服 및 一般婦女服飾 研究 김영숙 원장(東洋服飾研究院)
 - 特別展: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 袞龍袍 外 20억 점
- 5. 開館四周年紀念 "第三回 學術 세미나 및 第四回 朝鮮朝女人襯衣類 特別展"
 - 日 時:1985.5.1 ~ 5.4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중앙홀
 - 論題 및 演士
 - 1) 텔레비젼 사극의 고증과 실제 박성식 교수(培花女專)
 - 2) 우리나라 傳統染色에 관한 考察 소황옥 교수(中央大學校)
 - 3) 翟衣制度의 變遷研究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朝鮮朝 女人 襯衣類 特別展 단속곳 외 40여 점
- 6. 開館五周年紀念 "第四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五回 朝鮮朝 여자 저고리 特別展"
 - 日 時:1986.5.2 ~ 5.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 論題 및 演士
 - 한국 고대의 장신구
 김기웅 박사(文化財 專門委員)
 - 高松塚의 복식사적 연구
 박경자 교수(誠信女子大學校)
 - 3) 濟州道 여인의 속옷에 대한 民俗學的 研究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朝鮮朝 여자 저고리 特別展 光海君妃 青衫 외 57점
- 7. 開館六周年紀念 "第五回 學術 세미나 및 第六回 朝鮮朝 冠服 特別展"
 - 日 時:1987.5.2 ~ 5.9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우리나라의 甲胄 實態
 이강칠 선생(前 軍事博物館長)
 - 2) 제주도 갈옷의 實態調査에 대한 應用方案 研究 손경자 교수(世宗大學校)
 - 親蠶禮 및 親蠶服에 대한 研究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특별전:朝鮮朝 冠服 特別展 興官大院君 紫赤團領(重要民俗資料 第214號) 외 22점
- 8. 開館七周年紀念"第六回 學術 세미나 및 第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1988.5.2 ~ 5.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道教服飾小考 임영자 교수(世宗大學校)

- 2) 日本의 服裝에 있어서의 韓日關係 山邊知行 관장(遠山紀念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 1) 金海金氏(涵, 1568 ~ 1598, 重要民俗資料 第209號)
 - 2) 陽川許氏(1450년대 추정)
 - 3) 慶州李氏(泰坤, 1672 ~ 1763)
- 9. 開館八周年紀念 "第七回 學術 세미나 및 第八回 出土 服飾 特別展"
 - 日 時:1989.5.2 ~ 5.11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居家雜服攷를 통해 본 朴珪壽의 服飾觀 조효순 교수(明知大學校)
 - 2) 韓・中 文官 胸背 様式 比較 小考 배정용 교수(淑明女子大學校)
 - 3)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研究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4) 城南 出土 東來鄭氏 出土 遺物에 관한 小考 박성실・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및 傳統壽衣一襲 復原展示
 - 1) 城南 出土 東來鄭氏 出土服飾(1529 ~ 1604) 30여 점
 - 2) 傳統壽衣一襲 復原展示 30여 점
- 10. 開館九回周年紀念"第八回 學術 세미나 및 第九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0.5.2 ~ 5.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佩玉에 관한 研究 홍나영 교수(釜山女大)

- 2) 深衣構成에 關한 研究 김정자 교수(大田實傳)
- 3) 驪州 出土 東來鄭氏 出土遺物 小考 고부자・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 驪州出土 東來鄭氏 出土服飾(1582~1669) 50억 점
- 11. 開館十周年紀念 "第九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1.5.2 ~ 5.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日本 文化女子大學 服飾博物館 所藏, 德惠翁主 遺物 小考 석주선 박사(本 博物館長)
 - 2) 우리나라 古代 喪制 속에 반영된 宗教觀 전혜숙 교수(東亞大學校)
 - 3)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共派 出土遺物 小考 박성실・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워고게재
 - 1) 中國 古代服飾 文物的 發掘·整理和 研究 周訊(上海藝術研究所 中國服飾史研究室 主任
 - 中國服飾商用文樣解釋 高春明(上海藝術研究所 中國服飾史研究室)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出土服飾(1508~1572) 30억 점
- 12. 開館十一周年紀念 "第十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一回 出土服飾 特別展"
 - ▶ 日 時:1992.5.2 ~ 5.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 ・ 論題 및 演士
 - 1) 15世紀 服飾의 樣式과 特性 유희경 박사(服飾文化研究院長)
 - 2) 朝天錄과 燕行錄의 服飾 임기중 교수(東國大學校)
 - 3)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遺物 小考 고부자・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出土服飾(1617~1685) 20여 점
- 13. 開館十二周年紀念 "第十一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二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3.5.2~5.11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韓國服飾과 西域服飾의 共通要素 무함마드 깐수 교수(檀國大學校)
 - 2) 5·6세기 敦煌壁畵를 통해 본 服飾의 東西交流史 유혜영 박사(弘益大學校)
 - 3) 慶州君 突馬面 朽栗理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 小考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4)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 小考 고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 1) 慶州君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1431~1489년) 襄昭公派 遺物 20여 점
 - 2)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1660年代 추정) 遺物 20여 점
- 14. 開館十三周年紀念 "第十二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三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4.5.2 ~ 5.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 論題 및 演士
 - 1) 쪽염료의 제조과정 소고 이병찬 선생(식물염색 연구가)
 - 2) 中央아시아 宗教傳播의 諸樣相 -민병훈 박사(中央大學校)
 - 3) 中央아시아 修髪樣式과 頭衣 김용문 교수(誠信女子大學校)
 - 4) 「豊公遺實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5) 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 小考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1761~1841) 遺物 30억 점
- 15. 開館十四周年紀念"第十三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四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5.5.2 ~ 5.15
 - 場所:本博物館 중앙흘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l) 7~9세기 신라인의 해외 무역 활동 김문경 교수(崇實大學校)
 - 2) 正倉院의 服飾 과 染織 이춘계 교수(東國大學校)
 - 3) 忠北 忠州市 木溪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 小考 ユ부자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忠北 忠州市 木溪洞 出土 豊山洪氏(1699~1763) 遺物 30억 점

- 16. 開館十五周年紀念 "第十四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五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6.5.2 ~ 5.13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구포리 최숙 무덤의 구조와 출토 유물 한창균 교수(檀國大學校)
 - 2) 화성 구포리 출토 복식의 섬유 외물질 분석에 관한 소고 **안춘순・조한국・김정완 교수(仁川大學校)**
 - 3) 화성 구포리 出土服飾 小考 박성실 연구원(本 博物館)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 華城 鳩浦理 出土 隨城崔氏(1636~1698) 潰物 30여 점
- 17. 開館十六周年紀念 "第十五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六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7.5.2 ~ 5.16
 - 場所:本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조선 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직 기구에 대한 고찰 -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을 중심으로 -심연옥·민길자 교수(國民大學校)
 - 2)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表記 硏究(1)
 - 조선후기 服飾 어휘를 중심으로(l) -
 - 오창명 박사(濟州大學校)
 - 3)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 연구 고부자 소장(檀國大學校 民俗學研究所)
 -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天安 豊歲面 出土 濟州高氏(임진왜란 전후) 유물 40여 점

- 18. 開館十七周年紀念 "第十六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七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8.5.2 ~ 5.15
 - 場所:本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파주 금릉리 慶州鄭氏 墳墓에서 출토된 服飾에 찍힌 陀羅尼와 佛教符籍 박상국 실장(國立文化財研究所)
 - 2) 파주 금릉리 출토 慶州鄭氏 유물의 섬유 외 성분에 관한 분석 안춘순・조한국 교수(仁川大學校)
 - 과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박성실 관장서리(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坡州 金陵理 出土 慶州鄭氏(1481~1538) 遺物 40억 점
- 19. 開館十八周年紀念 "第十七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1999.5.2 ~ 5.14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조선시대 묘비문을 통해서 본 합장 문제 김우림 학예연구사(高麗大學校 博物館)
 -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고부자 소장(檀國大學校 傳統服飾研究所)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경기도 일영 출토 高靈申氏(조선전기) 遺物 50여 점
- 20. 開館十九周年紀念 "第十八回 學術 세미나 및 第十九回 전통 어린이 옷 特別展 어린이 날 우리옷 잔치(패션쇼)"
 - 日 時:2000.5.2 ~ 5.31
 - 場 所: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石宙善紀念博物館 展示室

- 論題 및 演士
 - 1)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 양육과 상징 유안진 교수(서울대학교 아동가정학과)
 - 2) 아동놀이의 의미와 기능 임동권 명예교수(中央大學校)
 - 3)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박성실 연구위(本 博物館)
- 特別展: 전통 어린이 옷 特別展박물관 소장품 150여 점, 외부 박물관 대여품 20여 점
- 어린이날 우리 옷잔치(패션쇼) : 1900년대 어린이옷(50여 벌)을 복원 모델(남·여 4~12세)를 선정하여 패션쇼
- 21. 開館二十周年紀念 "第十九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1.5.2 ~ 5.17
 - 場所:本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l) 紗·羅직물의 제직기술에 관한 연구 심연옥(國民大學校 兼任敎授)
 - 2) 遼代絲織袍服的圖案裁剪 자오 평(中國silk博物館 副館長)
 - 3)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炡(1699~1782) 유물 연구 고부자 교수(本 大學)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益炡(1699~1782) 유물 59점
- 22. 開館二十一周年紀念 "第二十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一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2. 5. 2 ~ 5. 17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 論題 및 演士
 - 1) 조선시대 記錄畵의 제작 배경과 畵風의 변천 이원복 부장(國立中央博物館)
 - 2) 조선시대 기능적 馬上衣類 실증적 고찰 김향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박성실 교수(本 大學)
 - 3) 서울시 중계동 星州李氏 大司憲 彦忠(1524~1582) 墓 복식 고찰 박성실 교수(本 大學)
- 特別展
 - 1) 서울 중계동 출토 星州李氏 大司憲 彦忠(1524~1582) 墓 服飾類
 - 2) 朝鮮時代 馬上衣類
- 23. 開館二十二周年紀念"第二十一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二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3.5.2 ~ 5.18
 - 場所:本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l) 조선시대 철릭 연구 금종숙(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고부자 교수(本 大學)
 - 2) 民畵와 風俗圖에 나타난 옷 윤열수(嘉會民畵博物館長)
 - 3) 충남 예산 출토 坡平尹氏(女, 1735~1754) 유물 연구 고부자 교수(本 大學)
 -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
 - 1) 충남 예산 출토 坡平尹氏(女, 1735~1754) 유물
 - 2) 조선시대 철릭(본 박물관 소장 출토 유물)
- 23. 開館二十三周年紀念 "第二十二回 學術 세미나 및 第二十三回 出土服飾 特別展"
 - 日 時:2004.5.2 ~ 5.18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제1전시실

- 論題 및 演士
 - 1) 전통 복식 문화의 현대적 활용 방법 모색 금기숙(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 2) 섬유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박지선(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
 - 3) 사모의 보존 처리에 관한 연구유효선(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박미진(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석사과정)
 - 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服飾 考察 박성실 교수(本 大學)
- 特別展: 出土服飾 特別展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李氏 密昌君 樴(1677~1746)墓 출토 복식류 70여점

慶祝

단국대학교 西南善紀念博物館 개관 24주년

民俗・服飾せい

제23회 학술발표 및 제24회 특별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晋州姜氏 草堂公派 宗中

慶 祝

단국대학교 西南善紀念博物館 개관 24주년

民俗·服飾분야 제23회 학술발표 및 제24회 특별전을 축하드립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일동
과 사무실 (02) 709 - 2722
지도교수연구실 (02) 709 - 2107, 2187

慶祝

단국대학교 西南善紀念博物館 개관 24주년

民俗・服飾号守

제23회 학술발표 및 제24회 특별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단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1~9기 졸업생 및 10기 재학생 일동
사회교육원 (02) 709-2886·2998·2257
지도교수연구실 (02) 709-2107

박물관 이용안내

■ 관람기간: 매주 화, 목 2일간

■ 시 간: 오전 10시 ~ 오후 4시

■ 휴 관:l. 국경일과 공휴일

2. 본교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3. 기타 본 박물관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TEL: (02) 709-2186 ~ 8 FAX: (02) 792-4258

受 領 證

한국복식 제23호를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일: 년 월 일

주 소:

소 속:

성 명: (인)

보 낼 곳: 단국대학교 **后 邮 善 紀 念 博 物 館**

서울시 용산구 한남로 147번지 단국대학교

(우) 140-714

* 다음 간행물을 보내드릴 때 명단작성의 근거가 되오니 꼭 수령증을 반송해 주십시오.

韓國服飾

第二十三號

찍은 날 2005年 4月 25日 印刷 펴낸 날 2005年 4月 30日 發行

編輯制作 檀國大學校 后面善紀念博物館

TEL: (02) 709 - 2107 FAX: (02) 792 - 4258

發 行 檀大出版部

서울特別市 龍山區 漢南路 147

140-714

登 錄 1968年 2月 27日 NO. 가 제3-95

印 刷 新 陽 社

TEL: 2275-0834 · 4585

FAX: 2275-4589